

—

2018년 충청남도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

목 차

I .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2. 연구과제	13
II . 이론적 배경	15
1. 위기청소년의 개념	16
2. 위기청소년의 특징	17
III . 연구개요	23
1. 연구대상	24
2. 연구방법	24
3. 연구도구	26
4. 분석방법	29
IV . 연구결과	31
1. 일반현황	32
2. 위기수준	40
3. 위기결과	49
4.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140
5. 보호요인	157
V . 결론	161
1. 연구결과 요약	162
2. 연구 의의와 제한점	168
3. 제언	169
참고문헌	171
부록1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설문지-초등학생용	176
부록2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설문지-중고등용/취약 · 위기청소년용	184

표 목차

<표 1> 위험요인 문항	26
<표 2> 보호요인 문항	27
<표 3> 위기결과 문항	28
<표 4> 시군별 분포	32
<표 5> 성별 분포	33
<표 6> 소속기관 분포	33
<표 7> 거주형태 분포	34
<표 8> 부모출신국 분포	35
<표 9> 가정경제수준 분포	36
<표 10> 청소년 전화 1388 인지 여부	36
<표 11> 청소년 전화 1388 이용 여부	37
<표 1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지 여부	37
<표 1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 여부	38
<표 14>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인지 여부	38
<표 15>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이용 여부	39
<표 16> 위험요인 차이	40
<표 17> 청소년 위기 수준 분할 기준	41
<표 18> 일반학생 시군별 위기수준	42
<표 19> 취약·위기청소년 시군별 위기수준	43
<표 20> 일반학생 성별 위기수준	44
<표 21> 취약·위기청소년 성별 위기수준	44
<표 22> 일반학생 소속기관별 위기수준	45
<표 23> 취약·위기청소년 소속기관별 위기수준	46
<표 24> 일반학생 가정경제수준별 위기수준	47
<표 25> 취약·위기청소년 가정경제수준별 위기수준	48
<표 26> 일반학생과 취약·위기청소년의 위기결과	49
<표 27>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50
<표 28> 약물사용	51
<표 29> 도박경험	51
<표 30> 학교폭력 피해·가해	53

<표 31> 비행	54
<표 32> 학대·방임	54
<표 33> 자살	55
<표 34> 성문제	56
<표 35> 가출	57
<표 36> 학업중단	57
<표 37> 시군별 일반학생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58
<표 38> 시군별 취약·위기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59
<표 39> 성별 일반학생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60
<표 40> 성별 취약·위기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60
<표 41> 소속기관 일반학생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61
<표 42> 소속기관 취약·위기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62
<표 43> 가정경제수준별 일반학생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63
<표 44> 가정경제수준별 취약·위기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64
<표 45> 시군별 일반학생 약물	65
<표 46> 시군별 취약·위기청소년 약물	66
<표 47> 성별 일반학생 약물	67
<표 48> 성별 취약·위기청소년 약물	67
<표 49> 소속기관 일반학생 약물	68
<표 50> 소속기관 취약·위기청소년 약물	69
<표 51> 가정경제수준별 일반학생 약물	70
<표 52> 가정경제수준별 취약·위기청소년 약물	71
<표 53> 시군별 일반학생 도박	72
<표 54> 시군별 취약·위기청소년 도박	73
<표 55> 성별 일반학생 도박	74
<표 56> 성별 취약·위기청소년 도박	74
<표 57> 소속기관 일반학생 도박	75
<표 58> 소속기관 취약·위기청소년 도박	75
<표 59> 가정경제수준별 일반학생 도박	76
<표 60> 가정경제수준별 취약·위기청소년 도박	76
<표 61> 시군별 일반학생 학교폭력피해	78
<표 62> 시군별 취약·위기청소년 학교폭력피해	79
<표 63> 성별 일반학생 학교폭력피해	80

<표 64> 성별 취약·위기청소년 학교폭력피해	80
<표 65> 소속기관 일반학생 학교폭력피해	81
<표 66> 소속기관 취약·위기청소년 학교폭력피해	82
<표 67> 가정경제수준별 일반학생 학교폭력 피해	83
<표 68> 가정경제수준별 취약·위기청소년 학교폭력 피해	84
<표 69> 시군별 일반학생 학교폭력가해	86
<표 70> 시군별 취약·위기청소년 학교폭력 가해	87
<표 71> 성별 일반학생 학교폭력가해	88
<표 72> 성별 취약·위기청소년 학교폭력 가해	88
<표 73> 소속기관 일반학생 학교폭력가해	89
<표 74> 소속기관 취약·위기청소년 학교폭력가해	90
<표 75> 가정경제수준별 일반학생 학교폭력가해	91
<표 76> 가정경제수준별 취약·위기청소년 학교폭력가해	92
<표 77> 시군별 일반학생 비행	93
<표 78> 시군별 취약·위기청소년 비행	94
<표 79> 성별 일반학생 비행 위	95
<표 80> 성별 취약·위기청소년 비행	95
<표 81> 소속기관 일반학생 비행	96
<표 82> 소속기관 취약·위기청소년 비행	97
<표 83> 가정경제수준별 일반학생 비행	98
<표 84> 가정경제수준별 취약·위기 청소년 비행	98
<표 85> 시군별 일반학생 학대·방임	99
<표 86> 시군별 취약·위기청소년 학대·방임	100
<표 87> 성별 일반학생 학대·방임	101
<표 88> 성별 취약·위기청소년 학대·방임	101
<표 89> 소속기관별 일반학생 학대·방임	102
<표 90> 소속기관별 취약·위기청소년 학대·방임	103
<표 91> 가정경제수준별 일반학생 학대·방임	104
<표 92> 가정경제수준별 취약·위기청소년학대·방임	105
<표 93> 시군별 일반학생 자살	106
<표 94> 시군별 취약·위기청소년 자살	107
<표 95> 성별 일반학생 자살	108
<표 96> 성별 취약·위기청소년 자살	108

<표 97> 소속기관 일반학생 자살	109
<표 98> 소속기관 취약·위기청소년 자살	110
<표 99> 가정경제수준별 일반학생 자살	111
<표 100> 가정경제수준별 취약·위기청소년 자살	112
<표 101> 시군별 일반학생 성문제	113
<표 102> 시군별 취약·위기청소년 성문제	114
<표 103> 성별 일반학생 성문제	115
<표 104> 성별 취약·위기청소년 성문제	115
<표 105> 소속기관별 일반학생 성문제	116
<표 106> 소속기관별 취약·위기청소년 성문제	117
<표 107> 가정경제수준별 일반학생 성문제	118
<표 108> 가정경제수준별 취약·위기청소년 성문제	119
<표 109> 시군별 일반학생 가출	120
<표 110> 시군별 취약·위기청소년 가출	121
<표 111> 성별 일반학생 가출	122
<표 112> 성별 취약·위기청소년 가출	122
<표 113> 소속기관별 일반학생 가출	123
<표 114> 소속기관별 취약·위기청소년 가출	124
<표 115> 가정경제수준별 일반학생 가출	125
<표 116> 가정경제수준별 취약·위기청소년 가출	126
<표 117> 시군별 일반학생 학업중단 위기결과 분포	127
<표 118> 시군별 취약·위기청소년 학업중단	128
<표 119> 성별 일반학생 학업중단	129
<표 120> 성별 취약·위기청소년 학업중단	129
<표 121> 소속기관 일반학생 학업중단	130
<표 122> 소속기관 취약·위기청소년 학업중단	131
<표 123> 가정경제수준별 일반학생 학업중단	132
<표 124> 가정경제수준별 취약·위기청소년 학업중단	132
<표 125> 시군별 일반학생 직장생활 부적응	133
<표 126> 시군별 취약·위기청소년 직장생활 부적응	134
<표 127> 성별 일반학생 직장생활 부적응	135
<표 128> 성별 취약·위기청소년 직장생활 부적응	135
<표 129> 소속기관별 일반학생 직장생활 부적응	136

<표 130> 소속기관별 취약·위기청소년 직장생활 부적응	137
<표 131> 가정경제수준별 일반학생 직장생활 부적응	138
<표 132> 가정경제수준별 취약·위기청소년 직장생활 부적응	139
<표 133> 일반학생의 인터넷·스마트폰중독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140
<표 134> 취약·위기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중독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141
<표 135> 일반학생의 약물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142
<표 136> 취약·위기청소년의 약물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142
<표 137> 일반학생의 도박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143
<표 138> 취약·위기청소년의 도박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143
<표 139> 일반학생의 학교폭력피해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144
<표 140> 취약·위기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145
<표 141> 일반학생의 학교폭력가해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146
<표 142> 취약·위기청소년의 학교폭력가해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147
<표 143> 일반학생의 비행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148
<표 144> 취약·위기청소년의 비행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148
<표 145> 일반학생의 학대·방임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149
<표 146> 취약·위기청소년의 학대·방임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149
<표 147> 일반학생의 자살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150
<표 148> 취약·위기청소년의 자살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150
<표 149> 일반학생의 성문제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151
<표 150> 취약·위기청소년의 성문제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152
<표 151> 일반학생의 가출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153
<표 152> 취약·위기청소년의 가출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153
<표 153> 일반학생의 학업중단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154
<표 154> 취약·위기청소년의 학업중단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154
<표 155> 일반학생의 직장생활 부적응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155
<표 156> 취약·위기 청소년의 직장생활 부적응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156
<표 157> 대상별 보호요인 차이	157
<표 158> 일반학생의 위기수준별 보호요인 차이	158
<표 159> 취약·위기 청소년의 위기수준별 보호요인 차이	159

그림 목차

<그림 1> 위기요소와 위기결과에 따른 6수준 분류	21
<그림 2> 충청남도 청소년 위기실태 연구 절차	25

2018년 충청남도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I. 서론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로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지는 발달적 위기를 겪게 되는 시기이며(Erikson,1956) 급격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변화에 적응하면서, 쉽게 위기를 경험하는 취약한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청소년기는 관심의 초점이 자신에게로 향하는 시기로, 신체적 욕구에서 자아실현 욕구에 이르기까지 욕구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만, 항상 긍정적인 성과를 창출해내기는 어렵는데, 이는 개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환경적 요인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는 가정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게 되지만, 가정이 그 역할을 하기 어렵거나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면, 지역사회가 위기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위기청소년의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문제는 계속 심화되고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과거 빈곤과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위기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개인과 사회적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으로 위기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구본용 외, 2005)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환경 속의 한 개인(a person in situation)이라는 생태체계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최근의 경향과도 맥을 같이 한다. 즉, 청소년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청소년을 둘러싼 가정, 학교, 사회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증가,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학교폭력, 자살 등 청소년의 문제는 단일적인 양상을 띠기보다는 점차 중복적·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윤철경, 2005; 배주미 외, 2010)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청소년위원회가 발족한 이래 현재 여성가족부에 이르기까지 위기청소년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법에서도 위기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차원의 청소년 위기상황 예방 및 다양한 청소년 문제 대처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및 212개 시군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지역 내 청소년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체계(Community Youth Safety-Net : CYS-Net)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CYS-Net을 통해 발굴된 청소년들은 우울, 불안, 가출, 학업중단, 인터넷, 자살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 빠치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이며,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런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One-STOP) 제공하기 위해서는 CYS-Net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위기청소년 발굴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관심과 지원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2017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의 흡연율과 음주율 모두 연도별 점차 감소추이를 보이다가, 음주율은 2016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스트레스 인지율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연도별로 청소년 스트레스 인지율을 살펴보면, 2015년에 비해 2016년 감소되었다가 2017년에는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우울감 경험율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 감소 추이를 보이다가 2016년에는 2015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가 2017년에는 소강상태로 나타났다. 청소년 가출경험율은 연도별 감소추이를 보이다가 2017년 일시적 소강상태를 보였으며, 청소년범죄의 비율도 감소추이를 보이다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지속적인 상승세로 나타난 반면,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을 2016년부터 소강상태로 나타났다. 하지만,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저연령화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일부영역에서는 여전히 위기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이 있다는 것을 뜻하며, 시대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위기상황들이 나타났으며, 앞으로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이 위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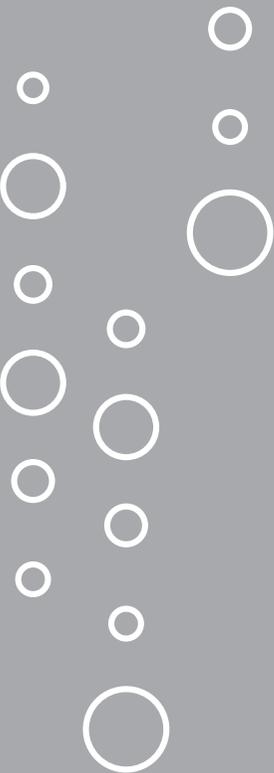
이에 충청남도 청소년의 특징과 문제유형 파악하고 그에 따른 충청남도 위기청소년 정책제안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2010년, 2015년 충청남도 위기 청소년 실태조사를 진행하였고, 결과에 따른 위기청소년 지원 방안도 모색하였다. 그러나 해마다 급변하는 청소년 환경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3년이 지난 지금, 현시점에서 새롭게 이슈화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 위기상황을 직면하고 청소년 문제에 대한 새로운 방향제시가 필요하며, 청소년 문제 변화에 대한 비교 분석을 위한 연구가 절실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위기결과의 저연령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충남도내 초등학교(5~6학년)를 포함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제작 배포한 '2016년 청소년 생활 실태조사' 설문지를 바탕으로 위기결과 문항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하여, 충청남도 청소년 위기 현 상황을 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충청남도 청소년에 대한 개입에 있어 실질적인 정책방향 제시와 위기 청소년에 맞는 상담 및 지원사업 개발에 활용 될 수 있는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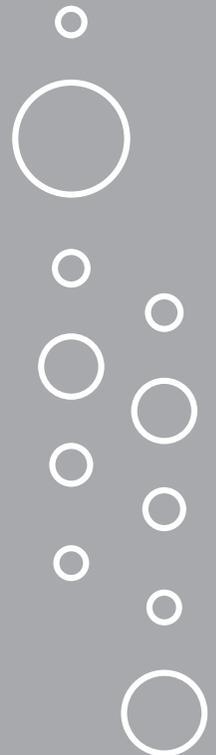
본 연구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충청남도 청소년의 위기현황을 파악한 후, 그에 따른 청소년 문제 예방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 둘째, 위기상황에 노출된 청소년 특징 파악으로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개입 방안을 마련한다.
- 셋째, 도 단위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도내 시·군 지역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한다.



2018년 충청남도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Ⅱ. 이론적 배경



Ⅱ. 이론적 배경

1. 위기청소년의 개념

위기라는 용어는 원래 그리스어의 'Krisis'에서 나온 것으로 결정 혹은 전환점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며, 한자로 危機(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France, 1990, 김기태, 2006 재인용). 위기청소년(Youth at risk)라는 말은 1983년 미국에서 처음 사용하였고, 학업을 중도에 중단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사용하게 되었다.(구진아, 권혜수, 2007) 또한 OECD(1995)는 위기청소년(Youth at risk)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직업이나 성인으로서의 삶을 성취해 내지 못할 것 같은 사람, 그 결과 사회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할 것 같은 청소년'이라고 정의하였으며, 학교 부적응, 학업중단, 폭력, 성, 약물, 가출 등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 집단으로 성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사회 기여가 불가능할 것 같은 위기에 처해 있는 청소년 집단을 위기청소년이라고 하였다.(윤철경, 조홍식, 김향초, 이규미, 우정자, 2006)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제8조)에는 특별지원이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첫째, 법 제 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둘째,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셋째,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구본용(2005)의 연구에서는 위기청소년을 일련의 개인·환경적 위험에 노출되어 행동·심리적으로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적절한 개입 없이는 정상적인 발달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소년으로 정의하였다. 즉, 가출, 학업중단 및 실업, 폭력·성매매·약물 오남용 등의 비행 및 범죄, 불안·우울 등 심리적 장애, 자살의 위험이 높은 청소년들을 위기청소년으로 보았다. 김은경(2006)은 현재는 파괴적 행동을 보이지는 않지만 가정과 학교로 부터 적절한 보호와 돌봄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함으로 인해 가출, 학업이나 훈련의 중단, 신체장애, 폭력이나 성매매 등의 비행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이라고 하였다. 또한 윤철경(2006)은 위기청소년이란 구체적인 위기행동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환경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로 본다. 즉, 개인적으로 성격이나 기질 면에서 어려움을 보이고, 가정에서 언어적·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포함한 가정폭력의 가능성이 크며, 부모로부터 효과적이지 못한 감독과 훈련 기술을 제공받고, 학교 무단결석과 기타 학교문제로 인한 실패, 그리고 낮은 사회경제적 위치, 빈곤상태에서의 삶을 사는 청소년들로 정의 내렸다.

황순길(2015)은 위기청소년을 개인적·가족적·교육적·사회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거나 그러한 위기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으로서 적절한 개입 없이는 정상적인 발달은 물론 학교생활이나 직업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어려운 청소년이라고 정의 내렸으며, 이러한 위기청소년은 가출, 비행 및 범죄, 학교부적응과 학업중단, 인터넷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 폭력, 약물, 성매매 및 성폭력, 자살, 직업훈련기관이나 직장부적응 등의 행동을 나타낼 위험이 높다고 하였다.

이처럼 위기청소년의 개념은 다양한 정의로 사용되고 있어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초·중·고등학교 및 대안학교 소속된 청소년을 일반학생으로, 검정고시학원, 직업학교, 직업훈련기관, 소년원학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 소속되거나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않은 청소년을 취약·위기청소년으로 구분하였다.

2. 위기청소년의 특징

가. 위험요인

청소년들은 발달적, 상황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개인적·환경적 위험요인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이르고 급기야 문제행동이나 부정적 위기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위기 청소년은 한 가지 문제보다는 몇 가지의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위험요인은 개인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발달상의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평균적으로 높은 특성이나 변인을 말하는 것으로(Pollard et al., 1999; 유영준, 오윤수, 2013 재인용) 위험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위기결과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선행연구들은 청소년들이 위기에 이르는 요인을 위험요인(risk factor)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위기청소년이 처해있는 위기상황이 여러 문제들의 조합 결과로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위기 청소년들이 나타내는 문제들이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구본용 외, 2005), Horowitz(1987)도 인간의 타고난 특성이 환경적 질과 독특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한다는 발달모델을 주장하면서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 또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Bronfenbrenner(1979) 역시 인간의 발달에 미치는 환경의 영향을 강조하였으며, 생태학적 이론을 통해 개인적 요인, 가정환경, 학교환경, 지역사회 환경 등 다양한 환경요인이 상호 역동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청소년기의 발달에 개인적, 심리적 특성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그들의 발달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Garmezy(1990)는 위험요인이란 일반청소년 집단과 비교하여 청소년들이 정서적, 행동적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요인이라고 정의하였으며, 개인요인, 가

족요인, 또래요인, 학교요인, 사회(지역)요인으로 구분하였고, 국내외 연구자들도 위험요인을 개인요인, 가족요인, 또래와 학교요인, 지역사회요인 등으로 분류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강근모, 이준기, 2015; 김보영, 이정숙, 2009; 오승환, 2010; Garmezzy:1990) 이에 본 연구에서도 개인요인, 가족요인, 또래요인, 학교요인, 지역사회요인으로 위험요인을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 수준의 위험요인 중 우울과 공격적 행동, 충동성, 낮은 자존감 등이 광범위하게 거론 된다.(강혜원, 김영희, 2011; 이혜경, 2002; 광금주, 문은영, 1993; 진혜민, 2011) 우울은 청소년 비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민원홍, 2013; 이혜순, 옥지원, 2012; 이석형 2007), 자살이나(김보영, 이정숙, 2009)가출의 위험요인으로도 작용한다.(강준모, 이준기, 2015) 공격성이나 충동성 역시 대표적인 위험요인으로(진혜민 등, 2011)공격성을 적절하게 발산하지 못하면 위기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으로 가족요인을 들 수 있다. Johnson(1997)은 위기청소년의 가족위험요인으로 부모나 형제의 약물남용, 부모의 지도감독 부족, 부모의 교육적 지지와 개입의 결여, 부모가 연루된 범죄행동, 학교중퇴한 형제, 이주가정, 가정폭력을 들었으며, Wilinon(1974)은 청소년 문제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위험요인으로 가정환경을 들었고, 특히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결손 등의 구조적인 측면과 부모-자녀간의 심리적 거리, 양육태도 등 기능적 측면을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셋째, 또래는 청소년 시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또래로부터 거부당하고 따돌림 당한 경우 학업중단을 하거나 (김옥엽 등, 2004), 범죄행동이나 폭력과 같은 행동을 보일 수 있다(한종철, 김인경, 2000) 집단 괴롭힘으로 인해 또래들로부터 소외되면서 학업성적이 떨어지고 우울, 불안, 심지어 자살과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한다(이해경, 김혜원, 2001). 또한 청소년들은 주변의 친한 또래가 비행을 할 경우 비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동원, 2003).

넷째,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인 관계로 학교생활에 대한 태도와 교사와의 관계도 청소년의 부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학교생활에 충실하지 못한 학생일수록 비행과 폭력 행동에 더 많이 관련되었다고 하였으며(Jang, 1991), 교사의 관심과 지지의 부족은 학교애착과 학교몰입을 방해하여 청소년 학업과 학교에 대한 무관심을 유발하고, 수업시간이나 과제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어 학업성취의 하락을 가져오게 된다. (정익중, 2009) 그리고 학교폭력 및 학교생활 스트레스는 자살의 위험을 높인다고 하였다. (김보영, 이정숙, 2009)

다섯째, 지역사회는 청소년을 둘러싼 외부환경으로 지역사회가 물리적 측면에서 낙후되거나 범죄 등 주변 환경이 위험행동 가능한 유해환경일 경우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이 많이 발생한다. (강석영 등, 2009; 김순규, 2008) 또한, 지역사회에서의 소외나 낮은 사회적 유대감도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5가지 영역으로 위험요인을 개인, 가정, 또래, 지역사회의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나. 위기수준

청소년의 위기 수준은 내용에 따라, 학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상생활 수준의 일반군에서 부터 고위험 수준까지 분류하고 있으며 고위험으로 갈수록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위기 청소년에 대한 위기수준을 분류한 선행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urt 등(1992)은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알콜과 같은 약물사용, 범죄 행동 등 고위험 수준의 경험을 하는 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방법과 서비스 증가를 목적으로 위기에 대한 개념적 틀을 4가지 위기 수준으로 나누었다. 위기전조, 위기표식, 문제행동, 위기결과로 분류하였으며, 각 위기수준은 일련의 과정으로 각 단계마다 위기를 극복하면 정상발달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위기 전조(risk antecedents) : 이는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어서 미래의 문제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환경적 세력들(environment forces)을 뜻한다. (빈곤,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이웃환경 등)
- 위기 표식(risk markers) : 청소년이 처해 있는 상황적·맥락적 요인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한다. (가정불화 심한 가정환경, 가정폭력 및 학대, 부모의 이혼, 친구들과과의 불화 등)
- 문제행동(risk behaviors) : 이는 위기 전조 및 위기 표식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나타내 보이기 쉬운 부정적 행동으로, 자신이나 타인의 심리적·신체적 안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다.(성매매, 흡연 및 음주, 자살충동 및 시도, 비행친구들과의 어울림, 빈번한 무단결석, 폭력 및 권위적 인물과의 갈등 등)
- 위기 결과(risk outcomes) : 청소년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로 대표되는 사회 안전망에서 이탈하여 성장에 명백히 부정적 결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이다. (가출, 범죄, 학업중단, 정신적 장애 및 자살 등)

영국의 Connexions(2001)사업은 13세~19세 청소년들에게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청소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 민간, 비영리기관과 협력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의 위기수준을 낮은 단계, 중간 단계, 높은 단계로 구분하였다. (윤철경, 2005)

- 낮은 단계 : 청소년들은 별 문제가 없으며 학업성적도 우수한 집단이 해당된다. (학업과 진로상담 정도 필요한 수준)
- 중간 단계 : 위기상황은 아니지만 앞으로 복합적인 위기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는 집단이다.(교육과 훈련으로 위기 극복이 필요)
- 높은 단계 : 이 단계의 청소년들은 이미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집단이다.(전문가의 집중적인 지도 필요)

국내의 위기수준 및 유형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지승희 등(2006)은 청소년의 위기수준을 4단계로 분류하고, 이를 위험성, 문제행동 영역, 환경적 영역, 정신건강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 1수준(고위험군) : 자신과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파괴적인 위기상황이 나타나는 경우(자살시도, 집단폭행, 반 전체의 왕따, 성매매, 은둔형 외톨이, 게임중독의 문제행동과 부모의 학대, 유기, 경제적으로 빈곤한 가정환경 영역, 병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정신건강 문제를 안고 있음)
- 2수준(위험군) : 파괴적이지는 않지만 위기상황이 나타나는 경우(자살에 대한 잦은 생각, 친구들의 왕따, 도박, 가출경험, 무단결석 등의 문제행동과 부모와의 갈등이나 의사소통 결여 등의 가정적 환경영역, 심리적 문제를 스스로 통제 못하는 상태)
- 3수준(잠재적위험군) : 위기상황이 나타날 잠재적 조건을 갖춘 경우(흡연 및 음주 등의 문제행동과 비행친구들과의 어울림, 교사와의 갈등, 유해환경 노출 등의 환경적 영역, 심리적 취약한 상태)
- 4수준(정상군) : 문제 및 잠재적 조건을 보이지 않는 경우

배주미 등(2010)은 전국 청소년 위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앵고프 방식(modified Angoff)을 통해 위기요소를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일반군으로 분류하고 위기결과 항목 해당여부에 따라 총 6단계 위기수준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1. 위기요소와 위기결과에 따른 6수준 분류

위기요소	위기수준	설 명
고위험군	1수준	고위험군에 속하면서 위기결과 항목에 1문항 이상 응답한 청소년군
	4수준	고위험군에 속하나 위기결과 항목에는 해당되지 않는 청소년군
잠재적 위험군	2수준	잠재적 위험군에 속하면서 위기결과 항목에 1문항 이상 응답한 청소년군
	5수준	잠재적 위험군에 속하나 위기결과 항목에는 해당되지 않는 청소년군
일반군	3수준	일반군에 속하나 위기결과 항목에 1문항 이상 응답한 청소년군
	6수준	일반군에 속하면서 위기결과 항목에는 해당되지 않는 청소년군

본 연구에서는 배주미(2010)처럼 위기요소를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일반군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다. 보호요인

보호요인은 부정적 결과가 예측되는 위기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정상발달을 이끄는 요인으로서,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독립변인인 동시에 위험요인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완충하는 조절변인으로서 부정적 결과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권재환, 이은희, 2006; 한상철, 2008). 보호요인 역시 개인, 가족, 또래 및 학교, 지역사회로 나뉘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개인 보호요인은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서, 심리적 요인과 유능감 등을 말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비행을 유발하는 충동과 불안 등의 상황에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된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스스로의 행동을 조절 및 통제할 수 있고 과제해결에 자신감이 높으며, 대인관계에서 유연성과 탄력성이 높아 위험요인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한상철, 2008). 이 외에도 적극적인 대처전략, 자기효능감 등이 청소년의 적응을 도와(유인선, 2011) 자살, 가출 등의 생각을 억제한다. (문동규, 김영희,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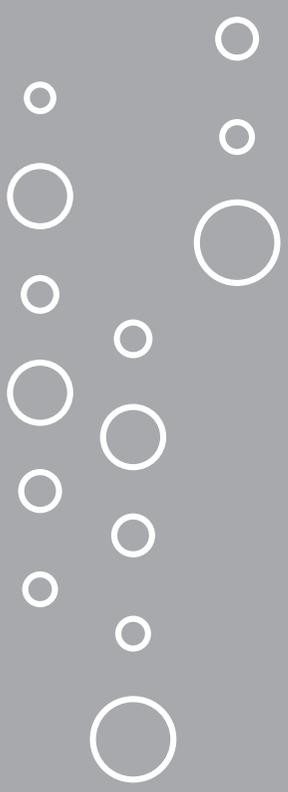
둘째, Slum(1998)은 성격, 가족, 환경 요인의 3가지 보호요인에 초점을 두어 위기 청소년을 설명하였는데, 이 중 가족요인으로 부모와의 유대감, 가족유대(cohesion), 가족구조, 형제 친밀감을 제시하였다. 또한 원만한 부모-자녀관계, 부모의 정서적지지, 양육태도 등을 주요 보호요인으로 보고하였으며 (구본용, 유제민, 2003), 부모와의 애착, 부모의 적절한 관리와 감독은 인터넷중독, 가출, 비행 등의 위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이준기 등, 2012; 황순길 등, 2015 재인용)

셋째, 청소년 시기는 또래와 가장 많은 상호작용을 하므로 청소년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이다. 이런 또래의 지지는 학업 스트레스, 교사나 또래집단과의 관계 등에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를 완화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강석영 등, 20019)

넷째, 학교는 청소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교사의 지지와 원만한 관계가 학교부적응이나 이탈행동에 보호역할을 한다.(배주미 등, 2010) 또한 인터넷 중독과 학업중단이라는 위기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돕는다.(이준기, 정경용, 김용수,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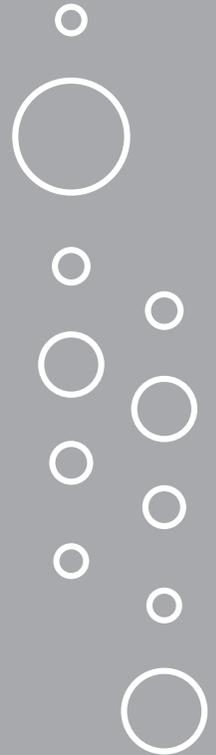
다섯째, 사회적지지 또한 보호요인을 작용한다.(유인선, 2011) 가정 내 많은 위험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관심과 지원을 해 준다면 청소년 문제는 극복될 수 있지만, 지역사회에서조차도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청소년 문제들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많다. (Moffitt, 1993)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5가지 영역으로 보호요인을 개인, 가정, 또래, 학교, 지역사회의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2018년 충청남도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Ⅲ. 연구개요



Ⅲ. 연구개요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8년 5월부터 7월 충청남도내 거주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진행되었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검증 작업을 거쳐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하였고 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유효 표본은 총 2,949부였고, 일반학생 2,805부, 취약·위기청소년 144부였다.

2. 연구방법

가.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충남 도, 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 및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 통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6)에서 개발한 문항들을 분석하고 문항 일부 수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충청도내 15개 지역 초등학생(5~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과 취약·위기 청소년 대상으로 충남 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협력하여 실태조사가 진행 되었다.

나. 표본설계 및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충남 도내 초등학교(5~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중인 일반학생과 해당 연령이지만 학업중단 등으로 재학 중이지 않은 취약·위기청소년으로 구분하였다. 표본추출은 비확률 표본추출방법 중 유의표집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일반학생은 지역별 청소년 인구를 고려하여 시·군별 표본을 배정하였고, 취약·위기청소년은 지역별 인구수와 상관없이 15개 시·군 학교 박청소년 10명씩 임의 배정하였다. 일반학생은 초등학생(5~6학년) 720명, 중학생 1,040명, 고등학생 1,040명으로 배정하였고, 취약·위기청소년은 200명으로 배정으로 총 3,000명으로 배정하였다.

설문지 3,000부 배부되어 설문을 실시하였으나, 회수된 자료는 자료 검증 작업을 거쳐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일반학생 2,805부와 취약·위기 청소년 144부, 총2,949부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 자료수집 방법 및 수행방식

본 연구의 자료수집 방법은, 충남 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실태조사 목적과 방식을 사전에 설명하고, 충남 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협조로 해당지역 초·중·고등학교를 선정하여 해당학교에 실무자가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설문을 진행하였고, 취약·위기청소년도 도내 학교 밖 지원센터 꿈드림 등도 같은 방법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수행방식은 충남 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와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연구조사 자문회의를 진행하였고, 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협력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연구절차

2018년 충청남도 청소년 위기실태 연구는 다음과 같이 6단계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다.

그림 1. 충청남도 청소년 위기실태 연구 절차

1 단계	연구 설계	⇨	▷ 주제 선정 ▷ 연구목적 및 방향성 논의
2 단계	자료수집 추진방향 설정	⇨	▷ 청소년 위기실태,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선행자료 수집 ▷ 충청남도, 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장 실무자 및 학계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회의(4월~10월)
3 단계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 (5월~9월)	⇨	▷ 설문지 제작 및 대상자 선정 (충남 15개 지역 청소년 3,000명) ▷ 설문지 배포 및 회수(5월~7월) ▷ 실태조사코딩 및 분석(8월~9월)
4 단계	연구결과발표 및 전문가 토론회	⇨	▷ 연구결과발표 ▷ 청소년희망포럼을 통한 전문가 토론회 (11월)
5 단계	충남도내 학계 전문가 최종자문	⇨	▷ 연구결과와 충청남도내 학계 전문가 최종자문
6 단계	연구보고서 발간	⇨	▷ 「2018년 충청남도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3. 연구도구

설문지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2015년에 개발한 위기 실태조사 설문문항을 수정·보완하여 2016년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배부한 설문지를 중심으로 충청남도 현장전문가,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연구조사 자문회의를 통해 문항을 검토하였으며, 이중 위기결과 문항은 표집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집집단별로 일부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가. 위험요인

위험요인 척도는 개인, 가정, 또래, 학교, 지역사회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울·불안, 공격성·충동성·부주의, 부모와의 갈등관계·방임, 부모 간 갈등, 문제가족원, 비행친구, 학교생활부적응, 지역사회 유해환경의 8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위험요인척도의 하위요인과 문항구성은 표1 과 같다.

표 1. 위험요인 문항

영역	하위요인	문항수
개인 위험요인	우울·불안	8문항
	공격성·충동성·부주의	8문항
가정 위험요인	부모와의 갈등 관계·방임	6문항
	부모 간 갈등	2문항
	문제 가족원	3문항
또래 위험요인	비행친구	4문항
학교 위험요인	학교생활부적응	4문항
지역사회 위험요인	지역사회 유해환경	3문항

청소년의 위기수준별 분할점수 산출을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2010) 전국을 기준으로 앵고프 방법(modified Angoff)¹⁾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의 위기수준을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일반군 3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고, 2016년에는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위험군에 대한 좀더 세밀한 연구를 위하여 고위험군, 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일반군으로 4가지 분류하

1) 앵고프(Angoff) 방법이란? 준거설정 작업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각 청소년들이 해당 문항을 맞힐 비율을 추정하여 해당검사의 최종 분할점수를 산출하는 준거설정 방법

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전국 청소년’이 아닌 2015년 충청남도 청소년 위기실태조사의 ‘충남 청소년’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2015년과 동일하게 고위험군(위험군 포함), 잠재적 위험군, 일반군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6)에서는 엥고프 방식에 의한 준거설정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적용결과 분할점수는 0~124점 중에서 고위험군 67점 이상, 위험군 57점~66점, 잠재적 위험군 34점~56점, 일반군은 33점 이하로 도출하였다. 즉, 57점 이상이면 고위험군&위험군으로 집단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에서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분할점수를 적용하여 57점 이상을 고위험군(위험군 포함)으로, 34~56점을 잠재적 위험군으로, 일반군을 33점 이하로 보고 위기수준을 분류하고자 한다. 그 결과, 일반학생의 경우 고위험군 63명(2.2%), 잠재적 위험군 382명(13.6%), 일반군 2,359명(84.1%)로 나타났으며, 취약·위기청소년의 경우 고위험군 16명(11.1%), 잠재적 위험군 (28.5%), 일반군 87명(60.4%)로 나타났다.

나. 보호요인

보호요인 척도는 청소년들이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위기결과로 표출되지 않는지, 무엇이 그런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 문항들이다. 보호요인 척도는 위험요인 척도와 동일하게 개인, 가정, 또래, 학교, 지역사회의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기존중감·목표의식·적극적 대처, 가족의 관심 및 신뢰, 친구관계, 교사의 관심 및 관계, 지역사회 지지체계 및 지원프로그램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보호요인의 하위요인과 문항구성은 표 2와 같다.

표2. 보호요인 문항

영역	하위요인	문항수
개인 보호요인	자기존중감·목표의식·적극적 대처	5문항
가정 보호요인	가족의 관심 및 신뢰	3문항
또래 보호요인	친구관계	2문항
학교 보호요인	교사의 관심 및 관계	2문항
지역사회 보호요인	지지체계 및 지원프로그램	3문항

다. 위기결과

위기결과 척도는 청소년들이 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실제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약물, 도박, 학교폭력, 비행 및 범죄, 학대, 자살, 성문제, 가출, 학업중단 및 학교부적응, 직장 및 직업훈련기관 부적응의 11개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은 대상에 따라 위기결과 문항을 다르게 구성되었다. 초등학생의 경우 직장 및 직업훈련기관 부적응 영역이 제외되었고, 초등학생을 제외한 일반학생 및 취약·위기청소년은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하위요인과 문항구성의 내용은 표3과 같다.

표3 . 위기결과 문항

영역	하위요인	문항수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취약·위기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5문항	5문항
약물	술	1문항	1문항
	담배	1문항	1문항
	약물	1문항	1문항
도박	도박	1문항	1문항
학교폭력	학교폭력-피해	5문항	5문항
	학교폭력-가해	5문항	5문항
비행	갈취	1문항	1문항
	절도	1문항	1문항
	사법적 문제	1문항	1문항
학대	신체적 학대	1문항	1문항
	정서적 학대	2문항	2문항
	방임	2문항	2문항
자살	자살사고	1문항	1문항
	자살계획	1문항	1문항
	자살시도	1문항	1문항
성문제	성매매		3문항
	성폭력-피해	1문항	2문항
	성폭력-가해	1문항	1문항
	원치 않는 임신		1문항
가출	가출상태	1문항	1문항
	가출팸	1문항	1문항
	가출횟수	1문항	1문항
	가출기간	1문항	1문항
학업중단	무단결석	1문항	1문항
	학업중단속려제상당경험	1문항	1문항
	학업중단경험		1문항
	학업중단기간		2문항
직장생활부적응	직장생활경험여부		2문항
	구직활동 어려움		1문항
	부당한 임금		1문항
	부적응		3문항
	직장생활 폭력-피해		2문항
	직장생활 폭력-가해		1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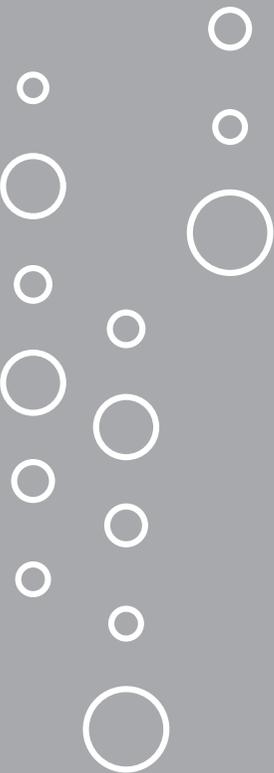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회수된 자료 중 자료검증 작업을 거쳐 최종 일반학생 2,805명과 취약·위기청소년 144명, 총 2,9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의 일반현황, 위기수준 및 위기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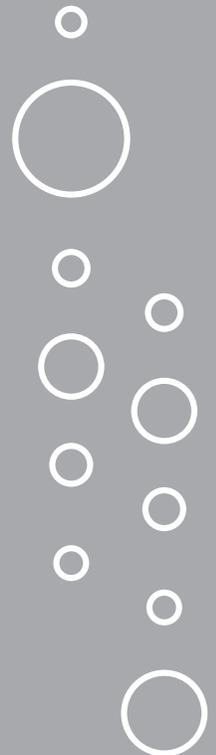
둘째, 위기수준(일반군, 잠재적위험군, 고위험군) 및 위기 영역별 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조사대상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평균 점수와 표준편차를 구하고 집단 간(t-검증 및 F 검증)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2018년 충청남도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IV. 연구결과



IV. 연구결과

1. 일반현황

가. 시군별

총 조사대상자는 천안(28.9%), 공주(6.6%), 보령(4.4%), 아산(10.9%), 서산(7.9%), 논산(5.2%), 계룡(2.8%), 당진(7%), 금산(3.1%), 부여(3.8%), 서천(3.8%), 청양(5.8%), 홍성(3.6%), 예산(2.8%), 태안(3.4%) 나타났다.

표 4. 시군별 분포

(단위 : 명)

지역	일반청소년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천안시	814 (29.0%)	38 (26.4%)	852 (28.9%)
공주시	187 (6.7%)	7 (4.9%)	194 (6.6%)
보령시	120 (4.3%)	9 (6.3%)	129 (4.4%)
아산시	306 (10.9%)	15 (10.4%)	321 (10.9%)
서산시	222 (7.9%)	12 (8.3%)	234 (7.9%)
논산시	114 (5.1%)	10 (6.9%)	154 (5.2%)
계룡시	79 (2.8%)	3 (2.1%)	82 (2.8%)
당진시	196 (7.0%)	10 (6.9%)	206 (7.0%)
금산군	85 (3.0%)	6 (4.2%)	91 (3.1%)
부여군	110 (3.9%)	2 (1.4%)	112 (3.8%)
서천군	101 (3.6%)	10 (6.9%)	111 (3.8%)
청양군	163 (5.8%)	7 (4.9%)	170 (5.8%)
홍성군	101 (3.6%)	6 (4.2%)	107 (3.6%)
예산군	83 (3.0%)	1 (0.7%)	84 (2.8%)
태안군	93 (3.4%)	8 (5.5%)	101 (3.4%)
합계	2,804 (100.0%)	144 (100.0%)	2,948 (100.0%)

나. 성별

총 조사대상 중 남성은 43.3%였으며, 여성은 56.7%였다.

표 5. 성별 분포

				(단위 : 명)
성별	일반학생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χ^2
남성	1,207 (43.1%)	68 (47.2%)	1,275 (43.3%)	.966
여성	1,596 (56.9%)	76 (52.8%)	1,672 (56.7%)	
합계	2,803 (100.0%)	144 (100.0%)	2,947 (100.0%)	

* $p < 0.05$, ** $p < 0.01$, *** $p < 0.001$

다. 소속기관별

총 조사대상 중 초등학교 24.1%, 중학교 34.3%, 고등학교 36.5%,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9% 소속되어 있었으며, 어느 곳에도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0.4%로 나타났다.

표 6. 소속기관 분포

				(단위 : 명)
소속기관	일반학생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초등학교	712 (25.4%)	0 (0.0%)	712 (24.1%)	
중학교	1,012 (36.1%)	0 (0.0%)	1,012 (34.3%)	
인문계 고등학교	836 (29.8%)	0 (0.0%)	836 (28.3%)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241 (8.6%)	0 (0.0%)	241 (8.2%)	
대안학교	4 (0.1%)	0 (0.0%)	4 (0.1%)	
검정고시 학원	0 (0.0%)	9 (6.3%)	9 (0.3%)	
직업학교	0 (0.0%)	5 (3.5%)	5 (0.2%)	
직업훈련기관	0 (0.0%)	1 (0.7%)	1 (0.0%)	
소년원 학교	0 (0.0%)	0 (0.0%)	0 (0.0%)	
학교나 검정고시학원에 다니지 않음	0 (0.0%)	13 (9.0%)	13 (0.4%)	
꿈드림센터	0 (0.0%)	116 (80.6%)	116 (3.9%)	
합계	2,805 (100.0%)	144 (100.0%)	2,949 (100.0%)	

라. 거주형태별

조사대상 청소년에게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중복응답 가능하도록 물어본 결과, 일반학생과 취약·위기청소년 각각 친아버지 86.3%, 66.0%, 친어머니 90.1%, 77.1%, 형제자매 79.4%, 54.9%였으며, 조부모의 경우 14.6%, 9.7%로 나타났다.

표 7 . 거주형태 분포

(단위 : 명)			
거주형태	일반학생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친아버지	2,422 (86.3%)	95 (66.0%)	2,517
친어머니	2,528 (90.1%)	111 (77.1%)	2,639
새아버지	40 (1.4%)	3 (2.1%)	43
새어머니	38 (1.4%)	1 (0.7%)	39
할머니나 할아버지	409 (14.6%)	14 (9.7%)	423
친척	41 (1.5%)	2 (1.4%)	43
형제자매	2,228 (79.4%)	79 (54.9%)	2,307
친구 또는 선후배	15 (0.5%)	0 (0.0%)	15
청소년보호자(쉼터, 그룹홈, 일시보호시설, 소년원 등)	11 (0.4%)	2 (1.4%)	13
혼자살고 있음	6 (0.2%)	7 (4.9%)	13
합계	2,805	144	2,949

*다중응답 가능 문항

마. 부모출신국별

조사 대상자 중 두 분 모두 한국인은 97.1%였으며, 부모 중 한분이라도 외국인인 경우는 전체의 2.3%였다.

표 8. 부모출신국 분포

부모출신국	(단위 : 명)		
	일반학생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두 분 모두 한국인	2,727 (97.3%)	136 (94.4%)	2,863 (97.1%)
두 분 모두 외국인	0 (0.0%)	0 (0.0%)	0 (0.0%)
한 분만 외국인	52 (1.9%)	5 (3.5%)	57 (1.9%)
두 분 모두 북한이탈주민	0 (0.0%)	0 (0.0%)	0 (0.0%)
한 분만 북한이탈주민	1 (0.0%)	0 (0.0%)	1 (0.0%)
두 분 모두 중국교포	1 (0.0%)	1 (0.7%)	2 (0.1%)
한 분만 중국교포	7 (0.2%)	1 (0.7%)	8 (0.3%)
모르겠음	17 (0.6%)	1 (0.7%)	18 (0.6%)
합계	2,805 (100.0%)	144 (100.0%)	2,949 (100.0%)

바. 가정경제수준별

조사대상 중 가정경제 형편에 대하여 '어렵다' 또는 '매우 어렵다'는 경우는 6.3%(184명)에 해당하였다. 취약·위기청소년의 경우는 전체 144명 중 20.9%가 '어렵다' 또는 '매우 어렵다'고 한 반면, 일반학생은 5.5%만이 '어렵다' 또는 '매우 어렵다'고 답하였다.

표 9. 가정경제수준 분포

(단위 : 명)

가정경제수준	일반학생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매우 어려운 편	10 (0.4%)	4 (2.8%)	14 (0.5%)
어려운 편	144 (5.1%)	26 (18.1%)	170 (5.8%)
보통	1,895 (67.6%)	99 (68.7%)	1,994 (67.7%)
잘 사는 편	656 (23.4%)	14 (9.7%)	670 (22.7%)
매우 잘 사는 편	97 (3.5%)	1 (0.7%)	98 (3.3%)
합계	2,802 (100.0%)	144 (100.0%)	2,946 (100.0%)

사. 청소년전화 1388인지 여부

청소년전화 1388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의 65.3%가 '예'라고 하였다. 취약·위기청소년의 경우는 77.1%가 '예'라고 응답하였고 일반학생의 경우 역시 '예'라고 응답한 비율이 64.6%로 나타났다.

표 10. 청소년전화 1388 인지 여부

(단위 : 명)

인지여부	일반학생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예	1,792 (64.6%)	111 (77.1%)	1,903 (65.3%)
아니오	980 (35.4%)	33 (22.9%)	1,013 (34.7%)
합계	2,772 (100.0%)	144 (100.0%)	2,916 (100.0%)

아. 청소년전화 1388 이용 여부

청소년전화 1388 이용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의 3%만이 '예'라고 하였다. 그러나 취약·위기 청소년의 경우 '예'라는 응답이 18%로 일반학생 2.2%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취약위기 청소년이 일반학생보다 이용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청소년전화 1388 이용 여부

(단위 : 명)

이용여부	일반학생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예	59 (2.2%)	24 (18.0%)	83 (3.0%)
아니오	2,598 (97.8%)	109 (82.0%)	2,707 (97.0%)
합계	2,657 (100.0%)	133 (100.0%)	2,790 (100.0%)

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인지 여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의 65.7%가 '예'라고 하였다. 취약·위기 청소년의 경우는 80.1%가 '예'라고 응답하였고 일반학생의 경우 65%가 '예'라고 하였다.

표 1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지 여부

(단위 : 명)

인지여부	일반학생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예	1,796 (65.0%)	113 (80.1%)	1,909 (65.7%)
아니오	969 (35.0%)	28 (19.9%)	997 (34.3%)
합계	2,765 (100.0%)	141 (100.0%)	2,906 (100.0%)

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 여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의 6.8%만이 '예'라고 하였다. 그러나 취약·위기청소년의 경우 '예'라는 응답이 45.1%로 일반학생 4.8%에 비해 높았다.

표 1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 여부

(단위 : 명)

인지여부	일반학생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예	128 (4.8%)	60 (45.1%)	188 (6.8%)
아니오	2,519 (95.2%)	73 (54.9%)	2,592 (93.2%)
합계	2,647 (100.0%)	133 (100.0%)	2,780 (100.0%)

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인지 여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중 50.9%가 '예'라고 하였다. 일반학생 48.4%, 취약·위기청소년 88.7%가 인지하고 있었다.

표 14.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인지 여부

(단위 : 명)

인지여부	일반학생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예	1,001 (48.4%)	125 (88.7%)	1,126 (50.9%)
아니오	1,069 (51.6%)	16 (11.3%)	1,085 (49.1%)
합계	2,070 (100.0%)	141 (100.0%)	2,211 (100.0%)

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이용 여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이용 여부에 대해서는 일반학생은 3.2% 이용하였으며, 취약·위기청소년은 75.7%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이용 여부

(단위 : 명)

이용여부	일반학생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예	64 (3.2%)	103 (75.7%)	167 (7.9%)
아니오	1,906 (96.8%)	33 (24.3%)	1,939 (92.1%)
합계	1,970 (100.0%)	136 (100.0%)	2,106 (100.0%)

2. 위기수준

가. 위험요인

조사대상의 위험요인 평균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위험요인 세부영역 점수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학생과 취약·위기청소년 간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취약·위기청소년이 일반학생에 비해 위험요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요인 중 우울·불안의 평균이 1.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6. 위험요인 차이

구분	대상	N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개인요인	우울·불안	일반학생	2,804	0.83	0.81	.000***
		취약·위기청소년	144	1.32	1.03	
	공격·충동·부주의	일반학생	2,804	0.77	0.64	.001**
		취약·위기청소년	144	1.01	0.85	
가정요인	폭력부모·방임	일반학생	2,804	0.29	0.46	.000***
		취약·위기청소년	144	0.80	0.70	
	부모간갈등	일반학생	2,804	0.45	0.70	.000***
		취약·위기청소년	143	0.79	0.81	
	문제가족원	일반학생	2,800	0.03	0.12	.000***
		취약·위기청소년	144	0.10	0.22	
또래요인	비행친구	일반학생	2,800	0.07	0.18	.000***
		취약·위기청소년	144	0.20	0.29	
학교요인	학교부적응	일반학생	2,804	0.56	0.66	.000***
		취약·위기청소년	141	1.13	0.93	
지역요인	지역유해환경	일반학생	2,804	0.52	0.70	.000***
		취약·위기청소년	144	0.83	0.82	

* $p < 0.05$, ** $p < 0.01$, *** $p < 0.001$

0 : 전혀 그렇지 않다 ~ 4 : 매우 그렇다

나. 위기수준

위험요인에 대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0)에서는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일반군 3개 위기수준으로 구분하였으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6)에서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 조사 결과 위기수준에 대한 기준점수를 도출하여 다음의 표와 같은 3수준을 구분하는 분할 기준점수를 일반학생과 취약·위기청소년에 대하여 각각 구한 결과, 일반학생의 경우 고위험군 2.24%, 잠재적 위험군 14.93%, 일반군 82.83%, 취약·위기청소년의 경우 고위험군 13.1%, 잠재적 위험군 29.51%, 일반군 57.39%였다.

표 17. 청소년 위기 수준 분할 기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6)

구분	일반학생	취약·위기청소년
고위험군	2.24%	13.1%
잠재적 위험군	14.93%	29.51%
일반군	82.83%	57.39%
합계	100.0%	100.0%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위험수준을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일반군으로 분류하였으며 조사대상의 배경변인별 위기수준 분포는 다음부터 제시 된다.

1) 시군별

가) 일반학생

일반학생의 시군별 위기 수준 분포를 위기수준 분포를 살펴보면, 고위험군은 보령시 6.7%, 공주시 3.7%, 논산시 2.8% 순으로 나타났고, 잠재적 위험군은 예산군 18.1%, 당진시 17.9%, 천안시 16.1%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군은 서천군 97.0%, 청양군 92.0%, 계룡시 88.6%순으로 나타났다.

표 18. 일반학생 시군별 위기수준

(단위 : 명)

시군	위기에요소 수준			전체
	고위험군	잠재적위험군	일반군	
천안시	20 (2.5%)	131 (16.1%)	663 (81.4%)	814 (100.0%)
공주시	7 (3.7%)	29 (15.5%)	151 (80.7%)	187 (100.0%)
보령시	8 (6.7%)	15 (12.5%)	97 (80.8%)	120 (100.0%)
아산시	7 (2.3%)	41 (13.4%)	258 (84.3%)	306 (100.0%)
서산시	5 (2.3%)	29 (13.1%)	188 (84.7%)	222 (100.0%)
논산시	4 (2.8%)	19 (13.2%)	121 (84.0%)	144 (100.0%)
계룡시	1 (1.3%)	8 (10.1%)	70 (88.6%)	79 (100.0%)
당진시	3 (1.5%)	35 (17.9%)	158 (80.6%)	196 (100.0%)
금산군	1 (1.2%)	9 (10.6%)	75 (88.2%)	85 (100.0%)
부여군	2 (1.8%)	12 (10.9%)	96 (87.3%)	110 (100.0%)
서천군	1 (1.0%)	2 (2.0%)	98 (97.0%)	101 (100.0%)
청양군	0 (0.0%)	13 (8.0%)	150 (92.0%)	163 (100.0%)
홍성군	1 (1.0%)	13 (12.9%)	87 (86.1%)	101 (100.0%)
예산군	2 (2.4%)	15 (18.1%)	66 (79.5%)	83 (100.0%)
태안군	1 (1.1%)	11 (11.8%)	81 (87.1%)	93 (100.0%)
합계	63 (2.3%)	382 (13.6%)	2,359 (84.1%)	2,804 (100.0%)

나) 취약·위기청소년

취약·위기청소년의 시군별 위기 수준 분포는 표 19와 같다.

표 19. 취약·위기청소년 시군별 위기수준

(단위 : 명)

시군	위기로소 수준			전체
	고위험군	잠재적위험군	일반군	
천안시	3 (7.9%)	10 (26.3%)	25 (65.8%)	38 (100.0%)
공주시	2 (28.6%)	3 (42.9%)	2 (28.6%)	7 (100.0%)
보령시	1 (11.1%)	2 (22.2%)	6 (66.7%)	9 (100.0%)
아산시	3 (20.0%)	4 (26.7%)	8 (53.3%)	15 (100.0%)
서산시	1 (8.3%)	7 (58.3%)	4 (33.3%)	12 (100.0%)
논산시	2 (20.0%)	2 (20.0%)	6 (60.0%)	10 (100.0%)
계룡시	1 (33.3%)	1 (33.3%)	1 (33.3%)	3 (100.0%)
당진시	1 (10.0%)	2 (20.0%)	7 (70.0%)	10 (100.0%)
금산군	0 (0.0%)	2 (33.3%)	4 (66.7%)	6 (100.0%)
부여군	0 (0.0%)	0 (0.0%)	2 (100.0%)	2 (100.0%)
서천군	1 (10.0%)	2 (20.0%)	7 (70.0%)	10 (100.0%)
청양군	0 (0.0%)	1 (14.3%)	6 (85.7%)	7 (100.0%)
홍성군	1 (16.7%)	3 (50.0%)	2 (33.3%)	6 (100.0%)
예산군	0 (0.0%)	0 (0.0%)	1 (100.0%)	1 (100.0%)
태안군	0 (0.0%)	2 (25.0%)	6 (75.0%)	8 (100.0%)
합계	16 (11.1%)	41 (28.5%)	87 (60.4%)	144 (100.0%)

2) 성별

가) 일반학생

일반학생의 성별 위기수준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은 고위험군 2.2%, 잠재적 위험군 11.6%, 일반군 86.2%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고위험군 2.3%, 잠재적 위험군 15.2%, 일반군 82.5%로 나타났다.

표 20. 일반학생 성별 위기수준

성별	위험요소 수준			전체	χ^2
	고위험군	잠재적위험군	일반군		
남성	26 (2.2%)	140 (11.6%)	1,041 (86.2%)	1,207 (100.0%)	7.623*
여성	37 (2.3%)	242 (15.2%)	1,317 (82.5%)	1,596 (100.0%)	
합계	63 (2.3%)	382 (13.6%)	2,358 (84.1%)	2,803 (100.0%)	

* $p < 0.05$, ** $p < 0.01$, *** $p < 0.001$

나) 취약·위기청소년

취약·위기청소년 성별 위기수준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은 고위험군 13.2%, 잠재적 위험군 25.0%, 여성은 고위험군 9.2%, 잠재적위험군 여성 31.6%로 나타났다.

표 21. 취약·위기청소년 성별 위기수준

성별	위험요소 수준			전체	χ^2
	고위험군	잠재적위험군	일반군		
남성	9 (13.2%)	17 (25.0%)	42 (61.8%)	68 (100.0%)	1.108
여성	7 (9.2%)	24 (31.6%)	45 (59.2%)	76 (100.0%)	
합계	16 (11.1%)	41 (28.5%)	87 (60.4%)	144 (100.0%)	

* $p < 0.05$, ** $p < 0.01$, *** $p < 0.001$

3) 소속기관별

가) 일반학생

일반학생의 소속기관별 위기수준은 표22와 같다.

표 22. 일반학생 소속기관별 위기수준

(단위 : 명)

소속기관	위기에요소 수준			전체
	고위험군	잠재적위험군	일반군	
초등학교	16 (2.2%)	106 (14.9%)	590 (82.9%)	712 (100.0%)
중학교	23 (2.3%)	151 (14.9%)	838 (82.8%)	1,012 (100.0%)
인문계 고등학교	19 (2.3%)	125 (14.9%)	692 (82.8%)	836 (100.0%)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5 (2.1%)	36 (14.9%)	200 (83.0%)	241 (100.0%)
대안학교	0 (0.0%)	1 (25.0%)	3 (75.0%)	4 (100.0%)
합계	63 (2.3%)	419 (14.9%)	2,323 (82.8%)	2,805 (100.0%)

나) 취약·위기청소년

취약·위기청소년 소속기관별 위기수준은 표 23과 같다.

표 23. 취약·위기청소년 소속기관별 위기수준

(단위 : 명)

소속기관	위기로소 수준			전체
	고위험군	잠재적위험군	일반군	
검정고시 학원	1 (11.1%)	3 (33.3%)	5 (55.6%)	9 (100.0%)
직업학교	1 (20.0%)	1 (20.0%)	3 (60.0%)	5 (100.0%)
직업훈련기관	0 (0.0%)	0 (0.0%)	1 (100.0%)	1 (100.0%)
학교나 검정고시학원에 다니지 않음	2 (15.4%)	4 (30.8%)	7 (53.8%)	13 (100.0%)
꿈드림센터	15 (12.9%)	34 (29.3%)	67 (57.8%)	116 (100.0%)
합계	19 (13.2%)	42 (29.2%)	83 (57.6%)	144 (100.0%)

4) 가정경제수준별

가) 일반학생

일반학생의 가정경제수준별 위기수준 분포는 표 24와 같다.

표 24. 일반학생 가정경제수준별 위기수준

(단위 : 명)

가정경제수준	위기에요소 수준			전체
	고위험군	잠재적위험군	일반군	
매우 어려운 편	0 (0.0%)	2 (20.0%)	8 (80.0%)	10 (100.0%)
어려운 편	3 (2.1%)	21 (14.6%)	120 (83.3%)	144 (100.0%)
보통	42 (2.2%)	283 (14.9%)	1,570 (82.9%)	1,895 (100.0%)
잘 사는 편	15 (2.3%)	98 (14.9%)	543 (82.8%)	656 (100.0%)
매우 잘 사는 편	3 (3.1%)	14 (14.4%)	80 (82.5%)	97 (100.0%)
합계	63 (2.3%)	418 (14.9%)	2,321 (82.8%)	2,802 (100.0%)

나) 취약·위기청소년

취약·위기청소년 가정경제수준별 위기수준 분포는 표 25와 같다.

표 25. 취약·위기청소년 가정경제수준별 위기수준

(단위 : 명)

가정경제수준	위기로소 수준			전체
	고위험군	잠재적위험군	일반군	
매우 어려운 편	1 (25.0%)	1 (25.0%)	2 (50.0%)	4 (100.0%)
어려운 편	3 (11.5%)	8 (30.8%)	15 (57.7%)	26 (100.0%)
보통	13 (13.1%)	29 (29.3%)	57 (57.6%)	99 (100.0%)
잘 사는 편	2 (14.3%)	4 (28.6%)	8 (57.1%)	14 (100.0%)
매우 잘 사는 편	0 (0.0%)	0 (0.0%)	1 (100.0%)	1 (100.0%)
합계	19 (13.2%)	42 (29.2%)	83 (57.6%)	144 (100.0%)

3. 위기결과

가. 일반학생과 취약·위기청소년의 위기결과

일반학생과 취약·위기 청소년의 위기결과 수준을 비교해 본 결과, ‘인터넷·스마트폰 중독’과 ‘성문제’를 제외한 그 외의 위기결과는 모두 일반학생과 취약·위기청소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역별로 살펴봤을 때 취약·위기청소년이 일반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일반학생과 취약·위기청소년의 위기결과

(단위: 명)

구분	대상	N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일반학생	2,802	1.11	0.93	.168
	취약·위기청소년	144	1.24	1.11	
약물	일반학생	2,804	0.77	0.64	.001**
	취약·위기청소년	144	1.01	0.85	
도박	일반학생	2,804	0.29	0.46	.000***
	취약·위기청소년	144	0.80	0.70	
학교폭력 피해	일반학생	2,804	0.45	0.70	.000***
	취약·위기청소년	143	0.79	0.81	
학교폭력 가해	일반학생	2,800	0.03	0.12	.000***
	취약·위기청소년	144	0.10	0.22	
비행	일반학생	2,800	0.07	0.18	.000***
	취약·위기청소년	144	0.20	0.29	
학대	일반학생	2,804	0.56	0.66	.000***
	취약·위기청소년	141	1.13	0.93	
자살	일반학생	2,804	0.52	0.70	.000***
	취약·위기청소년	144	0.83	0.82	
성문제	일반학생	2,090	0.02	0.16	.062
	취약·위기청소년	144	0.07	0.34	
학업중단	일반학생	2,090	0.09	0.47	.000***
	취약·위기청소년	142	0.49	1.13	
직장생활 부적응	일반학생	345	0.18	0.33	.004**
	취약·위기청소년	88	0.38	0.61	

* $p < 0.05$, ** $p < 0.01$, *** $p < 0.001$

0 : 전혀 그렇지 않다 ~ 4 : 매우 그렇다

나. 영역별 위기결과

1)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의 경우 위기결과 수준이 일상생활장애는 주 1~2회 이상, 과다사용과 금단 항목은 거의 매일 나타난 경우를 위기결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다. 과다사용과 일상생활장애 문제에서 취약·위기청소년과 일반학생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지만, 금단 문제에서는 취약·위기청소년과 일반학생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조사대상 중 인터넷·스마트폰 과다 사용하는 경우가 25.2%로 가장 많았으며, 금단 13.0%, 일상생활장애 8.0%로 나타났다.

표 27.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단위 : 명)
구분	해당여부	일반학생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χ^2
과다사용	해당없음	2,106 (75.4%)	92 (63.9%)	2,198 (74.8%)	9.589**
	해당있음	688 (24.6%)	52 (36.1%)	740 (25.2%)	
일상생활장애	해당없음	2,585 (92.3%)	125 (86.8%)	2,710 (92.0%)	5.520*
	해당있음	217 (7.7%)	19 (13.2%)	236 (8.0%)	
금단	해당없음	1,816 (86.9%)	128 (88.9%)	1,944 (87.0%)	0.495
	해당있음	275 (13.1%)	16 (11.1%)	291 (13.0%)	

* $p < 0.05$, ** $p < 0.01$, *** $p < 0.001$

2) 약물

약물사용 문제 위기결과를 살펴보면 술과 담배를 거의 매일하는 경우를, 가스나 마약은 주 1~2회 이상인 경우를 위기결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다. 술, 담배, 가스나 마약의 경우 취약·위기청소년과 일반학생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중 거의 매일 술을 마시는 청소년은 전체의 0.4%, 거의 매일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은 2.9%, 주 1~2회 이상 가스 등을 사용한 청소년은 0.4%로 나타났다. 일반학생과 취약·위기청소년 각각 음주경험 0.3%, 3.5%, 흡연 경험 2.1%, 17.4%로 취약·위기청소년이 높게 나타났다.

표 28. 약물 사용

					(단위 : 명)
구분	해당여부	일반학생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χ^2
술	해당없음	2,794 (99.7%)	139 (96.5%)	2,933 (99.6%)	31.659***
	해당있음	8 (0.3%)	5 (3.5%)	13 (0.4%)	
담배	해당없음	2,741 (97.9%)	119 (82.6%)	2,861 (97.1%)	113.225***
	해당있음	60 (2.1%)	25 (17.4%)	85 (2.9%)	
가스나 마약	해당없음	2,791 (99.7%)	142 (98.6%)	2,933 (99.6%)	4.192*
	해당있음	9 (0.3%)	2 (1.4%)	11 (0.4%)	

* $p < 0.05$, ** $p < 0.01$, *** $p < 0.001$

3) 도박

도박경험의 경우 위기결과를 살펴보면 온라인 게임(고스톱, 포커, 경마 등)을 주1~2회 이상인 경우를 위기결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다. 도박 문제의 경우 취약·위기청소년과 일반학생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9. 도박경험

					(단위 : 명)
구분	해당여부	일반학생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χ^2
도박	해당없음	2,779 (99.2%)	141 (97.9%)	2,920 (99.1%)	2.496
	해당있음	23 (0.8%)	3 (2.1%)	26 (0.9%)	

* $p < 0.05$, ** $p < 0.01$, *** $p < 0.001$

4) 학교폭력

학교폭력 위기결과 수준은 피해와 가해의 경우 신체적 폭력, 돈이나 물건 빼앗김, 사이버 폭력은 주1~2회 이상 이루어질 때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고, 언어폭력, 따돌림의 경우는 주1~2회 이상 이루어질 때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살펴본 결과 언어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에서 일반학생과 취약·위기청소년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중 학교폭력피해 경험 중 언어폭력 피해경험 1.3%, 신체폭력 0.6%, 따돌림 0.5%, 사이버폭력 0.3%, 돈이나 물건 빼앗김 0.2%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학교폭력 가해경험을 살펴본 결과 신체폭력, 언어폭력에서 일반학생과 취약·위기청소년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조사대상 중 학교폭력가해 경험 역시 언어폭력 1.1%로 가장 높았고, 신체폭력 0.4%, 따돌림 0.2%, 돈이나 물건 빼앗음 0.2%, 사이버 폭력 0.1% 순으로 나타났다.

표 30. 학교폭력 피해·가해

(단위 : 명)

구분	해당여부	일반학생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χ^2
신체폭력	해당없음	2,783 (99.4%)	143 (99.3%)	2,926 (99.4%)	0.128
	해당있음	17 (0.6%)	1 (0.7%)	18 (0.6%)	
언어폭력	해당없음	2,769 (98.9%)	138 (95.8%)	2,907 (98.7%)	10.564**
	해당있음	32 (1.1%)	6 (4.2%)	38 (1.3%)	
따돌림	해당없음	2,787 (99.6%)	140 (97.2%)	2,927 (99.5%)	25.242***
	해당있음	12 (0.4%)	4 (2.8%)	16 (0.5%)	
돈이나 물건 빼앗김	해당없음	2,793 (99.7%)	144 (100.0%)	2,937 (99.8%)	0.415
	해당있음	7 (0.3%)	0 (0.0%)	7 (0.2%)	
사이버폭력	해당없음	2,795 (99.8%)	140 (97.9%)	2,935 (99.7%)	24.016***
	해당있음	5 (0.2%)	3 (2.1%)	8 (0.3%)	
신체폭력	해당없음	2,790 (99.6%)	142 (98.6%)	2,932 (99.6%)	4.583*
	해당있음	10 (0.4%)	2 (1.4%)	12 (0.4%)	
언어폭력	해당없음	2,773 (99.0%)	140 (97.2%)	2,913 (98.9%)	4.617*
	해당있음	27 (1.1%)	4 (2.8%)	31 (1.1%)	
따돌림	해당없음	2,794 (99.8%)	142 (99.3%)	2,936 (99.8%)	1.545
	해당있음	6 (0.2%)	1 (0.7%)	7 (0.2%)	
돈이나 물건 빼앗음	해당없음	2,795 (99.8%)	144 (100.0%)	2,939 (99.8%)	0.276
	해당있음	5 (0.2%)	0 (0.0%)	5 (0.2%)	
사이버폭력	해당없음	2,798 (99.9%)	144 (100.0%)	2,942 (99.9%)	0.207
	해당있음	3 (0.1%)	0 (0.0%)	3 (0.1%)	

* $p < 0.05$, ** $p < 0.01$, *** $p < 0.001$

5) 비행

비행의 경우 갈취 영역에서는 월1~2회 이상인 경우를 위기결과로 보았다. 또한 절도영역은 2-3번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위기결과로 분류하였다. 조사대상 전체의 비행 경험을 살펴 본 결과 일반학생과 취약·위기청소년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1. 비행

					(단위 : 명)
구분	해당여부	일반학생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χ^2
갈취	해당없음	2,799 (99.9%)	144 (100.0%)	2,943 (99.9%)	0.069
	해당있음	2 (0.1%)	0 (0.0%)	2 (0.1%)	
절도	해당없음	2,797 (99.9%)	144 (100.0%)	2,941 (99.9%)	0.207
	해당있음	4 (0.1%)	0 (0.0%)	4 (0.1%)	

* $p < 0.05$, ** $p < 0.01$, *** $p < 0.001$

6) 학대·방임

학대·방임 위기결과 수준은 신체적 학대는 월1~2회 이상인 경우, 정서적 학대는 주1~2회 이상, 방임의 경우는 월1~2회 이상 이루어질 때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학대, 방임경험을 살펴본 결과 학대와 방임에서 일반학생과 취약·위기청소년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중 학대·방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신체적 학대 0.4%, 정서적 학대 0.9%, 방임 0.9%로 나타났다.

표 32. 학대·방임

					(단위 : 명)	
구분	해당여부	일반학생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χ^2	
학 대	신체적 학대	해당없음	2,790 (99.7%)	140 (98.6%)	2,930 (99.6%)	7.217**
		해당있음	9 (0.3%)	2 (1.4%)	11 (0.4%)	
	정서적 학대	해당없음	2,778 (99.2%)	139 (97.2%)	2,917 (99.1%)	7.581**
		해당있음	22 (0.8%)	4 (2.8%)	26 (0.9%)	
방 임	해당없음	2,797 (99.9%)	142 (99.3%)	2,939 (99.8%)	4.192*	
	해당있음	4 (0.1%)	2 (0.7%)	6 (0.2%)		

* $p < 0.05$, ** $p < 0.01$, *** $p < 0.001$

7) 자살

자살관련 위기결과 수준이 자살계획은 월 1~2회 이상, 자살시도는 1번 이상인 경우를 위기 결과를 분류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자살계획, 자살시도 경험을 살펴본 결과 일반학생과 취약·위기청소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조사대상 중 2.2%가 자살계획 세워봤고, 5.7%가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자살

					(단위 : 명)
구분	해당여부	일반학생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χ^2
자살계획	해당없음	2,749 (98.1%)	132 (91.7%)	2,881 (97.8%)	28.024***
	해당있음	52 (1.9%)	12 (8.3%)	64 (2.2%)	
자살시도	해당없음	2,651 (94.7%)	125 (87.4%)	2776 (94.3%)	12.243***
	해당있음	149 (5.3%)	18 (12.6%)	167 (5.7%)	

* $p < 0.05$, ** $p < 0.01$, *** $p < 0.001$

8) 성문제

성문제 관련 위기결과의 수준이 성매매, 성폭력 피해, 성폭력 시도, 그리고 원치 않는 임신출산문제 모두 1번 이상인 경우 위기결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다.

조사대상의 성문제 경험을 살펴본 결과 성매매, 성폭력 시도, 원치 않는 임신출산의 경우 일반학생과 취약·위기청소년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중 성문제 경험을 살펴본 결과 성폭력 피해경험이 1.2%로 가장 높았고, 성폭력 시도는 0.7%, 원치 않는 임신출산은 0.7%, 성매매 0.6%순으로 나타났다.

표 34. 성문제

					(단위 : 명)
구분	해당여부	일반학생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χ^2
성매매	해당없음	2,081 (99.5%)	140 (97.2%)	2,221 (99.4%)	11.445**
	해당있음	10 (0.5%)	4 (2.8%)	14 (0.6%)	
성폭력피해	해당없음	2,067 (98.9%)	141 (97.9%)	2,208 (98.8%)	1.131
	해당있음	23 (1.1%)	3 (2.1%)	26 (1.2%)	
성폭력시도	해당없음	2,079 (99.5%)	140 (97.2%)	2,219 (99.3%)	10.239**
	해당있음	11 (0.5%)	4 (2.8%)	15 (0.7%)	
원치않는 임신출산	해당없음	2,079 (99.5%)	139 (96.5%)	2,218 (99.3%)	18.093***
	해당있음	10 (0.5%)	5 (3.5%)	15 (0.7%)	

* $p < 0.05$, ** $p < 0.01$, *** $p < 0.001$

9) 가출

가출의 위기결과 수준은 가출경험과 가출 팸에서 생활해 본 경험, 현재 가출상태 모두 1회 이상 일 때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가출경험, 가출팸의 경우 취약·위기청소년과 일반학생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3.3%는 가출경험이 있으며, 이 중 0.4%는 가출팸에서 생활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출한 상태에 있는 청소년은 0.4%로 나타났다.

표 35. 가출

					(단위 : 명)
구분	해당여부	일반학생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χ^2
가출경험	해당없음	1,740 (97.4%)	124 (87.3%)	1,864 (96.7%)	41.815***
	해당있음	46 (2.6%)	18 (12.7%)	64 (3.3%)	
가출팸	해당없음	2,085 (99.7%)	141 (97.9%)	2,226 (99.6%)	10.840***
	해당있음	6 (0.3%)	3 (2.1%)	9 (0.4%)	
현재 가출상태	해당없음	2,084 (99.7%)	142 (98.6%)	2,226 (99.6%)	3.733
	해당있음	7 (0.3%)	2 (1.4%)	9 (0.4%)	

* $p < 0.05$, ** $p < 0.01$, *** $p < 0.001$

10) 학업중단

학업중단의 위기결과 수준은 현재 학업중단 한 상태인 경우를 위기결과로 보았다. 조사 대상 중 5.3%는 현재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학업중단

					(단위 : 명)
구분	해당여부	일반학생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χ^2
현재 학업중단 상태	해당없음	2,083 (99.6%)	33 (22.9%)	2,116 (94.7%)	1572.282***
	해당있음	8 (0.4%)	111 (77.1%)	119 (5.3%)	

* $p < 0.05$, ** $p < 0.01$, *** $p < 0.001$

다. 일반적 특성별 위기결과 분포

1)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가) 시군별

(1) 일반학생

시군별 일반학생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모든 지역에서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기결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70%이상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문제 중 과다사용은 예산군 31.3%, 당진시 31.1%, 부여군 29.1%, 일상생활장애는 예산군 13.3%, 논산시 10.4%, 공주시 9.1%, 금단은 당진시 19%, 홍성군 18%, 아산시 16%순으로 나타났다.

표 37. 시군별 일반학생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단위 : 명)

시군	과다사용			일상생활장애			금단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천안시	586 (72.2%)	226 (27.8%)	812 (100.0%)	745 (91.5%)	69 (8.5%)	814 (100.0%)	546 (85.0%)	99 (15.0%)	645 (100.0%)
공주시	134 (71.7%)	53 (28.3%)	187 (100.0%)	170 (90.9%)	17 (9.1%)	187 (100.0%)	134 (85.0%)	24 (15.0%)	158 (100.0%)
보령시	91 (75.8%)	29 (24.2%)	120 (100.0%)	115 (95.8%)	5 (4.2%)	120 (100.0%)	82 (92.0%)	7 (8.0%)	89 (100.0%)
아산시	237 (78.2%)	66 (21.8%)	303 (100.0%)	278 (91.1%)	27 (8.9%)	305 (100.0%)	184 (84.0%)	35 (16.0%)	219 (100.0%)
서산시	169 (76.8%)	51 (23.2%)	220 (100.0%)	203 (91.9%)	18 (8.1%)	221 (100.0%)	144 (91.0%)	15 (9.0%)	159 (100.0%)
논산시	116 (81.1%)	27 (18.9%)	143 (100.0%)	129 (89.6%)	15 (10.4%)	144 (100.0%)	104 (90.0%)	11 (10.0%)	115 (100.0%)
계룡시	70 (88.6%)	9 (11.4%)	79 (100.0%)	76 (96.2%)	3 (3.8%)	79 (100.0%)	57 (100.0%)	0 (0.0%)	57 (100.0%)
당진시	135 (68.9%)	61 (31.1%)	196 (100.0%)	181 (92.3%)	15 (7.7%)	196 (100.0%)	118 (81.0%)	27 (19.0%)	145 (100.0%)
금산군	61 (73.5%)	22 (26.5%)	83 (100.0%)	80 (94.1%)	5 (5.9%)	85 (100.0%)	52 (90.0%)	6 (10.0%)	58 (100.0%)
부여군	78 (70.9%)	32 (29.1%)	110 (100.0%)	102 (92.7%)	8 (7.3%)	110 (100.0%)	69 (91.0%)	7 (9.0%)	76 (100.0%)
서천군	85 (84.2%)	16 (15.8%)	101 (100.0%)	97 (96.0%)	4 (4.0%)	101 (100.0%)	65 (93.0%)	5 (7.0%)	70 (100.0%)
청양군	132 (81.0%)	31 (19.0%)	163 (100.0%)	155 (95.1%)	8 (4.9%)	163 (100.0%)	88 (90.0%)	10 (10.0%)	98 (100.0%)
홍성군	79 (79.0%)	21 (21.0%)	100 (100.0%)	91 (91.0%)	9 (9.0%)	100 (100.0%)	58 (82.0%)	13 (18.0%)	71 (100.0%)
예산군	57 (68.7%)	26 (31.3%)	83 (100.0%)	72 (86.7%)	11 (13.3%)	83 (100.0%)	57 (85.0%)	10 (15.0%)	67 (100.0%)
태안군	75 (80.6%)	18 (19.4%)	93 (100.0%)	90 (96.8%)	3 (3.2%)	93 (100.0%)	57 (90.0%)	6 (10.0%)	63 (100.0%)
합계	2,105 (75.4%)	688 (24.6%)	2,793 (100.0%)	2,584 (92.3%)	217 (7.7%)	2,801 (100.0%)	1,815 (87.0%)	275 (13.0%)	2,090 (100.0%)

(2) 취약·위기청소년

시군별 취약·위기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과다사용 문제의 경우 천안시, 보령시, 아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은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청소년이 높게 나타났고, 공주시, 홍성군의 경우는 과다사용문제에 해당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서산시, 당진시, 부여군은 각각 50%로 과다사용의 문제에 해당하는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비율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일상생활 장애 문제의 경우 홍성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청소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금단문제의 경우 부여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청소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부여군의 경우 각각 50%로 문제에 해당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의 비율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38. 시군별 취약·위기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단위 : 명)

시군	과다사용			일상생활장애			금단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천안시	27 (71.1%)	11 (28.9%)	38 (100.0%)	32 (84.2%)	6 (15.8%)	38 (100.0%)	34 (89.0%)	4 (11.0%)	38 (6.0%)
공주시	3 (42.9%)	4 (57.1%)	7 (100.0%)	6 (85.7%)	1 (14.3%)	7 (100.0%)	6 (86.0%)	1 (14.0%)	7 (100.0%)
보령시	8 (88.9%)	1 (11.1%)	9 (100.0%)	8 (88.9%)	1 (11.1%)	9 (100.0%)	8 (89.0%)	1 (11.0%)	9 (100.0%)
아산시	9 (60.0%)	6 (40.0%)	15 (100.0%)	12 (80.0%)	3 (20.0%)	15 (100.0%)	14 (93.0%)	1 (7.0%)	15 (100.0%)
서산시	6 (50.0%)	6 (50.0%)	12 (100.0%)	10 (83.3%)	2 (16.7%)	12 (100.0%)	7 (58.0%)	5 (42.0%)	12 (100.0%)
논산시	6 (60.0%)	4 (40.0%)	10 (100.0%)	9 (90.0%)	1 (10.0%)	10 (100.0%)	10 (100.0%)	0 (0.0%)	10 (100.0%)
계룡시	3 (100.0%)	0 (0.0%)	3 (100.0%)	3 (100.0%)	0 (0.0%)	3 (100.0%)	3 (100.0%)	0 (0.0%)	3 (100.0%)
당진시	5 (50.0%)	5 (50.0%)	10 (100.0%)	10 (100.0%)	0 (0.0%)	10 (100.0%)	8 (80.0%)	2 (20.0%)	10 (100.0%)
금산군	4 (66.7%)	2 (33.3%)	6 (100.0%)	6 (100.0%)	0 (0.0%)	6 (100.0%)	5 (83.0%)	1 (17.0%)	6 (100.0%)
부여군	1 (50.0%)	1 (50.0%)	2 (100.0%)	2 (100.0%)	0 (0.0%)	2 (100.0%)	1 (50.0%)	1 (50.0%)	2 (100.0%)
서천군	6 (60.0%)	4 (40.0%)	10 (100.0%)	10 (100.0%)	0 (0.0%)	10 (100.0%)	10 (100.0%)	0 (0.0%)	10 (100.0%)
청양군	5 (71.4%)	2 (28.6%)	7 (100.0%)	6 (85.7%)	1 (14.3%)	7 (100.0%)	7 (100.0%)	0 (0.0%)	7 (100.0%)
홍성군	2 (33.3%)	4 (66.7%)	6 (100.0%)	2 (33.3%)	4 (66.7%)	6 (100.0%)	6 (100.0%)	0 (0.0%)	6 (100.0%)
예산군	1 (100.0%)	0 (0.0%)	1 (100.0%)	1 (100.0%)	0 (0.0%)	1 (100.0%)	1 (100.0%)	0 (0.0%)	1 (100.0%)
태안군	6 (75.0%)	2 (25.0%)	8 (100.0%)	8 (100.0%)	0 (0.0%)	8 (100.0%)	8 (100.0%)	0 (0.0%)	8 (100.0%)
합계	92 (63.9%)	52 (36.1%)	144 (100.0%)	125 (86.8%)	19 (13.2%)	144 (100.0%)	128 (89.0%)	16 (11.0%)	144 (100.0%)

나) 성별

(1) 일반학생

성별 일반학생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기결과는, 과다사용은 남성 23.3%, 여성 25.7%, 일상생활장애는 남성 5.0%, 여성 9.8%로 나타났다. 금단 증상은 남성 7.8%, 여성 17.0%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9. 성별 일반학생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단위 : 명)

성별	과다사용			일상생활장애			금단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남성	922 (76.7%)	280 (23.3%)	1,202 (100%)	1,144 (95.0%)	61 (5.0%)	1,205 (100%)	795 (92.2%)	67 (7.8%)	862 (100%)
여성	1,182 (74.3%)	408 (25.7%)	1,590 (100%)	1,439 (90.2%)	156 (9.8%)	1,595 (100%)	1,020 (83.0%)	208 (17.0%)	1,228 (100%)

(2) 취약·위기청소년

성별 취약·위기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기결과는 성별에 따라 과다사용은 남성 26.5%, 여성 44.7%, 일상생활장애는 남성 8.8%, 여성 17.1%, 금단 증상은 남성 8.8%, 여성 13.2%로 나타났다.

표 40. 성별 취약·위기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단위 : 명)

성별	과다사용			일상생활장애			금단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남성	50 (73.5%)	18 (26.5%)	68 (100%)	62 (91.2%)	6 (8.8%)	68 (100%)	62 (91.2%)	6 (8.8%)	68 (100%)
여성	42 (55.3%)	34 (44.7%)	76 (100%)	63 (82.9%)	13 (17.1%)	76 (100%)	66 (86.8%)	10 (13.2%)	76 (100%)

다) 소속기관별

(1) 일반학생

소속기관별 일반학생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기결과, 초등학생은 과다사용 17.3%, 일상생활장애 3.2%, 금단은 해당하는 학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생은 과다사용 26.4%, 일상생활장애 7.5%, 금단 10.7%로 나타났다. 인문계고등학교는 과다사용 22.5%, 일상생활장애 12.0%, 금단 15.3%로 나타났고, 전문계(실업계)고등학교는 과다사용 36.2%, 일상생활장애 7.5%, 금단 15.8%로 나타났다.

표 41. 소속기관 일반학생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단위 : 명)

소속기관	과다사용			일상생활장애			금단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초등학교	585 (82.7%)	122 (17.3%)	707 (100%)	689 (96.8%)	23 (3.2%)	712 (100%)	1 (100%)	0 (0.0%)	1 (100%)
중학교	742 (73.6%)	266 (26.4%)	1,008 (100%)	934 (92.5%)	76 (7.5%)	1,010 (100%)	902 (89.3%)	108 (10.7%)	1,010 (100%)
인문계 고등학교	622 (74.5%)	213 (25.5%)	835 (100%)	735 (88.0%)	100 (12.0%)	835 (100%)	707 (84.7%)	128 (15.3%)	835 (100%)
전문계 (실업계) 고등학교	153 (63.8%)	87 (36.2%)	240 (100%)	223 (92.5%)	18 (7.5%)	241 (100%)	203 (84.2%)	38 (15.8%)	241 (100%)
대안학교	4 (100%)	0 (0.0%)	4 (100%)	4 (100%)	0 (0.0%)	4 (100%)	3 (75%)	1 (25%)	4 (100%)

(2) 취약·위기청소년

소속기관별 취약·위기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기결과 검정고시학원은 과다사용만 11.1%로 나타났고, 직업학교는 과다사용, 일상생활장애, 금단 각각 20.0%로 나타났다. 학교나 검정고시 학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과다사용 15.4%, 일상생활장애 15.4%, 금단 7.7%로 나타났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과다사용 41.4%, 일상생활장애 13.8%, 금단 12.1%로 나타났다.

표 42. 소속기관별 취약·위기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단위 : 명)

소속기관	과다사용			일상생활장애			금단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검정고시 학원	8 (88.9%)	1 (11.1%)	9 (100%)	9 (100%)	0 (0.0%)	9 (100%)	9 (100%)	0 (0.0%)	9 (100%)
직업학교	4 (80.0%)	1 (20.0%)	5 (100%)	4 (80.0%)	1 (20.0%)	5 (100%)	4 (80.0%)	1 (20.0%)	5 (100%)
직업훈련기관	1 (100%)	0 (0.0%)	1 (100%)	1 (100%)	0 (0.0%)	1 (100%)	1 (100%)	0 (0.0%)	1 (100%)
학교나 검정고시 학원에 다니지 않음	11 (84.6%)	2 (15.4%)	13 (100%)	11 (84.6%)	2 (15.4%)	13 (100%)	12 (92.3%)	1 (7.7%)	13 (100%)
꿈드림센터	68 (58.6%)	48 (41.4%)	116 (100%)	100 (86.2%)	16 (13.8%)	116 (100%)	102 (87.9%)	14 (12.1%)	116 (100%)

라) 가정경제수준별

(1) 일반학생

가정경제수준별 일반학생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스마트폰 중독 문제 중 각 부분 모두 '보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과다사용은 '잘 사는 편'17.6%, '어려운 편'8.6%, 일상생활장애는 '잘 사는 편'15.7%, '어려운 편'9.7%, 금단은 '잘 사는 편'19.3%, '어려운 편'10.2%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 가정경제수준별 일반학생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단위 : 명)

가정 경제수준	과다사용		일상생활장애		금단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매우 어려운 편	4 (0.2%)	6 (0.9%)	9 (0.3%)	1 (0.5%)	3 (0.2%)	3 (1.1%)
어려운 편	85 (4.0%)	59 (8.6%)	123 (4.8%)	21 (9.7%)	100 (5.5%)	28 (10.2%)
보통	1,404 (66.7%)	482 (70.2%)	1,737 (67.3%)	155 (71.4%)	1,315 (72.5%)	187 (68.0%)
잘사는 편	533 (25.3%)	121 (17.6%)	622 (24.1%)	34 (15.7%)	357 (19.7%)	53 (19.3%)
매우 잘사는 편	78 (3.7%)	19 (2.8%)	91 (3.5%)	6 (2.8%)	39 (2.1%)	4 (1.5%)
전체	2,104 (100.0%)	687 (100.0%)	2,582 (100.0%)	217 (100.0%)	1,814 (100.0%)	275 (100.0%)

(2) 취약·위기청소년

가정경제수준별 취약·위기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스마트폰 중독 문제 중 각 부분 모두 '보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과다사용은 '어려운 편' 21.2%, '잘사는 편' 7.7%, 일상 생활장애는 '어려운 편' 31.6%, '잘사는 편' 10.5%, 금단은 '어려운 편' 14.8%, '잘사는 편' 10.9% 순으로 나타났다.

표 44. 가정경제수준별 취약·위기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단위 : 명)

가정 경제수준	과다사용		일상생활장애		금단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매우 어려운 편	1 (1.1%)	3 (5.8%)	3 (2.4%)	1 (5.3%)	3 (2.3%)	1 (6.3%)
어려운 편	15 (16.3%)	11 (21.2%)	20 (16.0%)	6 (31.6%)	19 (14.8%)	7 (43.8%)
보통	65 (70.7%)	34 (65.4%)	89 (71.2%)	10 (52.6%)	91 (71.1%)	8 (50.0%)
잘사는 편	10 (10.9%)	4 (7.7%)	12 (9.6%)	2 (10.5%)	14 (10.9%)	0 (0.0%)
매우 잘사는 편	1 (1.1%)	0 (0.0%)	1 (0.8%)	0 (0.0%)	1 (0.8%)	0 (0.0%)
전체	92 (100.0%)	52 (100.0%)	125 (100.0%)	19 (100.0%)	128 (100.0%)	16 (100.0%)

2) 약물

가) 시군별

(1) 일반학생

시군별 일반학생의 약물 위기결과는 표 45와 같다.

표 45. 시군별 일반학생 약물

(단위 : 명)

시군	술			담배			가스나 마약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천안시	812 (99.8%)	2 (0.2%)	814 (100.0%)	798 (98.0%)	16 (2.0%)	814 (100.0%)	811 (99.6%)	3 (0.4%)	814 (100.0%)
공주시	186 (99.5%)	1 (0.5%)	187 (100.0%)	182 (97.3%)	5 (2.7%)	187 (100.0%)	185 (99.5%)	1 (0.5%)	186 (100.0%)
보령시	120 (100.0%)	0 (0.0%)	120 (100.0%)	109 (90.8%)	11 (9.2%)	120 (100.0%)	120 (100.0%)	0 (0.0%)	120 (100.0%)
아산시	303 (99.3%)	2 (0.7%)	305 (100.0%)	299 (98.0%)	6 (2.0%)	305 (100.0%)	304 (100.0%)	0 (0.0%)	304 (100.0%)
서산시	221 (100.0%)	0 (0.0%)	221 (100.0%)	219 (99.1%)	2 (0.9%)	221 (100.0%)	219 (99.1%)	2 (0.9%)	221 (100.0%)
논산시	144 (100.0%)	0 (0.0%)	144 (100.0%)	142 (98.6%)	2 (1.4%)	144 (100.0%)	144 (100.0%)	0 (0.0%)	144 (100.0%)
계룡시	79 (100.0%)	0 (0.0%)	79 (100.0%)	79 (100.0%)	0 (0.0%)	79 (100.0%)	78 (98.7%)	1 (1.3%)	79 (100.0%)
당진시	194 (99.0%)	2 (1.0%)	196 (100.0%)	192 (98.0%)	4 (2.0%)	196 (100.0%)	196 (100.0%)	0 (0.0%)	196 (100.0%)
금산군	84 (98.8%)	1 (1.2%)	85 (100.0%)	84 (98.8%)	1 (1.2%)	85 (100.0%)	85 (100.0%)	0 (0.0%)	85 (100.0%)
부여군	110 (100.0%)	0 (0.0%)	110 (100.0%)	107 (97.3%)	3 (2.7%)	110 (100.0%)	110 (100.0%)	0 (0.0%)	110 (100.0%)
서천군	101 (100.0%)	0 (0.0%)	101 (100.0%)	100 (99.0%)	1 (1.0%)	101 (100.0%)	101 (100.0%)	0 (0.0%)	101 (100.0%)
청양군	163 (100.0%)	0 (0.0%)	163 (100.0%)	162 (99.4%)	1 (0.6%)	163 (100.0%)	163 (100.0%)	0 (0.0%)	163 (100.0%)
홍성군	100 (100.0%)	0 (0.0%)	100 (100.0%)	94 (94.0%)	6 (6.0%)	100 (100.0%)	98 (98.0%)	2 (2.0%)	100 (100.0%)
예산군	83 (100.0%)	0 (0.0%)	83 (100.0%)	82 (98.8%)	1 (1.2%)	83 (100.0%)	83 (100.0%)	0 (0.0%)	83 (100.0%)
태안군	93 (100.0%)	0 (0.0%)	93 (100.0%)	92 (98.9%)	1 (1.1%)	93 (100.0%)	93 (100.0%)	0 (0.0%)	93 (100.0%)
합계	2,793 (99.7%)	8 (0.3%)	2,801 (100.0%)	2,741 (97.9%)	60 (2.1%)	2,801 (100.0%)	2,790 (99.7%)	9 (0.3%)	2,799 (100.0%)

(2) 취약·위기청소년

시군별 취약·위기청소년의 약물 위기결과는 표 46과 같다.

표 46. 시군별 취약·위기청소년 약물

(단위 : 명)

시군	술			담배			가스나 마약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천안시	36 (94.7%)	2 (5.3%)	38 (100.0%)	35 (92.1%)	3 (7.9%)	38 (100.0%)	38 (100.0%)	0 (0.0%)	38 (100.0%)
공주시	7 (100.0%)	0 (0.0%)	7 (100.0%)	6 (85.7%)	1 (14.3%)	7 (100.0%)	6 (85.7%)	1 (14.3%)	7 (100.0%)
보령시	8 (88.9%)	1 (11.1%)	9 (100.0%)	7 (77.8%)	2 (22.2%)	9 (100.0%)	9 (100.0%)	0 (0.0%)	9 (100.0%)
아산시	15 (100.0%)	0 (0.0%)	15 (100.0%)	10 (66.7%)	5 (33.3%)	15 (100.0%)	15 (100.0%)	0 (0.0%)	15 (100.0%)
서산시	12 (100.0%)	0 (0.0%)	12 (100.0%)	8 (66.7%)	4 (33.3%)	12 (100.0%)	12 (100.0%)	0 (0.0%)	12 (100.0%)
논산시	10 (100.0%)	0 (0.0%)	10 (100.0%)	9 (90.0%)	1 (10.0%)	10 (100.0%)	9 (90.0%)	1 (10.0%)	10 (100.0%)
계룡시	3 (100.0%)	0 (0.0%)	3 (100.0%)	1 (33.3%)	2 (66.7%)	3 (100.0%)	3 (100.0%)	0 (0.0%)	3 (100.0%)
당진시	9 (90.0%)	1 (10.0%)	10 (100.0%)	8 (80.0%)	2 (20.0%)	10 (100.0%)	10 (100.0%)	0 (0.0%)	10 (100.0%)
금산군	6 (100.0%)	0 (0.0%)	6 (100.0%)	6 (100.0%)	0 (0.0%)	6 (100.0%)	6 (100.0%)	0 (0.0%)	6 (100.0%)
부여군	2 (100.0%)	0 (0.0%)	2 (100.0%)	2 (100.0%)	0 (0.0%)	2 (100.0%)	2 (100.0%)	0 (0.0%)	2 (100.0%)
서천군	9 (90.0%)	1 (10.0%)	10 (100.0%)	9 (90.0%)	1 (10.0%)	10 (100.0%)	10 (100.0%)	0 (0.0%)	10 (100.0%)
청양군	7 (100.0%)	0 (0.0%)	7 (100.0%)	7 (100.0%)	0 (0.0%)	7 (100.0%)	7 (100.0%)	0 (0.0%)	7 (100.0%)
홍성군	6 (100.0%)	0 (0.0%)	6 (100.0%)	6 (100.0%)	0 (0.0%)	6 (100.0%)	6 (100.0%)	0 (0.0%)	6 (100.0%)
예산군	1 (100.0%)	0 (0.0%)	1 (100.0%)	1 (100.0%)	0 (0.0%)	1 (100.0%)	1 (100.0%)	0 (0.0%)	1 (100.0%)
태안군	8 (100.0%)	0 (0.0%)	8 (100.0%)	4 (50.0%)	4 (50.0%)	8 (100.0%)	8 (100.0%)	0 (0.0%)	8 (100.0%)
합계	139 (96.5%)	5 (3.5%)	144 (100.0%)	119 (82.6%)	25 (17.4%)	144 (100.0%)	142 (98.6%)	2 (1.4%)	144 (100.0%)

나) 성별

(1) 일반학생

성별 일반학생 약물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음주와 가스나 마약문제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 하지 않았지만, 흡연 문제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 문제에서는 ‘남성’이 71.7%, ‘여성’이 28.3%로 나타났다.

표 47. 성별 일반학생 약물

(단위 : 명)

성별	술			담배			가스나 마약		
	해당없음	해당있음	χ^2	해당없음	해당있음	χ^2	해당없음	해당있음	χ^2
남성	1,201 (43.0%)	4 (50.0%)	.159	1,162 (42.4%)	43 (71.7%)	20.502***	1,202 (43.1%)	3 (33.3%)	.349
여성	1,591 (57.0%)	4 (50.0%)		1,578 (57.6%)	17 (28.3%)		1,587 (56.9%)	6 (66.7%)	
전체	2,792 (100.0%)	8 (100.0%)		2,740 (100.0%)	60 (100.0%)		2,789 (100.0%)	9 (100.0%)	

* $p < 0.05$, ** $p < 0.01$, *** $p < 0.001$

(2) 취약·위기청소년

성별 취약·위기청소년 약물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음주, 흡연, 약물 문제 모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48. 성별 취약·위기청소년 약물

(단위 : 명)

성별	술			담배			가스나 마약		
	해당없음	해당있음	χ^2	해당없음	해당있음	χ^2	해당없음	해당있음	χ^2
남성	66 (47.5%)	2 (40.0%)	.108	52 (43.7%)	16 (64.0%)	3.417	67 (47.2%)	1 (50.0%)	.006
여성	73 (52.5%)	3 (60.0%)		67 (56.3%)	9 (36.0%)		75 (52.8%)	1 (50.0%)	
전체	139 (100.0%)	5 (100.0%)		119 (100.0%)	25 (100.0%)		142 (100.0%)	2 (100.0%)	

* $p < 0.05$, ** $p < 0.01$, *** $p < 0.001$

다) 소속기관별

(1) 일반학생

소속기관별 일반학생의 약물 위기결과는 음주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중 중학생 25.0%, 인문계고등학교 50.0%, 전문계(실업계)고등학교 25.0%로 나타났고, 흡연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중 중학생 21.7%, 인문계고등학교 48.3%, 전문계(실업계)고등학교 30.0%로 나타났다. 가스나 마약은 초등학교 11.1%, 중학생 33.3%, 인문계고등학교 33.3%, 전문계(실업계)고등학교 22.2%로 나타났다.

표 49. 소속기관 일반학생 약물

(단위 : 명)

소속기관	술		담배		가스나 마약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초등학교	712 (25.5%)	0 (0.0%)	712 (26.0%)	0 (0.0%)	711 (25.5%)	1 (11.1%)
중학교	1,008 (36.1%)	2 (25.0%)	997 (36.4%)	13 (21.7%)	1,005 (36.0%)	3 (33.3%)
인문계 고등학교	831 (29.7%)	4 (50.0%)	806 (29.4%)	29 (48.3%)	832 (29.8%)	3 (33.3%)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239 (8.6%)	2 (25.0%)	223 (8.1%)	18 (30.0%)	239 (8.6%)	2 (22.2%)
대안학교	4 (0.1%)	0 (0.0%)	4 (0.1%)	0 (0.0%)	4 (0.1%)	0 (0.0%)
전체	2,794 (100.0%)	8 (100.0%)	2,742 (100.0%)	60 (100.0%)	2,791 (100.0%)	9 (100.0%)

(2) 취약·위기청소년

소속기관별 취약·위기청소년의 약물 위기결과는 표50과 같다.

표 50. 소속기관 취약·위기청소년 약물

(단위 : 명)

소속기관	술		담배		가스나 마약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검정고시	9	0	9	0	9	0
학원	(6.5%)	(0.0%)	(7.6%)	(0.0%)	(6.3%)	(0.0%)
직업학교	5	0	3	2	5	0
	(3.6%)	(0.0%)	(2.5%)	(8.0%)	(3.5%)	(0.0%)
직업훈련	1	0	1	0	1	0
기관	(0.7%)	(0.0%)	(0.8%)	(0.0%)	(0.7%)	(0.0%)
학교나 검정고시	12	1	12	1	13	0
학원에 다니지 않음	(8.6%)	(20.0%)	(10.1%)	(4.0%)	(9.2%)	(0.0%)
꿈드림 센터	112	4	94	22	114	2
	(80.6%)	(80.0%)	(79.0%)	(88.0%)	(80.3%)	(100.0%)
전체	139	5	119	25	142	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라) 가정경제수준별

(1) 일반학생

가정경제수준별 일반학생 약물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약물 문제 중 각 부분 모두 '보통' 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술을 '매일 거의'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어려운 편'과 '잘사는 편'이 각각 25%, 담배를 '매일 거의'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잘사는 편'이 21.7%, '어려운 편'이 11.7%, 가스나 마약을 '주1~2회 이상'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잘사는 편'과 '매우 잘사는 편'이 각각 22.2%순으로 나타났다.

표 51. 가정경제수준별 일반학생 약물

가정경제수준	(단위 : 명)					
	술		담배		가스나 마약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매우	10	0	10	0	10	0
어려운 편	(0.4%)	(0.0%)	(0.4%)	(0.0%)	(0.4%)	(0.0%)
어려운 편	142	2	137	7	143	1
	(5.1%)	(25.0%)	(5.0%)	(11.7%)	(5.1%)	(11.1%)
보통	1,888	4	1,853	39	1,886	4
	(67.6%)	(50.0%)	(67.7%)	(65.0%)	(67.6%)	(44.4%)
잘사는 편	654	2	643	13	654	2
	(23.4%)	(25.0%)	(23.5%)	(21.7%)	(23.5%)	(22.2%)
매우	97	0	96	1	95	2
잘사는 편	(3.5%)	(0.0%)	(3.5%)	(1.7%)	(3.4%)	(22.2%)
전체	2,791	8	2,739	60	2,788	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취약·위기청소년

가정경제수준별 취약·위기청소년의 약물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약물 문제 중 담배를 '거의 매일'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보통'이 60%, '어려운편'과 '잘사는 편'이 각각 20%, 담배를 '거의 매일'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보통'이 64%, '어려운 편'이 24%, 가스나 마약을 '주1~2회 이상'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어려운 편'과 '보통'이 각각 50%로 나타났다.

표 52. 가정경제수준별 취약·위기청소년 약물

(단위 : 명)

가정경제수준	술		담배		가스나 마약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매우	4	0	3	1	4	0
어려운 편	(2.9%)	(0.0%)	(2.5%)	(4.0%)	(2.8%)	(0.0%)
어려운 편	25	1	20	6	25	1
	(18.0%)	(20.0%)	(16.8%)	(24.0%)	(17.6%)	(50.0%)
보통	96	3	83	16	98	1
	(69.1%)	(60.0%)	(69.7%)	(64.0%)	(69.0%)	(50.0%)
잘사는 편	13	1	12	2	14	0
	(9.4%)	(20.0%)	(10.1%)	(8.0%)	(9.9%)	(0.0%)
매우	1	0	1	0	1	0
잘사는 편	(0.7%)	(0.0%)	(0.8%)	(0.0%)	(0.7%)	(0.0%)
전체	139	5	119	25	142	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 도박

가) 시군별

(1) 일반학생

시군별 일반학생의 도박 위기결과는 표 53과 같다.

표 53. 시군별 일반학생 도박

(단위 : 명)

시군	도박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천안시	808 (99.3%)	6 (0.7%)	814 (100.0%)
공주시	181 (96.8%)	6 (3.2%)	187 (100.0%)
보령시	120 (100.0%)	0 (0.0%)	120 (100.0%)
아산시	304 (99.7%)	1 (0.3%)	305 (100.0%)
서산시	220 (99.5%)	1 (0.5%)	221 (100.0%)
논산시	143 (99.3%)	1 (0.7%)	144 (100.0%)
계룡시	79 (100.0%)	0 (0.0%)	79 (100.0%)
당진시	195 (99.5%)	1 (0.5%)	196 (100.0%)
금산군	84 (98.8%)	1 (1.2%)	85 (100.0%)
부여군	108 (98.2%)	2 (1.8%)	110 (100.0%)
서천군	101 (100.0%)	0 (0.0%)	101 (100.0%)
청양군	163 (100.0%)	0 (0.0%)	163 (100.0%)
홍성군	98 (98.0%)	2 (2.0%)	100 (100.0%)
예산군	82 (98.8%)	1 (1.2%)	83 (100.0%)
태안군	92 (98.9%)	1 (1.1%)	93 (100.0%)
합계	2,778 (99.2%)	23 (0.8%)	2,801 (100.0%)

(2) 취약·위기청소년

시군별 취약·위기청소년의 도박 위기결과는 표54와 같다.

표 54. 시군별 취약·위기청소년 도박

(단위 : 명)

시군	도박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천안시	37 (97.4%)	1 (2.6%)	38 (100.0%)
공주시	6 (85.7%)	1 (14.3%)	7 (100.0%)
보령시	9 (100.0%)	0 (0.0%)	9 (100.0%)
아산시	15 (100.0%)	0 (0.0%)	15 (100.0%)
서산시	12 (100.0%)	0 (0.0%)	12 (100.0%)
논산시	10 (100.0%)	0 (0.0%)	10 (100.0%)
계룡시	3 (100.0%)	0 (0.0%)	3 (100.0%)
당진시	10 (100.0%)	0 (0.0%)	10 (100.0%)
금산군	5 (83.3%)	1 (16.7%)	6 (100.0%)
부여군	2 (100.0%)	0 (0.0%)	2 (100.0%)
서천군	10 (100.0%)	0 (0.0%)	10 (100.0%)
청양군	7 (100.0%)	0 (0.0%)	7 (100.0%)
홍성군	6 (100.0%)	0 (0.0%)	6 (100.0%)
예산군	1 (100.0%)	0 (0.0%)	1 (100.0%)
태안군	8 (100.0%)	0 (0.0%)	8 (100.0%)
합계	141 (97.9%)	3 (2.1%)	144 (100.0%)

나) 성별

(1) 일반학생

성별 일반학생의 도박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55. 성별 일반학생 도박

(단위 : 명)

성별	도박		χ^2
	해당없음	해당있음	
남성	1,190 (42.9%)	15 (65.2%)	.007
여성	1,587 (57.1%)	8 (34.8%)	
전체	2,777 (100.0%)	23 (100.0%)	

* $p < 0.05$, ** $p < 0.01$, *** $p < 0.001$

(2) 취약·위기청소년

성별 취약·위기청소년의 도박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56. 성별 취약·위기청소년 도박

(단위 : 명)

성별	도박		χ^2
	해당없음	해당있음	
남성	67 (47.5%)	1 (33.3%)	.237
여성	74 (52.5%)	2 (66.7%)	
전체	141 (100.0%)	3 (100.0%)	

* $p < 0.05$, ** $p < 0.01$, *** $p < 0.001$

다) 소속기관별

(1) 일반학생

소속기관별 일반학생의 도박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도박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 중 인문계 고등학교 56.5%,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17.4%순으로 나타났다.

표 57. 소속기관 일반학생 도박

(단위 : 명)

소속기관	도박	
	해당없음	해당있음
초등학교	709 (25.5%)	3 (13.0%)
중학교	1,007 (36.2%)	3 (13.0%)
인문계 고등학교	822 (29.6%)	13 (56.5%)
전문계 (실업계) 고등학교	237 (8.5%)	4 (17.4%)
대안학교	4 (0.1%)	0 (0.0%)
전체	2,779 (100.0%)	23 (100.0%)

(2) 취약·위기청소년

소속기관별 취약·위기청소년의 도박 위기결과는 표58과 같다.

표 58. 소속기관 취약·위기청소년 도박

(단위 : 명)

소속기관	도박	
	해당없음	해당있음
검정고시 학원	9 (6.4%)	0 (0.0%)
직업학교	5 (3.5%)	0 (0.0%)
직업훈련기관	1 (0.7%)	0 (0.0%)
학교나 검정고시 학원에 다니지 않음	13 (9.2%)	0 (0.0%)
꿈드림 센터	113 (80.1%)	3 (100.0%)
전체	141 (100.0%)	3 (100.0%)

라) 가정경제수준별

(1) 일반학생

가정경제수준별 일반학생의 도박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조사대상자 중 도박문제에 대해 '해당있음'의 비율이 '보통' 39.1%, '잘사는 편' 30.4%, '어려운 편'이 17.4%순으로 나타났다.

표 59. 가정경제수준별 일반학생 도박

(단위 : 명)

가정경제수준	도박	
	해당없음	해당있음
매우 어려운 편	10 (0.4%)	0 (0.0%)
어려운 편	140 (5.0%)	4 (17.4%)
보통	1,883 (67.8%)	9 (39.1%)
잘사는 편	649 (23.4%)	7 (30.4%)
매우 잘사는 편	94 (3.4%)	3 (13.0%)
전체	2,776 (100.0%)	23 (100.0%)

(2) 취약·위기청소년

가정경제수준별 취약·위기청소년의 도박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조사대상자 중 도박 문제에 대해 '해당있음'의 비율이 '보통' 66.7%, '어려운 편' 33.3%순으로 나타났다.

표 60. 가정경제수준별 취약·위기청소년 도박

(단위 : 명)

가정경제수준	도박	
	해당없음	해당있음
매우 어려운 편	4 (2.8%)	0 (0.0%)
어려운 편	25 (17.7%)	1 (33.3%)
보통	97 (68.8%)	2 (66.7%)
잘사는 편	14 (9.9%)	0 (0.0%)
매우 잘사는 편	1 (0.7%)	0 (0.0%)
전체	141 (100.0%)	3 (100.0%)

4) 학교폭력 피해

가) 시군별

(1) 일반학생

시군별 일반학생의 학교폭력피해 위기결과는 표61과 같다. 분포를 제시하였다. 학교폭력 피해 문제 중 신체폭력은 청양군 1.8%, 서산시 1.4%, 천안시 1.1%, 언어폭력은 청양군 3.1%, 천안시 1.6%, 당진시 1.5%, 따돌림은 서산시 1.8%, 청양군 1.2%, 보령시 0.8%, 돈, 물건 빼앗김은 서산시 0.9%, 보령시 0.8%, 청양군 0.6%, 사이버 폭력은 청양군 0.6%, 서산시 0.5%, 천안시 0.4%순으로 나타났다.

표 61. 시군별 일반학생 학교폭력피해

(단위 : 명)

시군	신체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돈·물건빼앗김			사이버 폭력		
	해당	해당	전체	해당	해당	전체	해당	해당	전체	해당	해당	전체	해당	해당	전체
천안시	805 (98.9%)	9 (1.1%)	814 (100.0%)	801 (98.4%)	13 (1.6%)	814 (100.0%)	807 (99.4%)	5 (0.6%)	812 (100.0%)	810 (99.6%)	3 (0.4%)	813 (100.0%)	810 (99.6%)	3 (0.4%)	813 (100.0%)
공주시	185 (99.5%)	1 (0.5%)	186 (100.0%)	184 (99.5%)	1 (0.5%)	185 (100.0%)	186 (100.0%)	0 (0.0%)	186 (100.0%)	186 (100.0%)	0 (0.0%)	186 (100.0%)	186 (100.0%)	0 (0.0%)	186 (100.0%)
보령시	120 (100.0%)	0 (0.0%)	120 (100.0%)	119 (99.2%)	1 (0.8%)	120 (100.0%)	119 (99.2%)	1 (0.8%)	120 (100.0%)	119 (99.2%)	1 (0.8%)	120 (100.0%)	120 (100.0%)	0 (0.0%)	120 (100.0%)
아산시	304 (100.0%)	0 (0.0%)	304 (100.0%)	305 (99.7%)	1 (0.3%)	306 (100.0%)	306 (100.0%)	0 (0.0%)	306 (100.0%)	306 (100.0%)	0 (0.0%)	306 (100.0%)	306 (100.0%)	0 (0.0%)	306 (100.0%)
서산시	218 (98.6%)	3 (1.4%)	221 (100.0%)	218 (98.6%)	3 (1.4%)	221 (100.0%)	217 (98.2%)	4 (1.8%)	221 (100.0%)	219 (99.1%)	2 (0.9%)	221 (100.0%)	220 (99.5%)	1 (0.5%)	221 (100.0%)
논산시	144 (100.0%)	0 (0.0%)	144 (100.0%)	142 (98.6%)	2 (1.4%)	144 (100.0%)	144 (100.0%)	0 (0.0%)	144 (100.0%)	144 (100.0%)	0 (0.0%)	144 (100.0%)	144 (100.0%)	0 (0.0%)	144 (100.0%)
계룡시	79 (100.0%)	0 (0.0%)	79 (100.0%)	79 (100.0%)	0 (0.0%)	79 (100.0%)	79 (100.0%)	0 (0.0%)	79 (100.0%)	79 (100.0%)	0 (0.0%)	79 (100.0%)	79 (100.0%)	0 (0.0%)	79 (100.0%)
당진시	195 (99.5%)	1 (0.5%)	196 (100.0%)	193 (98.5%)	3 (1.5%)	196 (100.0%)	196 (100.0%)	0 (0.0%)	196 (100.0%)	196 (100.0%)	0 (0.0%)	196 (100.0%)	196 (100.0%)	0 (0.0%)	196 (100.0%)
금산군	85 (100.0%)	0 (0.0%)	85 (100.0%)	84 (98.8%)	1 (1.2%)	85 (100.0%)	85 (100.0%)	0 (0.0%)	85 (100.0%)	85 (100.0%)	0 (0.0%)	85 (100.0%)	85 (100.0%)	0 (0.0%)	85 (100.0%)
부여군	110 (100.0%)	0 (0.0%)	110 (100.0%)	109 (99.1%)	1 (0.9%)	110 (100.0%)	110 (100.0%)	0 (0.0%)	110 (100.0%)	110 (100.0%)	0 (0.0%)	110 (100.0%)	110 (100.0%)	0 (0.0%)	110 (100.0%)
서천군	101 (100.0%)	0 (0.0%)	101 (100.0%)	101 (100.0%)	0 (0.0%)	101 (100.0%)	100 (99.0%)	0 (0.0%)	100 (100.0%)	100 (100.0%)	0 (0.0%)	100 (100.0%)	100 (100.0%)	0 (0.0%)	100 (100.0%)
청양군	160 (98.2%)	3 (1.8%)	163 (100.0%)	158 (96.9%)	5 (3.1%)	163 (100.0%)	161 (98.8%)	2 (1.2%)	163 (100.0%)	162 (99.4%)	1 (0.6%)	163 (100.0%)	162 (99.4%)	1 (0.6%)	163 (100.0%)
홍성군	101 (100.0%)	0 (0.0%)	101 (100.0%)	101 (100.0%)	0 (0.0%)	101 (100.0%)	101 (100.0%)	0 (0.0%)	101 (100.0%)	101 (100.0%)	0 (0.0%)	101 (100.0%)	101 (100.0%)	0 (0.0%)	101 (100.0%)
예산군	83 (100.0%)	0 (0.0%)	83 (100.0%)	82 (98.8%)	1 (1.2%)	83 (100.0%)	83 (100.0%)	0 (0.0%)	83 (100.0%)	83 (100.0%)	0 (0.0%)	83 (100.0%)	83 (100.0%)	0 (0.0%)	83 (100.0%)
태안군	93 (100.0%)	0 (0.0%)	93 (100.0%)	93 (100.0%)	0 (0.0%)	93 (100.0%)	93 (100.0%)	0 (0.0%)	93 (100.0%)	93 (100.0%)	0 (0.0%)	93 (100.0%)	93 (100.0%)	0 (0.0%)	93 (100.0%)
합계	2,783 (99.4%)	17 (0.6%)	2,800 (100.0%)	2,769 (98.9%)	32 (1.1%)	2,801 (100.0%)	2,787 (99.5%)	12 (0.4%)	2,799 (100.0%)	2,793 (99.8%)	7 (0.3%)	2,800 (100.0%)	2,795 (99.5%)	5 (0.2%)	2,800 (100.0%)

(2) 취약·위기청소년

시군별 일반학생의 학교폭력피해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취약·위기청소년의 경우 신체 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중 천안 2.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언어폭력은 홍성군 33.3%, 공주시 14.3%, 논산시 10.0%로 나타났다. 따돌림의 경우 공주시 14.3%, 논산시 10.1%로 나타났으며, 사이버 폭력은 천안시 7.9%로 나타났다.

표 62. 시군별 취약·위기청소년 학교폭력피해

(단위 : 명)

시군	신체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돈·물건빼앗김			사이버 폭력		
	해당 없음	해당 있음	전체	해당 없음	해당 있음	전체	해당 없음	해당 있음	전체	해당 없음	해당 있음	전체	해당 없음	해당 있음	전체
천안시	37 (97.4%)	1 (2.6%)	38 (100.0%)	36 (94.7%)	2 (5.3%)	38 (100.0%)	36 (94.7%)	2 (5.3%)	38 (100.0%)	38 (100.0%)	0 (0.0%)	38 (100.0%)	35 (92.1%)	3 (7.9%)	38 (100.0%)
공주시	7 (100.0%)	0 (0.0%)	7 (100.0%)	6 (85.7%)	1 (14.3%)	7 (100.0%)	6 (85.7%)	1 (14.3%)	7 (100.0%)	7 (100.0%)	0 (0.0%)	7 (100.0%)	6 (100.0%)	0 (0.0%)	6 (100.0%)
보령시	9 (100.0%)	0 (0.0%)	9 (100.0%)	9 (100.0%)	0 (0.0%)	9 (100.0%)	9 (100.0%)	0 (0.0%)	9 (100.0%)	9 (100.0%)	0 (0.0%)	9 (100.0%)	9 (100.0%)	0 (0.0%)	9 (100.0%)
아산시	15 (100.0%)	0 (0.0%)	15 (100.0%)	15 (100.0%)	0 (0.0%)	15 (100.0%)	15 (100.0%)	0 (0.0%)	15 (100.0%)	15 (100.0%)	0 (0.0%)	15 (100.0%)	15 (100.0%)	0 (0.0%)	15 (100.0%)
서산시	12 (100.0%)	0 (0.0%)	12 (100.0%)	12 (100.0%)	0 (0.0%)	12 (100.0%)	12 (100.0%)	0 (0.0%)	12 (100.0%)	12 (100.0%)	0 (0.0%)	12 (100.0%)	12 (100.0%)	0 (0.0%)	12 (100.0%)
논산시	10 (100.0%)	0 (0.0%)	10 (100.0%)	9 (90.0%)	1 (10.0%)	10 (100.0%)	9 (90.0%)	1 (10.0%)	10 (100.0%)	10 (100.0%)	0 (0.0%)	10 (100.0%)	10 (100.0%)	0 (0.0%)	10 (100.0%)
계룡시	3 (100.0%)	0 (0.0%)	3 (100.0%)	3 (100.0%)	0 (0.0%)	3 (100.0%)	3 (100.0%)	0 (0.0%)	3 (100.0%)	3 (100.0%)	0 (0.0%)	3 (100.0%)	3 (100.0%)	0 (0.0%)	3 (100.0%)
당진시	10 (100.0%)	0 (0.0%)	10 (100.0%)	10 (100.0%)	0 (0.0%)	10 (100.0%)	10 (100.0%)	0 (0.0%)	10 (100.0%)	10 (100.0%)	0 (0.0%)	10 (100.0%)	10 (100.0%)	0 (0.0%)	10 (100.0%)
금산군	6 (100.0%)	0 (0.0%)	6 (100.0%)	6 (100.0%)	0 (0.0%)	6 (100.0%)	6 (100.0%)	0 (0.0%)	6 (100.0%)	6 (100.0%)	0 (0.0%)	6 (100.0%)	6 (100.0%)	0 (0.0%)	6 (100.0%)
부여군	2 (100.0%)	0 (0.0%)	2 (100.0%)	2 (100.0%)	0 (0.0%)	2 (100.0%)	2 (100.0%)	0 (0.0%)	2 (100.0%)	2 (100.0%)	0 (0.0%)	2 (100.0%)	2 (100.0%)	0 (0.0%)	2 (100.0%)
서천군	10 (100.0%)	0 (0.0%)	10 (100.0%)	10 (100.0%)	0 (0.0%)	10 (100.0%)	10 (100.0%)	0 (0.0%)	10 (100.0%)	10 (100.0%)	0 (0.0%)	10 (100.0%)	10 (100.0%)	0 (0.0%)	10 (100.0%)
청양군	7 (100.0%)	0 (0.0%)	7 (100.0%)	7 (100.0%)	0 (0.0%)	7 (100.0%)	7 (100.0%)	0 (0.0%)	7 (100.0%)	7 (100.0%)	0 (0.0%)	7 (100.0%)	7 (100.0%)	0 (0.0%)	7 (100.0%)
홍성군	6 (100.0%)	0 (0.0%)	6 (100.0%)	4 (66.7%)	2 (33.3%)	6 (100.0%)	6 (100.0%)	0 (0.0%)	6 (100.0%)	6 (100.0%)	0 (0.0%)	6 (100.0%)	6 (100.0%)	0 (0.0%)	6 (100.0%)
예산군	1 (100.0%)	0 (0.0%)	1 (100.0%)	1 (100.0%)	0 (0.0%)	1 (100.0%)	1 (100.0%)	0 (0.0%)	1 (100.0%)	1 (100.0%)	0 (0.0%)	1 (100.0%)	1 (100.0%)	0 (0.0%)	1 (100.0%)
태안군	8 (100.0%)	0 (0.0%)	8 (100.0%)	8 (100.0%)	0 (0.0%)	8 (100.0%)	8 (100.0%)	0 (0.0%)	8 (100.0%)	8 (100.0%)	0 (0.0%)	8 (100.0%)	8 (100.0%)	0 (0.0%)	8 (100.0%)
합계	143 (93.3%)	1 (0.7%)	144 (100.0%)	138 (95.8%)	6 (4.2%)	144 (100.0%)	140 (97.2%)	4 (2.8%)	144 (100.0%)	144 (100.0%)	0 (0.0%)	144 (100.0%)	140 (97.9%)	3 (2.1%)	143 (100.0%)

나) 성별

(1) 일반학생

성별 일반학생의 학교폭력피해 위기결과 남성은 신체폭력 0.7%, 언어폭력 1.9%, 따돌림 0.2%, 돈, 물건빼앗김 0.4%, 사이버 폭력 0.2%로 나타났고, 여성은 신체폭력 0.6%, 언어폭력 0.5%, 따돌림 0.6%, 돈, 물건빼앗김 0.1%, 사이버 폭력 0.2%로 나타났다.

표 63. 성별 일반학생 학교폭력피해

(단위 : 명)

성별	신체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돈,물건빼앗김			사이버 폭력		
	해당 없음	해당 있음	전체	해당 없음	해당 있음	전체	해당 없음	해당 있음	전체	해당 없음	해당 있음	전체	해당 없음	해당 있음	전체
남성	1,199 (99.3%)	8 (0.7%)	1,207 (100%)	1,183 (98.1%)	23 (1.9%)	1,206 (100%)	1,203 (99.8%)	2 (0.2%)	1,205 (100%)	1,201 (99.6%)	5 (0.4%)	1,206 (100%)	1,204 (99.8%)	2 (0.2%)	1,206 (100%)
여성	1,583 (99.4%)	9 (0.6%)	1,592 (100%)	1,585 (99.5%)	9 (0.5%)	1,592 (100%)	1,583 (99.4%)	10 (0.6%)	1,593 (100%)	1,591 (99.9%)	2 (0.1%)	1,593 (100%)	1,590 (99.8%)	3 (0.2%)	1,593 (100%)

(2) 취약·위기청소년

성별 취약·위기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 위기결과 남성은 신체폭력 1.5%, 언어폭력 4.4%, 따돌림 1.5%, 사이버 폭력 3.0%로 나타났고, 여성은 언어폭력 4.0%, 따돌림 4.0%, 사이버 폭력 1.3%로 나타났다.

표 64. 성별 취약·위기청소년 학교폭력피해

(단위 : 명)

성별	신체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돈,물건빼앗김			사이버 폭력		
	해당 없음	해당 있음	전체	해당 없음	해당 있음	전체	해당 없음	해당 있음	전체	해당 없음	해당 있음	전체	해당 없음	해당 있음	전체
남성	67 (98.5%)	1 (1.5%)	68 (100%)	65 (95.6%)	3 (4.4%)	68 (100%)	67 (98.5%)	1 (1.5%)	68 (100%)	68 (100%)	0 (0.0%)	68 (100%)	65 (97.0%)	2 (3.0%)	67 (100%)
여성	76 (100%)	0 (0.0%)	76 (100%)	73 (96.0%)	3 (4.0%)	76 (100%)	73 (96.0%)	3 (4.0%)	76 (100%)	76 (100%)	0 (0.0%)	76 (100%)	75 (98.7%)	1 (1.3%)	76 (100%)

다) 소속기관별

(1) 일반학생

소속기관 일반학생 학교폭력피해 위기결과는 표 65와 같다.

표 65. 소속기관 일반학생 학교폭력피해

(단위 : 명)

소속기관	신체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돈·물건빼앗김		사이버 폭력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초등학교	705 (25.3%)	7 (41.2%)	702 (25.3%)	10 (31.3%)	704 (25.3%)	8 (66.7%)	711 (25.4%)	1 (14.3%)	709 (25.4%)	3 (60.0%)
중학교	1,005 (36.1%)	3 (17.6%)	999 (36.1%)	11 (34.4%)	1,008 (36.2%)	1 (8.3%)	1,007 (36.0%)	3 (42.9%)	1,009 (36.1%)	1 (20.0%)
인문계 고등학교	830 (29.8%)	6 (35.3%)	826 (29.8%)	9 (28.1%)	832 (29.8%)	2 (16.7%)	832 (29.8%)	2 (28.6%)	834 (29.8%)	0 (0.0%)
전문계 (실업계) 고등학교	240 (8.6%)	1 (5.9%)	239 (8.6%)	2 (6.3%)	240 (8.6%)	1 (8.3%)	240 (8.6%)	1 (14.3%)	240 (8.6%)	1 (20.0%)
대안학교	4 (0.1%)	0 (0.0%)	4 (0.1%)	0 (0.0%)	4 (0.1%)	0 (0.0%)	4 (0.1%)	0 (0.0%)	4 (0.1%)	0 (0.0%)
전체	2,784 (100.0%)	17 (100.0%)	2,770 (100.0%)	32 (100.0%)	2,788 (100.0%)	12 (100.0%)	2,794 (100.0%)	7 (100.0%)	2,796 (100.0%)	5 (100.0%)

(2) 취약·위기청소년

소속기관별 취약·위기청소년 학교폭력피해 위기결과는 표66과 같다.

표 66. 소속기관 취약·위기청소년 학교폭력피해

(단위 : 명)

소속기관	신체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돈·물건빼앗김		사이버 폭력	
	해당없음	해당있음								
검정고시 학원	9 (6.3%)	0 (0.0%)	9 (6.5%)	0 (0.0%)	9 (6.4%)	0 (0.0%)	9 (6.3%)	0 (0.0%)	9 (6.4%)	0 (0.0%)
직업학교	5 (3.5%)	0 (0.0%)	4 (2.9%)	1 (16.7%)	4 (2.9%)	1 (25.0%)	5 (3.5%)	0 (0.0%)	4 (2.9%)	1 (33.3%)
직업훈련 기관	1 (0.7%)	0 (0.0%)								
학교나 검정고시 학원에 다나지않음	13 (9.1%)	0 (0.0%)	13 (9.4%)	0 (0.0%)	13 (9.3%)	0 (0.0%)	13 (9.0%)	0 (0.0%)	12 (8.6%)	1 (33.3%)
꿈드림 센터	115 (80.4%)	1 (100.0%)	111 (80.4%)	5 (83.3%)	113 (80.7%)	3 (75.0%)	116 (80.6%)	0 (0.0%)	114 (81.4%)	1 (33.3%)
전체	143 (100.0%)	1 (100.0%)	138 (100.0%)	6 (100.0%)	140 (100.0%)	4 (100.0%)	144 (100.0%)	0 (100.0%)	140 (100.0%)	3 (100.0%)

라) 가정경제수준별

(1) 일반학생

가정경제수준별 일반학생 학교폭력 피해 위기결과는 표67과 같다.

표 67. 가정경제수준별 일반학생 학교폭력 피해

(단위 : 명)

가정 경제수준	신체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돈, 물건 빼앗김		사이버 폭력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매우 어려운 편	10 (0.4%)	0 (0.0%)	9 (0.3%)	1 (3.1%)	10 (0.4%)	0 (0.0%)	10 (0.4%)	0 (0.0%)	10 (0.4%)	0 (0.0%)
어려운 편	142 (5.1%)	2 (11.8%)	141 (5.1%)	2 (6.3%)	144 (5.2%)	0 (0.0%)	144 (5.2%)	0 (0.0%)	143 (5.1%)	1 (20.0%)
보통	1,884 (67.7%)	8 (47.1%)	1,875 (67.8%)	19 (59.4%)	1,886 (67.7%)	6 (50.0%)	1,888 (67.6%)	4 (57.1%)	1,891 (67.7%)	2 (40.0%)
잘사는 편	650 (23.4%)	6 (35.3%)	647 (23.4%)	9 (28.1%)	650 (23.3%)	5 (41.7%)	653 (23.4%)	3 (42.9%)	654 (23.4%)	1 (20.0%)
매우 잘사는 편	95 (3.4%)	1 (5.9%)	95 (3.4%)	1 (3.1%)	95 (3.4%)	1 (8.3%)	96 (3.4%)	0 (0.0%)	95 (3.4%)	1 (20.0%)
전체	2,781 (100.0%)	17 (100.0%)	2,767 (100.0%)	32 (100.0%)	2,785 (100.0%)	12 (100.0%)	2,791 (100.0%)	7 (100.0%)	2,793 (100.0%)	5 (100.0%)

(2) 취약·위기청소년

가정경제수준별 취약·위기청소년 학교폭력 피해 위기결과는 표68과 같다.

표 68. 가정경제수준별 취약·위기청소년 학교폭력 피해

(단위 : 명)

가정 경제수준	신체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돈,물건빼앗김		사이버 폭력	
	해당없음	해당있음								
매우 어려운 편	4 (2.8%)	0 (0.0%)	3 (2.2%)	1 (16.7%)	3 (2.1%)	1 (25.0%)	4 (2.8%)	0 (0.0%)	3 (2.1%)	1 (33.3%)
어려운 편	26 (18.2%)	0 (0.0%)	25 (18.1%)	1 (16.7%)	25 (17.9%)	1 (25.0%)	26 (18.1%)	0 (0.0%)	26 (18.6%)	0 (0.0%)
보통	98 (68.5%)	1 (100.0%)	96 (69.6%)	3 (50.0%)	98 (70.0%)	1 (25.0%)	99 (68.8%)	0 (0.0%)	97 (69.3%)	1 (33.3%)
잘사는 편	14 (9.8%)	0 (0.0%)	13 (9.4%)	1 (16.7%)	13 (9.3%)	1 (25.0%)	14 (9.7%)	0 (0.0%)	13 (9.3%)	1 (33.3%)
매우 잘사는 편	1 (0.7%)	0 (0.0%)								
전체	143 (100.0%)	1 (100.0%)	138 (100.0%)	6 (100.0%)	140 (100.0%)	4 (100.0%)	144 (100.0%)	0 (100.0%)	140 (100.0%)	3 (100.0%)

5) 학교폭력가해

가) 시군별

(1) 일반학생

시군별 일반학생의 학교폭력가해 위기 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학교폭력 가해문제 중 신체 폭력은 보령시 1.7%, 서산시 0.9%, 아산시 0.7%, 언어폭력은 예산군 2.4%, 부여군 1.8%, 보령시 1.7%, 따돌림은 예산군 1.2%, 아산시 1.7%, 천안시 0.4%, 돈,물건 빼앗음은 보령시 0.8%, 서산시 0.8%, 천안시 0.4%, 사이버 폭력은 예산군 1.2%, 태안군 1.1%, 아산시 0.3%순으로 나타났다.

표 69. 시군별 일반학생 학교폭력가해

(단위 : 명)

시군	신체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돈·물건빼앗음			사이버 폭력		
	해당 없음	해당 있음	전체	해당 없음	해당 있음	전체	해당 없음	해당 있음	전체	해당 없음	해당 있음	전체	해당 없음	해당 있음	전체
천안시	810 (99.5%)	4 (0.5%)	814 (100.0%)	801 (98.4%)	13 (1.6%)	814 (100.0%)	811 (99.6%)	3 (0.4%)	814 (100.0%)	811 (99.6%)	3 (0.4%)	814 (100.0%)	814 (100.0%)	0 (0.0%)	814 (100.0%)
공주시	186 (100.0%)	0 (0.0%)	186 (100.0%)	184 (98.9%)	2 (1.1%)	186 (100.0%)	186 (100.0%)	0 (0.0%)	186 (100.0%)	186 (100.0%)	0 (0.0%)	186 (100.0%)	186 (100.0%)	0 (0.0%)	186 (100.0%)
보령시	118 (98.3%)	2 (1.7%)	120 (100.0%)	118 (98.3%)	2 (1.7%)	120 (100.0%)	120 (100.0%)	0 (0.0%)	120 (100.0%)	119 (99.2%)	1 (0.8%)	120 (100.0%)	120 (100.0%)	0 (0.0%)	120 (100.0%)
아산시	304 (99.3%)	2 (0.7%)	306 (100.0%)	304 (99.3%)	2 (0.7%)	306 (100.0%)	303 (99.3%)	2 (0.7%)	305 (100.0%)	306 (100.0%)	0 (0.0%)	306 (100.0%)	305 (99.7%)	1 (0.3%)	306 (100.0%)
서산시	219 (99.1%)	2 (0.9%)	221 (100.0%)	220 (99.5%)	1 (0.5%)	221 (100.0%)	221 (100.0%)	0 (0.0%)	221 (100.0%)	220 (99.5%)	1 (0.5%)	221 (100.0%)	221 (100.0%)	0 (0.0%)	221 (100.0%)
논산시	144 (100.0%)	0 (0.0%)	144 (100.0%)	143 (99.3%)	1 (0.7%)	144 (100.0%)	144 (100.0%)	0 (0.0%)	144 (100.0%)	144 (100.0%)	0 (0.0%)	144 (100.0%)	144 (100.0%)	0 (0.0%)	144 (100.0%)
계룡시	79 (100.0%)	0 (0.0%)	79 (100.0%)	79 (100.0%)	0 (0.0%)	79 (100.0%)	79 (100.0%)	0 (0.0%)	79 (100.0%)	79 (100.0%)	0 (0.0%)	79 (100.0%)	79 (100.0%)	0 (0.0%)	79 (100.0%)
당진시	196 (100.0%)	0 (0.0%)	196 (100.0%)	195 (100.0%)	0 (0.0%)	195 (100.0%)	196 (100.0%)	0 (0.0%)	196 (100.0%)	196 (100.0%)	0 (0.0%)	196 (100.0%)	196 (100.0%)	0 (0.0%)	196 (100.0%)
금산군	85 (100.0%)	0 (0.0%)	85 (100.0%)	85 (100.0%)	0 (0.0%)	85 (100.0%)	85 (100.0%)	0 (0.0%)	85 (100.0%)	85 (100.0%)	0 (0.0%)	85 (100.0%)	85 (100.0%)	0 (0.0%)	85 (100.0%)
부여군	110 (100.0%)	0 (0.0%)	110 (100.0%)	108 (98.2%)	2 (1.8%)	110 (100.0%)	110 (100.0%)	0 (0.0%)	110 (100.0%)	110 (100.0%)	0 (0.0%)	110 (100.0%)	110 (100.0%)	0 (0.0%)	110 (100.0%)
서천군	100 (100.0%)	0 (0.0%)	100 (100.0%)	100 (100.0%)	0 (0.0%)	100 (100.0%)	100 (100.0%)	0 (0.0%)	100 (100.0%)	100 (100.0%)	0 (0.0%)	100 (100.0%)	100 (100.0%)	0 (0.0%)	100 (100.0%)
청양군	163 (100.0%)	0 (0.0%)	163 (100.0%)	161 (98.8%)	2 (1.2%)	163 (100.0%)	163 (100.0%)	0 (0.0%)	163 (100.0%)	163 (100.0%)	0 (0.0%)	163 (100.0%)	163 (100.0%)	0 (0.0%)	163 (100.0%)
홍성군	100 (100.0%)	0 (0.0%)	100 (100.0%)	101 (100.0%)	0 (0.0%)	101 (100.0%)	101 (100.0%)	0 (0.0%)	101 (100.0%)	101 (100.0%)	0 (0.0%)	101 (100.0%)	101 (100.0%)	0 (0.0%)	101 (100.0%)
예산군	83 (100.0%)	0 (0.0%)	83 (100.0%)	81 (97.6%)	2 (2.4%)	83 (100.0%)	82 (98.8%)	1 (1.2%)	83 (100.0%)	82 (98.8%)	0 (0.0%)	82 (98.8%)	82 (98.8%)	1 (1.2%)	83 (100.0%)
태안군	93 (100.0%)	0 (0.0%)	93 (100.0%)	93 (100.0%)	0 (0.0%)	93 (100.0%)	93 (100.0%)	0 (0.0%)	93 (100.0%)	93 (100.0%)	0 (0.0%)	93 (100.0%)	92 (98.9%)	1 (1.1%)	93 (100.0%)
합계	2,790 (99.6%)	10 (0.4%)	2,800 (100.0%)	2,773 (99.0%)	27 (1.0%)	2,800 (100.0%)	2,794 (99.8%)	6 (0.2%)	2,800 (100.0%)	2,795 (99.8%)	5 (0.2%)	2,800 (100.0%)	2,798 (99.9%)	3 (0.1%)	2,801 (100.0%)

(2) 취약·위기청소년

시군별 취약·위기청소년의 학교폭력가해 위기 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학교폭력 가해 문제 중 신체폭력은 천안 5.3%, 언어폭력은 홍성군 33.3%, 당진시 10.0%, 천안시 2.6%순으로 나타났다으며, 따돌림은 천안시 2.6%로 나타났다.

표 70. 시군별 취약·위기청소년 학교폭력가해

(단위 : 명)

시군	신체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돈·물건빼앗음			사이버 폭력		
	해당 없음	해당 있음	전체	해당 없음	해당 있음	전체	해당 없음	해당 있음	전체	해당 없음	해당 있음	전체	해당 없음	해당 있음	전체
천안시	36 (94.7%)	2 (5.3%)	38 (100.0%)	37 (97.4%)	1 (2.6%)	38 (100.0%)	37 (97.4%)	1 (2.6%)	38 (100.0%)	38 (100.0%)	0 (0.0%)	38 (100.0%)	38 (100.0%)	0 (0.0%)	38 (100.0%)
공주시	7 (100.0%)	0 (0.0%)	7 (100.0%)	7 (100.0%)	0 (0.0%)	7 (100.0%)	7 (100.0%)	0 (0.0%)	7 (100.0%)	7 (100.0%)	0 (0.0%)	7 (100.0%)	7 (100.0%)	0 (0.0%)	7 (100.0%)
보령시	9 (100.0%)	0 (0.0%)	9 (100.0%)	9 (100.0%)	0 (0.0%)	9 (100.0%)	9 (100.0%)	0 (0.0%)	9 (100.0%)	9 (100.0%)	0 (0.0%)	9 (100.0%)	9 (100.0%)	0 (0.0%)	9 (100.0%)
아산시	15 (100.0%)	0 (0.0%)	15 (100.0%)	15 (100.0%)	0 (0.0%)	15 (100.0%)	15 (100.0%)	0 (0.0%)	15 (100.0%)	15 (100.0%)	0 (0.0%)	15 (100.0%)	15 (100.0%)	0 (0.0%)	15 (100.0%)
서산시	12 (100.0%)	0 (0.0%)	12 (100.0%)	12 (100.0%)	0 (0.0%)	12 (100.0%)	12 (100.0%)	0 (0.0%)	12 (100.0%)	12 (100.0%)	0 (0.0%)	12 (100.0%)	12 (100.0%)	0 (0.0%)	12 (100.0%)
논산시	10 (100.0%)	0 (0.0%)	10 (100.0%)	10 (100.0%)	0 (0.0%)	10 (100.0%)	10 (100.0%)	0 (0.0%)	10 (100.0%)	10 (100.0%)	0 (0.0%)	10 (100.0%)	10 (100.0%)	0 (0.0%)	10 (100.0%)
계룡시	3 (100.0%)	0 (0.0%)	3 (100.0%)	3 (100.0%)	0 (0.0%)	3 (100.0%)	3 (100.0%)	0 (0.0%)	3 (100.0%)	3 (100.0%)	0 (0.0%)	3 (100.0%)	3 (100.0%)	0 (0.0%)	3 (100.0%)
당진시	10 (100.0%)	0 (0.0%)	10 (100.0%)	9 (90.0%)	1 (10.0%)	10 (100.0%)	10 (100.0%)	0 (0.0%)	10 (100.0%)	10 (100.0%)	0 (0.0%)	10 (100.0%)	10 (100.0%)	0 (0.0%)	10 (100.0%)
금산군	6 (100.0%)	0 (0.0%)	6 (100.0%)	6 (100.0%)	0 (0.0%)	6 (100.0%)	6 (100.0%)	0 (0.0%)	6 (100.0%)	6 (100.0%)	0 (0.0%)	6 (100.0%)	6 (100.0%)	0 (0.0%)	6 (100.0%)
부여군	2 (100.0%)	0 (0.0%)	2 (100.0%)	2 (100.0%)	0 (0.0%)	2 (100.0%)	2 (100.0%)	0 (0.0%)	2 (100.0%)	2 (100.0%)	0 (0.0%)	2 (100.0%)	2 (100.0%)	0 (0.0%)	2 (100.0%)
서천군	10 (100.0%)	0 (0.0%)	10 (100.0%)	10 (100.0%)	0 (0.0%)	10 (100.0%)	9 (100.0%)	0 (0.0%)	9 (100.0%)	10 (100.0%)	0 (0.0%)	10 (100.0%)	10 (100.0%)	0 (0.0%)	10 (100.0%)
청양군	7 (100.0%)	0 (0.0%)	7 (100.0%)	7 (100.0%)	0 (0.0%)	7 (100.0%)	7 (100.0%)	0 (0.0%)	7 (100.0%)	7 (100.0%)	0 (0.0%)	7 (100.0%)	7 (100.0%)	0 (0.0%)	7 (100.0%)
홍성군	6 (100.0%)	0 (0.0%)	6 (100.0%)	4 (66.7%)	2 (33.3%)	6 (100.0%)	6 (100.0%)	0 (0.0%)	6 (100.0%)	6 (100.0%)	0 (0.0%)	6 (100.0%)	6 (100.0%)	0 (0.0%)	6 (100.0%)
예산군	1 (100.0%)	0 (0.0%)	1 (100.0%)	1 (100.0%)	0 (0.0%)	1 (100.0%)	1 (100.0%)	0 (0.0%)	1 (100.0%)	1 (100.0%)	0 (0.0%)	1 (100.0%)	1 (100.0%)	0 (0.0%)	1 (100.0%)
태안군	8 (100.0%)	0 (0.0%)	8 (100.0%)	8 (100.0%)	0 (0.0%)	8 (100.0%)	8 (100.0%)	0 (0.0%)	8 (100.0%)	8 (100.0%)	0 (0.0%)	8 (100.0%)	8 (100.0%)	0 (0.0%)	8 (100.0%)
합계	142 (96.6%)	2 (1.4%)	144 (100.0%)	140 (97.2%)	4 (2.8%)	144 (100.0%)	142 (99.3%)	1 (0.7%)	143 (100.0%)	144 (100.0%)	0 (0.0%)	144 (100.0%)	144 (100.0%)	0 (0.0%)	144 (100.0%)

나) 성별

(1) 일반학생

성별 일반학생 학교폭력가해 위기결과는 표 71과 같다.

표 71. 성별 일반학생 학교폭력가해

(단위 : 명)

성별	신체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돈,물건빼앗음			사이버 폭력		
	해당 없음	해당 있음	χ^2	해당 없음	해당 있음	χ^2	해당 없음	해당 있음	χ^2	해당 없음	해당 있음	χ^2	해당 없음	해당 있음	χ^2
남성	1.201 (43.1%)	5 (50.0%)		1.184 (42.7%)	21 (77.8%)		1.203 (43.1%)	2 (33.3%)		1.204 (43.1%)	2 (40.0%)		1.205 (43.1%)	1 (33.3%)	
여성	1.588 (56.9%)	5 (50.0%)	.196	1.588 (57.3%)	6 (22.2%)	13.41***	1.590 (56.9%)	4 (66.7%)	.232	1.590 (56.9%)	3 (60.0%)	.019	1.592 (56.9%)	2 (66.7%)	.116
전체	2.789 (100.0%)	10 (100.0%)		2.772 (100.0%)	27 (100.0%)		2.793 (100.0%)	6 (100.0%)		2.794 (100.0%)	5 (100.0%)		2.797 (100.0%)	3 (100.0%)	

* $p<0.05$, ** $p<0.01$, *** $p<0.001$

(2) 취약·위기청소년

성별 취약·위기청소년 학교폭력가해 위기결과는 표 72와 같다.

표 72. 성별 취약·위기청소년 학교폭력가해

(단위 : 명)

성별	신체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돈,물건빼앗음			사이버 폭력		
	해당 없음	해당 있음	χ^2	해당 없음	해당 있음	χ^2	해당 없음	해당 있음	χ^2	해당 없음	해당 있음	χ^2	해당 없음	해당 있음	χ^2
남성	66 (46.5%)	2 (100.0%)		65 (46.4%)	3 (75.0%)		67 (47.2%)	1 (100.0%)		68 (47.2%)	0 (0.0%)		68 (47.2%)	0 (0.0%)	
여성	76 (53.5%)	0 (0.0%)	2.267	75 (53.6%)	1 (25.0%)	1.274	75 (52.8%)	0 (0.0%)	1.111	76 (52.8%)	0 (0.0%)		76 (52.8%)	0 (0.0%)	
전체	142 (100.0%)	2 (100.0%)		140 (100.0%)	4 (100.0%)		142 (100.0%)	1 (100.0%)		144 (100.0%)	0 (0.0%)		144 (100.0%)	0 (0.0%)	

* $p<0.05$, ** $p<0.01$, *** $p<0.001$

다) 소속기관별

(1) 일반학생

소속기관 일반학생 학교폭력가해 위기결과는 표 73과 같다.

표 73. 소속기관 일반학생 학교폭력가해

(단위 : 명)

소속기관	신체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돈, 물건 빼앗음		사이버 폭력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초등학교	708 (25.4%)	4 (40.0%)	704 (25.4%)	8 (29.6%)	710 (25.4%)	2 (33.3%)	711 (25.4%)	1 (20.0%)	712 (25.4%)	0 (0.0%)
중학교	1,008 (36.1%)	1 (10.0%)	1,004 (36.2%)	6 (22.2%)	1,008 (36.1%)	2 (33.3%)	1,008 (36.1%)	2 (40.0%)	1,010 (36.1%)	0 (0.0%)
인문계고 등학교	831 (29.8%)	4 (40.0%)	823 (29.7%)	12 (44.4%)	832 (29.8%)	2 (33.3%)	833 (29.8%)	1 (20.0%)	832 (29.7%)	3 (100.0%)
전문계 (실업계) 고등학교	240 (8.6%)	1 (10.0%)	239 (8.6%)	1 (3.7%)	241 (8.6%)	0 (0.0%)	240 (8.6%)	1 (20.0%)	241 (8.6%)	0 (0.0%)
대안학교	4 (0.1%)	0 (0.0%)	4 (0.1%)	0 (0.0%)	4 (0.1%)	0 (0.0%)	4 (0.1%)	0 (0.0%)	4 (0.1%)	0 (0.0%)
전체	2,791 (100.0%)	10 (100.0%)	2,774 (100.0%)	27 (100.0%)	2,795 (100.0%)	6 (100.0%)	2,796 (100.0%)	5 (100.0%)	2,799 (100.0%)	3 (100.0%)

(2) 취약·위기청소년

소속기관 취약·위기청소년 학교폭력가해 위기결과는 표 74와 같다.

표 74. 소속기관 취약·위기청소년 학교폭력가해

(단위 : 명)

소속기관	신체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돈, 물건 빼앗음		사이버 폭력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검정고시 학원	9 (6.3%)	0 (0.0%)	9 (6.4%)	0 (0.0%)	9 (6.3%)	0 (0.0%)	9 (6.3%)	0 (0.0%)	9 (6.3%)	0 (0.0%)
직업학교	4 (2.8%)	1 (50.0%)	4 (2.9%)	1 (25.0%)	4 (2.8%)	1 (100.0%)	5 (3.5%)	0 (0.0%)	5 (3.5%)	0 (0.0%)
직업훈련기관	1 (0.7%)	0 (0.0%)	1 (0.7%)	0 (0.0%)	1 (0.7%)	0 (0.0%)	1 (0.7%)	0 (0.0%)	1 (0.7%)	0 (0.0%)
학교나 검정고시 학원에 다나지않음	12 (8.5%)	1 (50.0%)	13 (9.3%)	0 (0.0%)	13 (9.2%)	0 (0.0%)	13 (9.0%)	0 (0.0%)	13 (9.0%)	0 (0.0%)
꿈드림 센터	116 (81.7%)	0 (0.0%)	113 (80.7%)	3 (75.0%)	115 (81.0%)	0 (0.0%)	116 (80.6%)	0 (0.0%)	116 (80.6%)	0 (0.0%)
전체	142 (100.0%)	2 (100.0%)	140 (100.0%)	4 (100.0%)	142 (100.0%)	1 (100.0%)	144 (100.0%)	0 (0.0%)	144 (100.0%)	0 (0.0%)

라) 가정경제수준별

(1) 일반학생

가정경제수준별 일반학생 학교폭력가해 위기결과는 표75와 같다.

표 75. 가정경제수준별 일반학생 학교폭력가해

(단위 : 명)

가정 경제수준	신체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돈, 물건 빼앗음		사이버 폭력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매우 어려운편	10 (0.4%)	0 (0.0%)	9 (0.3%)	1 (3.7%)	10 (0.4%)	0 (0.0%)	10 (0.4%)	0 (0.0%)	10 (0.4%)	0 (0.0%)
어려운편	142 (5.1%)	2 (20.0%)	141 (5.1%)	3 (11.1%)	143 (5.1%)	1 (16.7%)	144 (5.2%)	0 (0.0%)	143 (5.1%)	1 (33.3%)
보통	1,886 (67.6%)	7 (70.0%)	1,878 (67.8%)	14 (51.9%)	1,889 (67.7%)	3 (50.0%)	1,891 (67.7%)	1 (20.0%)	1,891 (67.6%)	2 (66.7%)
잘사는편	654 (23.5%)	1 (10.0%)	648 (23.4%)	8 (29.6%)	654 (23.4%)	2 (33.3%)	653 (23.4%)	3 (60.0%)	656 (23.5%)	0 (0.0%)
매우 잘사는편	96 (3.4%)	0 (0.0%)	95 (3.4%)	1 (3.7%)	96 (3.4%)	0 (0.0%)	95 (3.4%)	1 (20.0%)	96 (3.4%)	0 (0.0%)
전체	2,788 (100.0%)	10 (100.0%)	2,771 (100.0%)	27 (100.0%)	2,792 (100.0%)	6 (100.0%)	2,793 (100.0%)	5 (100.0%)	2,796 (100.0%)	3 (100.0%)

(2) 취약·위기청소년

가정경제수준별 취약·위기청소년 학교폭력가해 위기결과는 표76과 같다.

표 76. 가정경제수준별 취약·위기청소년 학교폭력가해

(단위 : 명)

가정 경제수준	신체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돈, 물건빼앗음		사이버 폭력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매우 어려운 편	3 (2.1%)	1 (50.0%)	3 (2.1%)	1 (25.0%)	3 (2.1%)	1 (100.0%)	4 (2.8%)	0 (0.0%)	4 (2.8%)	0 (0.0%)
어려운 편	26 (18.3%)	0 (0.0%)	26 (18.6%)	0 (0.0%)	26 (18.3%)	0 (0.0%)	26 (18.1%)	0 (0.0%)	26 (18.1%)	0 (0.0%)
보통	98 (69.0%)	1 (50.0%)	96 (68.6%)	3 (75.0%)	98 (69.0%)	0 (0.0%)	99 (68.8%)	0 (0.0%)	99 (68.8%)	0 (0.0%)
잘사는 편	14 (9.9%)	0 (0.0%)	14 (10.0%)	0 (0.0%)	14 (9.9%)	0 (0.0%)	14 (9.7%)	0 (0.0%)	14 (9.7%)	0 (0.0%)
매우 잘사는 편	1 (0.7%)	0 (0.0%)	1 (0.7%)	0 (0.0%)	1 (0.7%)	0 (0.0%)	1 (0.7%)	0 (0.0%)	1 (0.7%)	0 (0.0%)
전체	142 (100.0%)	2 (100.0%)	140 (100.0%)	4 (100.0%)	142 (100.0%)	1 (100.0%)	144 (100.0%)	0 (0.0%)	144 (100.0%)	0 (0.0%)

6) 비행

가) 시군별

(1) 일반학생

시군별 일반학생의 비행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모든 지역에서 비행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의 비율이 99%이상, 해당하는 학생의 비율이 0.1%로 나타났다.

표 77. 시군별 일반학생 비행

시군	(단위 : 명)					
	갈취			절도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천안시	813 (99.9%)	1 (0.1%)	814 (100.0%)	813 (99.9%)	1 (0.1%)	814 (100.0%)
공주시	186 (100.0%)	0 (0.0%)	186 (100.0%)	185 (99.5%)	1 (0.5%)	186 (100.0%)
보령시	120 (100.0%)	0 (0.0%)	120 (100.0%)	119 (99.2%)	1 (0.8%)	120 (100.0%)
아산시	306 (100.0%)	0 (0.0%)	306 (100.0%)	306 (100.0%)	0 (0.0%)	306 (100.0%)
서산시	220 (99.5%)	1 (0.5%)	221 (100.0%)	220 (99.5%)	1 (0.5%)	221 (100.0%)
논산시	144 (100.0%)	0 (0.0%)	144 (100.0%)	144 (100.0%)	0 (0.0%)	144 (100.0%)
계룡시	79 (100.0%)	0 (0.0%)	79 (100.0%)	79 (100.0%)	0 (0.0%)	79 (100.0%)
당진시	196 (100.0%)	0 (0.0%)	196 (100.0%)	196 (100.0%)	0 (0.0%)	196 (100.0%)
금산군	85 (100.0%)	0 (0.0%)	85 (100.0%)	85 (100.0%)	0 (0.0%)	85 (100.0%)
부여군	110 (100.0%)	0 (0.0%)	110 (100.0%)	110 (100.0%)	0 (0.0%)	110 (100.0%)
서천군	100 (100.0%)	0 (0.0%)	100 (100.0%)	100 (100.0%)	0 (0.0%)	100 (100.0%)
청양군	163 (100.0%)	0 (0.0%)	163 (100.0%)	163 (100.0%)	0 (0.0%)	163 (100.0%)
홍성군	101 (100.0%)	0 (0.0%)	101 (100.0%)	101 (100.0%)	0 (0.0%)	101 (100.0%)
예산군	83 (100.0%)	0 (0.0%)	83 (100.0%)	83 (100.0%)	0 (0.0%)	83 (100.0%)
태안군	93 (100.0%)	0 (0.0%)	93 (100.0%)	93 (100.0%)	0 (0.0%)	93 (100.0%)
합계	2,799 (99.9%)	2 (0.1%)	2,801 (100.0%)	2,797 (99.9%)	4 (0.1%)	2,801 (100.0%)

(2) 취약·위기청소년

시군별 취약·위기청소년의 비행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모든 지역에서 비행 문제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8. 시군별 취약·위기청소년 비행

(단위 : 명)

시군	갈취			절도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천안시	38 (100.0%)	0 (0.0%)	38 (100.0%)	38 (100.0%)	0 (0.0%)	38 (100.0%)
공주시	7 (100.0%)	0 (0.0%)	7 (100.0%)	7 (100.0%)	0 (0.0%)	7 (100.0%)
보령시	9 (100.0%)	0 (0.0%)	9 (100.0%)	9 (100.0%)	0 (0.0%)	9 (100.0%)
아산시	15 (100.0%)	0 (0.0%)	15 (100.0%)	15 (100.0%)	0 (0.0%)	15 (100.0%)
서산시	12 (100.0%)	0 (0.0%)	12 (100.0%)	12 (100.0%)	0 (0.0%)	12 (100.0%)
논산시	10 (100.0%)	0 (0.0%)	10 (100.0%)	10 (100.0%)	0 (0.0%)	10 (100.0%)
계룡시	3 (100.0%)	0 (0.0%)	3 (100.0%)	3 (100.0%)	0 (0.0%)	3 (100.0%)
당진시	10 (100.0%)	0 (0.0%)	10 (100.0%)	10 (100.0%)	0 (0.0%)	10 (100.0%)
금산군	6 (100.0%)	0 (0.0%)	6 (100.0%)	6 (100.0%)	0 (0.0%)	6 (100.0%)
부여군	2 (100.0%)	0 (0.0%)	2 (100.0%)	2 (100.0%)	0 (0.0%)	2 (100.0%)
서천군	10 (100.0%)	0 (0.0%)	10 (100.0%)	10 (100.0%)	0 (0.0%)	10 (100.0%)
청양군	7 (100.0%)	0 (0.0%)	7 (100.0%)	7 (100.0%)	0 (0.0%)	7 (100.0%)
홍성군	6 (100.0%)	0 (0.0%)	6 (100.0%)	6 (100.0%)	0 (0.0%)	6 (100.0%)
예산군	1 (100.0%)	0 (0.0%)	1 (100.0%)	1 (100.0%)	0 (0.0%)	1 (100.0%)
태안군	8 (100.0%)	0 (0.0%)	8 (100.0%)	8 (100.0%)	0 (0.0%)	8 (100.0%)
합계	144 (100.0%)	0 (0.0%)	144 (100.0%)	144 (100.0%)	0 (0.0%)	144 (100.0%)

나) 성별

(1) 일반학생

성별 일반학생의 비행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79. 성별 일반학생 비행

(단위 : 명)

성별	갈취		χ^2	절도		χ^2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남성	1,205 (43.1%)	1 (50.0%)	.039	1,203 (43.0%)	3 (75.0%)	1.665
여성	1,593 (56.9%)	1 (50.0%)		1,593 (57.0%)	1 (25.0%)	
전체	2,798 (100.0%)	2 (100.0%)		2,796 (100.0%)	4 (100.0%)	

* $p < 0.05$, ** $p < 0.01$, *** $p < 0.001$

(2) 취약·위기청소년

성별 취약·위기청소년의 비행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비행문제 중 갈취문제와 절도문제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없었다.

표 80. 성별 취약·위기청소년 비행

(단위 : 명)

성별	갈취		χ^2	절도		χ^2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남성	68 (47.2%)	0 (0.0%)		68 (47.2%)	0 (0.0%)	
여성	76 (52.8%)	0 (0.0%)		76 (52.8%)	0 (0.0%)	
전체	144 (100.0%)	0 (0.0%)		144 (100.0%)	0 (0.0%)	

* $p < 0.05$, ** $p < 0.01$, *** $p < 0.001$

다) 소속기관별

(1) 일반학생

소속기관별 일반학생의 비행 위기결과는 표81과 같다.

표 81. 소속기관 일반학생 비행

(단위 : 명)

소속기관	갈취		절도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초등학교	711 (25.4%)	1 (50.0%)	711 (25.4%)	1 (25.0%)
중학교	1,010 (36.1%)	0 (0.0%)	1,010 (36.1%)	0 (0.0%)
인문계 고등학교	835 (29.8%)	0 (0.0%)	833 (29.8%)	2 (50.0%)
전문계 (실업계) 고등학교	240 (8.6%)	1 (50.0%)	240 (8.6%)	1 (25.0%)
대안학교	4 (0.1%)	0 (0.0%)	4 (0.1%)	0 (0.0%)
전체	2,800 (100.0%)	2 (100.0%)	2,798 (100.0%)	4 (100.0%)

(2) 취약·위기청소년

소속기관별 취약·위기청소년의 비행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비행문제 중 갈취문제와 절도문제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없었다.

표 82. 소속기관 취약·위기청소년 비행

(단위 : 명)

소속기관	갈취		절도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초등학교	9 (6.3%)	0 (0.0%)	9 (6.3%)	0 (0.0%)
중학교	5 (3.5%)	0 (0.0%)	5 (3.5%)	0 (0.0%)
인문계고등학교	1 (0.7%)	0 (0.0%)	1 (0.7%)	0 (0.0%)
전문계 (실업계)고등학교	13 (9.0%)	0 (0.0%)	13 (9.0%)	0 (0.0%)
대안학교	116 (80.6%)	0 (0.0%)	116 (80.6%)	0 (0.0%)
전체	144 (100.0%)	0 (0.0%)	144 (100.0%)	0 (0.0%)

라) 가정경제수준별

(1) 일반학생

가정경제수준별 일반학생의 비행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비행문제 중 갈취문제와 절도문제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가정경제수준이 '보통', '잘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각각 50%로 나타났다.

표 83. 가정경제수준별 일반학생 비행

가정 경제수준	갈취		절도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매우 어려운 편	10 (0.4%)	0 (0.0%)	10 (0.4%)	0 (0.0%)
어려운 편	144 (5.1%)	0 (0.0%)	144 (5.2%)	0 (0.0%)
보통	1,892 (67.6%)	1 (50.0%)	1,891 (67.7%)	2 (50.0%)
잘사는 편	655 (23.4%)	1 (50.0%)	654 (23.4%)	2 (50.0%)
매우 잘사는 편	96 (3.4%)	0 (0.0%)	96 (3.4%)	0 (0.0%)
전체	2,797 (100.0%)	2 (100.0%)	2,795 (100.0%)	4 (100.0%)

(2) 취약·위기청소년

가정경제수준별 취약·위기청소년의 비행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비행문제 중 갈취문제와 절도문제에 해당하는 학생이 없었다.

표 84. 가정경제수준별 취약·위기청소년 비행

가정 경제수준	갈취		절도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매우 어려운 편	4 (2.8%)	0 (0.0%)	4 (2.8%)	0 (0.0%)
어려운 편	26 (18.1%)	0 (0.0%)	26 (18.1%)	0 (0.0%)
보통	99 (68.8%)	0 (0.0%)	99 (68.8%)	0 (0.0%)
잘사는 편	14 (9.7%)	0 (0.0%)	14 (9.7%)	0 (0.0%)
매우 잘사는 편	1 (0.7%)	0 (0.0%)	1 (0.7%)	0 (0.0%)
전체	144 (100.0%)	0 (0.0%)	144 (100.0%)	0 (0.0%)

7) 학대

가) 시군별

(1) 일반학생

시군별 일반학생의 학대·방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모든 지역에서 학대·방임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의 비율이 90%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85. 시군별 일반학생 학대·방임

(단위 : 명)

시군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천안시	810 (99.8%)	2 (0.2%)	812 (100.0%)	807 (99.3%)	6 (0.7%)	813 (100.0%)	812 (99.8%)	2 (0.2%)	814 (100.0%)
공주시	186 (100.0%)	0 (0.0%)	186 (100.0%)	184 (98.9%)	2 (1.1%)	186 (100.0%)	186 (100.0%)	0 (0.0%)	186 (100.0%)
보령시	119 (99.2%)	1 (0.8%)	120 (100.0%)	117 (97.5%)	3 (2.5%)	120 (100.0%)	119 (99.2%)	1 (0.8%)	120 (100.0%)
아산시	304 (99.3%)	2 (0.7%)	306 (100.0%)	301 (98.4%)	5 (1.6%)	306 (100.0%)	306 (100.0%)	0 (0.0%)	306 (100.0%)
서산시	220 (99.5%)	1 (0.5%)	221 (100.0%)	219 (99.1%)	2 (0.9%)	221 (100.0%)	220 (99.5%)	1 (0.5%)	221 (100.0%)
논산시	143 (99.3%)	1 (0.7%)	144 (100.0%)	144 (100.0%)	0 (0.0%)	144 (100.0%)	144 (100.0%)	0 (0.0%)	144 (100.0%)
계룡시	79 (100.0%)	0 (0.0%)	79 (100.0%)	79 (100.0%)	0 (0.0%)	79 (100.0%)	79 (100.0%)	0 (0.0%)	79 (100.0%)
당진시	196 (100.0%)	0 (0.0%)	196 (100.0%)	194 (99.0%)	2 (1.0%)	196 (100.0%)	196 (100.0%)	0 (0.0%)	196 (100.0%)
금산군	83 (97.6%)	2 (2.4%)	85 (100.0%)	84 (98.8%)	1 (1.2%)	85 (100.0%)	85 (100.0%)	0 (0.0%)	85 (100.0%)
부여군	110 (100.0%)	0 (0.0%)	110 (100.0%)	110 (100.0%)	0 (0.0%)	110 (100.0%)	110 (100.0%)	0 (0.0%)	110 (100.0%)
서천군	100 (100.0%)	0 (0.0%)	100 (100.0%)	100 (100.0%)	0 (0.0%)	100 (100.0%)	100 (100.0%)	0 (0.0%)	100 (100.0%)
청양군	163 (100.0%)	0 (0.0%)	163 (100.0%)	163 (100.0%)	0 (0.0%)	163 (100.0%)	163 (100.0%)	0 (0.0%)	163 (100.0%)
홍성군	101 (100.0%)	0 (0.0%)	101 (100.0%)	101 (100.0%)	0 (0.0%)	101 (100.0%)	101 (100.0%)	0 (0.0%)	101 (100.0%)
예산군	83 (100.0%)	0 (0.0%)	83 (100.0%)	82 (98.8%)	1 (1.2%)	83 (100.0%)	83 (100.0%)	0 (0.0%)	83 (100.0%)
태안군	93 (100.0%)	0 (0.0%)	93 (100.0%)	93 (100.0%)	0 (0.0%)	93 (100.0%)	93 (100.0%)	0 (0.0%)	93 (100.0%)
합계	2,790 (99.7%)	9 (0.3%)	2,799 (100.0%)	2,778 (99.2%)	22 (0.8%)	2,800 (100.0%)	2,797 (99.9%)	4 (0.1%)	2,801 (100.0%)

(2) 취약·위기청소년

시군별 취약·위기청소년의 학대·방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모든 지역에서 학대·방임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의 비율이 80%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86. 시군별 취약·위기청소년 학대·방임

(단위 : 명)

시군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천안시	35 (97.2%)	1 (2.8%)	36 (100.0%)	35 (92.1%)	3 (7.9%)	38 (100.0%)	37 (97.4%)	1 (2.6%)	38 (100.0%)
공주시	6 (85.7%)	1 (14.3%)	7 (100.0%)	6 (85.7%)	1 (14.3%)	7 (100.0%)	7 (100.0%)	0 (0.0%)	7 (100.0%)
보령시	9 (100.0%)	0 (0.0%)	9 (100.0%)	9 (100.0%)	0 (0.0%)	9 (100.0%)	9 (100.0%)	0 (0.0%)	9 (100.0%)
아산시	15 (100.0%)	0 (0.0%)	15 (100.0%)	15 (100.0%)	0 (0.0%)	15 (100.0%)	14 (93.3%)	1 (6.7%)	15 (100.0%)
서산시	12 (100.0%)	0 (0.0%)	12 (100.0%)	12 (100.0%)	0 (0.0%)	12 (100.0%)	12 (100.0%)	0 (0.0%)	12 (100.0%)
논산시	10 (100.0%)	0 (0.0%)	10 (100.0%)	10 (100.0%)	0 (0.0%)	10 (100.0%)	10 (100.0%)	0 (0.0%)	10 (100.0%)
계룡시	3 (100.0%)	0 (0.0%)	3 (100.0%)	3 (100.0%)	0 (0.0%)	3 (100.0%)	3 (100.0%)	0 (0.0%)	3 (100.0%)
당진시	10 (100.0%)	0 (0.0%)	10 (100.0%)	10 (100.0%)	0 (0.0%)	10 (100.0%)	10 (100.0%)	0 (0.0%)	10 (100.0%)
금산군	6 (100.0%)	0 (0.0%)	6 (100.0%)	6 (100.0%)	0 (0.0%)	6 (100.0%)	6 (100.0%)	0 (0.0%)	6 (100.0%)
부여군	2 (100.0%)	0 (0.0%)	2 (100.0%)	2 (100.0%)	0 (0.0%)	2 (100.0%)	2 (100.0%)	0 (0.0%)	2 (100.0%)
서천군	10 (100.0%)	0 (0.0%)	10 (100.0%)	10 (100.0%)	0 (0.0%)	10 (100.0%)	10 (100.0%)	0 (0.0%)	10 (100.0%)
청양군	7 (100.0%)	0 (0.0%)	7 (100.0%)	7 (100.0%)	0 (0.0%)	7 (100.0%)	7 (100.0%)	0 (0.0%)	7 (100.0%)
홍성군	6 (100.0%)	0 (0.0%)	6 (100.0%)	6 (100.0%)	0 (0.0%)	6 (100.0%)	6 (100.0%)	0 (0.0%)	6 (100.0%)
예산군	1 (100.0%)	0 (0.0%)	1 (100.0%)	1 (100.0%)	0 (0.0%)	1 (100.0%)	1 (100.0%)	0 (0.0%)	1 (100.0%)
태안군	8 (100.0%)	0 (0.0%)	8 (100.0%)	7 (100.0%)	0 (0.0%)	7 (100.0%)	8 (100.0%)	0 (0.0%)	8 (100.0%)
합계	140 (98.6%)	2 (1.4%)	142 (100.0%)	139 (97.2%)	4 (2.8%)	143 (100.0%)	142 (98.6%)	2 (1.4%)	144 (100.0%)

나) 성별

(1) 일반학생

성별 일반학생의 학대·방임 위기결과 남성은 신체적 학대 0.3%, 정서적 학대 0.8%, 방임 0.1%로 나타났고, 여성은 신체적학대 0.3%, 정서적 학대 0.8%, 방임 0.2% 나타났다.

표 87. 성별 일반학생 학대·방임

(단위 : 명)

성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남성	1,200 (99.7%)	4 (0.3%)	1,204 (100%)	1,196 (99.2%)	10 (0.8%)	1,206 (100%)	1,205 (99.9%)	1 (0.1%)	1,206 (100%)
여성	1,589 (99.7%)	5 (0.3%)	1,594 (100%)	1,581 (99.2%)	12 (0.8%)	1,593 (100%)	1,591 (99.8%)	3 (0.2%)	1,594 (100%)

(2) 취약·위기청소년

성별 취약·위기청소년의 학대·방임 위기결과 남성은 정서적 학대 0.3%, 방임 1.5%로 나타났고, 여성은 신체적학대 2.7%, 정서적 학대 2.7%로 나타났다.

표 88. 성별 취약·위기청소년 학대·방임

(단위 : 명)

성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남성	68 (100%)	0 (0.0%)	68 (100%)	65 (97.0%)	2 (3.0%)	67 (100%)	67 (98.5%)	1 (1.5%)	68 (100%)
여성	74 (97.3%)	2 (2.7%)	76 (100%)	74 (97.3%)	2 (2.7%)	76 (100%)	76 (100%)	0 (0.0%)	76 (100%)

다) 소속기관별

(1) 일반학생

소속기관별 일반학생의 학대·방임 위기결과는 표89와 같다.

표 89. 소속기관별 일반학생 학대·방임

(단위 : 명)

소속기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초등학교	706 (25.3%)	5 (55.6%)	703 (25.3%)	8 (36.4%)	712 (25.4%)	0 (0.0%)
중학교	1,010 (36.2%)	0 (0.0%)	1,005 (36.2%)	5 (22.7%)	1,009 (36.1%)	1 (25.0%)
인문계 고등학교	831 (29.8%)	3 (33.3%)	828 (29.8%)	7 (31.8%)	833 (29.8%)	2 (50.0%)
전문계 (실업계) 고등학교	240 (8.6%)	1 (11.1%)	239 (8.6%)	2 (9.1%)	240 (8.6%)	1 (25.0%)
대안학교	4 (0.1%)	0 (0.0%)	4 (0.1%)	0 (0.0%)	4 (0.1%)	0 (0.0%)
전체	2,791 (100.0%)	9 (100.0%)	2,779 (100.0%)	22 (100.0%)	2,798 (100.0%)	4 (100.0%)

(2) 취약·위기청소년

소속기관별 취약·위기청소년의 학대·방임 위기결과는 표90과 같다.

표 90. 소속기관별 취약·위기청소년 학대·방임

(단위 : 명)

소속기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초등학교	9 (6.3%)	0 (0.0%)	8 (5.8%)	0 (0.0%)	9 (6.3%)	0 (0.0%)
중학교	5 (3.5%)	0 (0.0%)	4 (2.9%)	1 (25.0%)	5 (3.5%)	0 (0.0%)
인문계 고등학교	1 (0.7%)	0 (0.0%)	1 (0.7%)	0 (0.0%)	1 (0.7%)	0 (0.0%)
전문계 (실업계) 고등학교	13 (9.2%)	0 (0.0%)	12 (8.6%)	1 (25.0%)	13 (9.1%)	0 (0.0%)
대안학교	114 (80.3%)	2 (100.0%)	114 (82.0%)	2 (50.0%)	115 (80.4%)	1 (100.0%)
전체	142 (100.0%)	2 (100.0%)	139 (100.0%)	4 (100.0%)	143 (100.0%)	1 (100.0%)

라) 가정경제수준별

(1) 일반학생

가정경제수준별 일반학생의 학대·방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학대·방임문제 중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는 가정경제수준이 '보통'인 경우가 각각 44.4%, 72.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어려운 편'인 경우가 각각 33.3%, 18.2%순으로 나타났다. 방임문제의 경우 '어려운 편', '보통', '잘사는 편', '매우 잘사는 편'이 각각 25%로 나타났다.

표 91. 가정경제수준별 일반학생 학대·방임

(단위 : 명)

가정경제 수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매우 어려운 편	9 (0.3%)	1 (11.1%)	9 (0.3%)	1 (4.5%)	10 (0.4%)	0 (0.0%)
어려운 편	141 (5.1%)	3 (33.3%)	140 (5.0%)	4 (18.2%)	143 (5.1%)	1 (25.0%)
보통	1,887 (67.7%)	4 (44.4%)	1,877 (67.6%)	16 (72.7%)	1,892 (67.7%)	1 (25.0%)
잘사는 편	655 (23.5%)	1 (11.1%)	654 (23.6%)	1 (4.5%)	655 (23.4%)	1 (25.0%)
매우 잘사는 편	96 (3.4%)	0 (0.0%)	96 (3.5%)	0 (0.0%)	95 (3.4%)	1 (25.0%)
전체	2,788 (100.0%)	9 (100.0%)	2,776 (100.0%)	22 (100.0%)	2,795 (100.0%)	4 (100.0%)

(2) 취약·위기청소년

가정경제수준별 취약·위기청소년의 학대·방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학대·방임문제 중 신체적 학대문제는 '어려운 편'과 '잘사는 편'에 해당하는 학생의 비율이 각각 50%, 정서적 학대문제는 '보통'이 50%, 그 다음으로 '매우 어려운편'과 '잘사는 편'이 각각 25%순으로 나타났고, 방임의 경우 '잘사는 편'이 100%로 나타났다.

표 92. 가정경제수준별 취약·위기청소년 학대·방임

(단위 : 명)

가정경제 수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매우 어려운 편	4 (2.8%)	0 (0.0%)	3 (2.2%)	1 (25.0%)	4 (2.8%)	0 (0.0%)
어려운 편	25 (17.6%)	1 (50.0%)	26 (18.7%)	0 (0.0%)	26 (18.2%)	0 (0.0%)
보통	99 (69.7%)	0 (0.0%)	96 (69.1%)	2 (50.0%)	99 (69.2%)	0 (0.0%)
잘사는 편	13 (9.2%)	1 (50.0%)	13 (9.4%)	1 (25.0%)	13 (9.1%)	1 (100.0%)
매우 잘사는 편	1 (0.7%)	0 (0.0%)	1 (0.7%)	0 (0.0%)	1 (0.7%)	0 (0.0%)
전체	142 (100.0%)	2 (100.0%)	139 (100.0%)	4 (100.0%)	143 (100.0%)	1 (100.0%)

8) 자살

가) 시군별

(1) 일반학생

시군별 일반학생의 자살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자살문제 중 자살계획은 보령시 5.0%, 공주시 4.3%, 홍성군 3.0%, 자살시도는 보령시 10.8%, 아산시 7.2%, 공주시, 서천군 7.0%순으로 나타났다.

표 93. 시군별 일반학생 자살

(단위 : 명)

시군	자살계획			자살시도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천안시	801 (98.4%)	13 (1.6%)	814 (100.0%)	778 (95.6%)	36 (4.4%)	814 (100.0%)
공주시	178 (95.7%)	8 (4.3%)	186 (100.0%)	172 (93.0%)	13 (7.0%)	185 (100.0%)
보령시	114 (95.0%)	6 (5.0%)	120 (100.0%)	107 (89.2%)	13 (10.8%)	120 (100.0%)
아산시	302 (98.7%)	4 (1.3%)	306 (100.0%)	284 (92.8%)	22 (7.2%)	306 (100.0%)
서산시	220 (99.5%)	1 (0.5%)	221 (100.0%)	211 (95.5%)	10 (4.5%)	221 (100.0%)
논산시	141 (97.9%)	3 (2.1%)	144 (100.0%)	142 (98.6%)	2 (1.4%)	144 (100.0%)
계룡시	78 (98.7%)	1 (1.3%)	79 (100.0%)	76 (96.2%)	3 (3.8%)	79 (100.0%)
당진시	191 (97.4%)	5 (2.6%)	196 (100.0%)	185 (94.4%)	11 (5.6%)	196 (100.0%)
금산군	84 (98.8%)	1 (1.2%)	85 (100.0%)	80 (94.1%)	5 (5.9%)	85 (100.0%)
부여군	108 (98.2%)	2 (1.8%)	110 (100.0%)	104 (94.5%)	6 (5.5%)	110 (100.0%)
서천군	99 (99.0%)	1 (1.0%)	100 (100.0%)	93 (93.0%)	7 (7.0%)	100 (100.0%)
청양군	162 (99.4%)	1 (0.6%)	163 (100.0%)	157 (96.3%)	6 (3.7%)	163 (100.0%)
홍성군	98 (97.0%)	3 (3.0%)	101 (100.0%)	96 (95.0%)	5 (5.0%)	101 (100.0%)
예산군	81 (97.6%)	2 (2.4%)	83 (100.0%)	78 (94.0%)	5 (6.0%)	83 (100.0%)
태안군	92 (98.9%)	1 (1.1%)	93 (100.0%)	88 (94.6%)	5 (5.4%)	93 (100.0%)
합계	2,749 (98.1%)	52 (1.9%)	2,801 (100.0%)	2,651 (94.7%)	149 (5.3%)	2,800 (100.0%)

(2) 취약·위기청소년

시군별 취약·위기청소년의 자살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자살문제 중 자살계획은 태안군 25.0%, 논산시 20.0%, 금산군 16.7%, 자살시도는 보령시 33.3%, 논산시, 당진시 각각 30.0%로 나타났다.

표 94. 시군별 취약·위기청소년 자살

(단위 : 명)

시군	자살계획			자살시도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천안시	34 (89.5%)	4 (10.5%)	38 (100.0%)	33 (89.2%)	4 (10.8%)	37 (100.0%)
공주시	7 (100.0%)	0 (0.0%)	7 (100.0%)	6 (85.7%)	1 (14.3%)	7 (100.0%)
보령시	8 (88.9%)	1 (11.1%)	9 (100.0%)	6 (66.7%)	3 (33.3%)	9 (100.0%)
아산시	13 (86.7%)	2 (13.3%)	15 (100.0%)	14 (93.3%)	1 (6.7%)	15 (100.0%)
서산시	12 (100.0%)	0 (0.0%)	12 (100.0%)	10 (83.3%)	2 (16.7%)	12 (100.0%)
논산시	8 (80.0%)	2 (20.0%)	10 (100.0%)	7 (70.0%)	3 (30.0%)	10 (100.0%)
계룡시	3 (100.0%)	0 (0.0%)	3 (100.0%)	3 (100.0%)	0 (0.0%)	3 (100.0%)
당진시	10 (100.0%)	0 (0.0%)	10 (100.0%)	7 (70.0%)	3 (30.0%)	10 (100.0%)
금산군	5 (83.3%)	1 (16.7%)	6 (100.0%)	6 (100.0%)	0 (0.0%)	6 (100.0%)
부여군	2 (100.0%)	0 (0.0%)	2 (100.0%)	2 (100.0%)	0 (0.0%)	2 (100.0%)
서천군	10 (100.0%)	0 (0.0%)	10 (100.0%)	10 (100.0%)	0 (0.0%)	10 (100.0%)
청양군	7 (100.0%)	0 (0.0%)	7 (100.0%)	7 (100.0%)	0 (0.0%)	7 (100.0%)
홍성군	6 (100.0%)	0 (0.0%)	6 (100.0%)	6 (100.0%)	0 (0.0%)	6 (100.0%)
예산군	1 (100.0%)	0 (0.0%)	1 (100.0%)	1 (100.0%)	0 (0.0%)	1 (100.0%)
태안군	6 (75.0%)	2 (25.0%)	8 (100.0%)	7 (87.5%)	1 (12.5%)	8 (100.0%)
합계	132 (91.7%)	12 (8.3%)	144 (100.0%)	125 (87.4%)	18 (12.6%)	143 (100.0%)

나) 성별

(1) 일반학생

성별 일반학생의 자살 위기결과는 표95와 같다. 자살계획은 남성 1.5%, 여성 2.1%, 자살시도는 남성 3.7%, 여성 6.5%로 나타났다. 자살계획보다 자살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남성보다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표 95. 성별 일반학생 자살

(단위 : 명)

성별	자살계획			자살시도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남성	1,188 (98.5%)	18 (1.5%)	1,206 (100%)	1,160 (96.3%)	45 (3.7%)	1,205 (100%)
여성	1,560 (97.9%)	34 (2.1%)	1,594 (100%)	1,490 (93.5%)	104 (6.5%)	1,594 (100%)

(2) 취약·위기청소년

성별 취약·위기청소년의 자살 위기결과 표96와 같다. 자살계획은 남성 5.9%, 여성 10.5%, 자살시도는 남성 10.4%, 여성 14.5%로 나타났다. 자살계획보다 자살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남성보다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표 96. 성별 취약·위기청소년 자살

(단위 : 명)

성별	자살계획			자살시도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남성	64 (94.1%)	4 (5.9%)	68 (100%)	60 (89.6%)	7 (10.4%)	67 (100%)
여성	68 (89.5%)	8 (10.5%)	76 (100%)	65 (85.5%)	11 (14.5%)	76 (100%)

다) 소속기관별

(1) 일반학생

소속기관별 일반학생의 자살 위기결과는 표97과 같다. 자살 계획은 인문계 고등학교 2.5%, 초등학교 2.2%, 중학교 1.1%순으로 나타났고, 자살시도는 전문계(실업계)고등학교 7.1%, 인문계고등학교 5.5%, 중학교 5.0%, 초등학교 4.9%순으로 나타났다.

표 97. 소속기관 일반학생 자살

(단위 : 명)

소속기관	자살계획			자살시도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초등학교	696 (97.8%)	16 (2.2%)	712 (100%)	677 (95.1%)	35 (4.9%)	712 (100%)
중학교	999 (98.9%)	11 (1.1%)	1,010 (100%)	959 (95.0%)	51 (5.0%)	1,010 (100%)
인문계 고등학교	814 (97.5%)	21 (2.5%)	835 (100%)	788 (94.5%)	46 (5.5%)	834 (100%)
전문계 (실업계) 고등학교	237 (98.3%)	4 (1.7%)	241 (100%)	224 (92.9%)	17 (7.1%)	241 (100%)
대안학교	4 (100%)	0 (0.0%)	4 (100%)	4 (100%)	0 (0.0%)	4 (100%)

(2) 취약·위기청소년

소속기관별 취약·위기청소년의 자살 위기결과는 표98과 같다. 검정고시학원은 자살계획 11.1%로 나타났고, 직업학교는 자살계획 20.0%, 자살시도 20.0%, 학교나 검정고시 학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자살시도 7.7%로 나타났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센터는 자살 계획 8.6%, 자살시도 13.9%로 나타났다.

표 98. 소속기관 취약·위기청소년 자살

(단위 : 명)

소속기관	자살계획			자살시도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검정고시 학원	8 (88.9%)	1 (11.1%)	9 (100%)	9 (100%)	0 (0.0%)	9 (100%)
직업학교	4 (80%)	1 (20.0%)	5 (100%)	4 (80%)	1 (20.0%)	5 (100%)
직업훈련기 관	1 (100%)	0 (0.0%)	1 (100%)	1 (100%)	0 (0.0%)	1 (100%)
학교나 검정고시 학원에 다니지않음	13 (100%)	0 (0.0%)	13 (100%)	12 (92.3%)	1 (7.7%)	13 (100%)
꿈드림 센터	106 (91.4%)	10 (8.6%)	116 (100%)	99 (86.1%)	16 (13.9%)	115 (100%)

라) 가정경제수준별

(1) 일반학생

가정경제수준별 일반학생의 자살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자살문제 중 자살계획은 '보통'이 57.7%, '잘 사는 편'이 21.2%, '어려운 편' 19.2%순으로, 자살시도는 '보통'이 63.1%, '잘 사는 편'이 20.1%, '어려운 편' 15.4%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99. 가정경제수준별 일반학생 자살

(단위 : 명)

가정 경제수준	자살계획		자살시도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매우 어려운 편	10 (0.4%)	0 (0.0%)	10 (0.4%)	0 (0.0%)
어려운 편	134 (4.9%)	10 (19.2%)	121 (4.6%)	23 (15.4%)
보통	1,863 (67.8%)	30 (57.7%)	1,798 (67.9%)	94 (63.1%)
잘사는 편	645 (23.5%)	11 (21.2%)	626 (23.6%)	30 (20.1%)
매우 잘사는 편	95 (3.5%)	1 (1.9%)	94 (3.5%)	2 (1.3%)
전체	2,747 (100.0%)	52 (100.0%)	2,649 (100.0%)	149 (100.0%)

(2) 취약·위기청소년

가정경제수준별 취약·위기청소년 의 자살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자살문제 중 자살계획은 ‘보통’이 33.3%, ‘어려운 편’, ‘매우 어려운 편’ 25.0%, 자살시도는 ‘보통’이 38.9%, ‘어려운 편’ 33.3%, ‘잘 사는 편’ 16.7%순으로 나타났다.

표 100. 가정경제수준별 취약·위기청소년 자살

(단위 : 명)

가정 경제수준	자살계획		자살시도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매우 어려운 편	1 (0.8%)	3 (25.0%)	2 (1.6%)	2 (11.1%)
어려운 편	23 (17.4%)	3 (25.0%)	20 (16.0%)	6 (33.3%)
보통	95 (72.0%)	4 (33.3%)	91 (72.8%)	7 (38.9%)
잘사는 편	12 (9.1%)	2 (16.7%)	11 (8.8%)	3 (16.7%)
매우 잘사는 편	1 (0.8%)	0 (0.0%)	1 (0.8%)	0 (0.0%)
전체	132 (100.0%)	12 (100.0%)	125 (100.0%)	18 (100.0%)

9) 성문제

가) 시군별

(1) 일반학생

시군별 일반학생의 성문제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모든 지역에서 성매매, 성폭력, 성폭력 시도, 원치 않는 임신출산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의 비율이 90%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101. 시군별 일반학생 성문제

(단위 : 명)

시군	성매매			성폭력			성폭력 시도			원치않는 임신출산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천안시	643 (99.7%)	2 (0.3%)	645 (100.0%)	641 (99.4%)	4 (0.6%)	645 (100.0%)	642 (99.5%)	3 (0.5%)	645 (100.0%)	640 (99.2%)	5 (0.8%)	645 (100.0%)
공주시	158 (100.0%)	0 (0.0%)	158 (100.0%)	157 (99.4%)	1 (0.6%)	158 (100.0%)	158 (100.0%)	0 (0.0%)	158 (100.0%)	158 (100.0%)	0 (0.0%)	158 (100.0%)
보령시	86 (96.6%)	3 (3.4%)	89 (100.0%)	87 (97.8%)	2 (2.2%)	89 (100.0%)	87 (97.8%)	2 (2.2%)	89 (100.0%)	88 (98.9%)	1 (1.1%)	89 (100.0%)
아산시	219 (100.0%)	0 (0.0%)	219 (100.0%)	217 (99.1%)	2 (0.9%)	219 (100.0%)	219 (100.0%)	0 (0.0%)	219 (100.0%)	217 (99.5%)	1 (0.5%)	218 (100.0%)
서산시	156 (98.1%)	3 (1.9%)	159 (100.0%)	154 (96.9%)	5 (3.1%)	159 (100.0%)	156 (98.1%)	3 (1.9%)	159 (100.0%)	158 (99.4%)	1 (0.6%)	159 (100.0%)
논산시	115 (100.0%)	0 (0.0%)	115 (100.0%)	115 (100.0%)	0 (0.0%)	115 (100.0%)	115 (100.0%)	0 (0.0%)	115 (100.0%)	114 (100.0%)	0 (0.0%)	114 (100.0%)
계룡시	57 (100.0%)	0 (0.0%)	57 (100.0%)	56 (100.0%)	0 (0.0%)	56 (100.0%)	57 (100.0%)	0 (0.0%)	57 (100.0%)	57 (100.0%)	0 (0.0%)	57 (100.0%)
당진시	145 (100.0%)	0 (0.0%)	145 (100.0%)	144 (99.3%)	1 (0.7%)	145 (100.0%)	145 (100.0%)	0 (0.0%)	145 (100.0%)	145 (100.0%)	0 (0.0%)	145 (100.0%)
금산군	58 (100.0%)	0 (0.0%)	58 (100.0%)	56 (96.6%)	2 (3.4%)	58 (100.0%)	58 (100.0%)	0 (0.0%)	58 (100.0%)	57 (98.3%)	1 (1.7%)	58 (100.0%)
부여군	75 (98.7%)	1 (1.3%)	76 (100.0%)	74 (97.4%)	2 (2.6%)	76 (100.0%)	75 (98.7%)	1 (1.3%)	76 (100.0%)	76 (100.0%)	0 (0.0%)	76 (100.0%)
서천군	70 (100.0%)	0 (0.0%)	70 (100.0%)	70 (100.0%)	0 (0.0%)	70 (100.0%)	69 (100.0%)	0 (0.0%)	69 (100.0%)	70 (100.0%)	0 (0.0%)	70 (100.0%)
청양군	98 (100.0%)	0 (0.0%)	98 (100.0%)	97 (99.0%)	1 (1.0%)	98 (100.0%)	98 (100.0%)	0 (0.0%)	98 (100.0%)	98 (100.0%)	0 (0.0%)	98 (100.0%)
홍성군	71 (100.0%)	0 (0.0%)	71 (100.0%)	70 (98.6%)	1 (1.4%)	71 (100.0%)	71 (100.0%)	0 (0.0%)	71 (100.0%)	71 (100.0%)	0 (0.0%)	71 (100.0%)
예산군	67 (100.0%)	0 (0.0%)	67 (100.0%)	66 (98.5%)	1 (1.5%)	67 (100.0%)	67 (100.0%)	0 (0.0%)	67 (100.0%)	67 (100.0%)	0 (0.0%)	67 (100.0%)
태안군	62 (98.4%)	1 (1.6%)	63 (100.0%)	62 (98.4%)	1 (1.6%)	63 (100.0%)	61 (96.8%)	2 (3.2%)	63 (100.0%)	62 (98.4%)	1 (1.6%)	63 (100.0%)
합계	2,080 (99.5%)	10 (0.5%)	2,090 (100.0%)	2,066 (98.9%)	23 (1.1%)	2,089 (100.0%)	2,078 (99.5%)	11 (0.5%)	2,089 (100.0%)	2,078 (99.5%)	10 (0.5%)	2,088 (100.0%)

(2) 취약·위기청소년

시군별 취약·위기청소년의 성문제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모든 지역에서 성매매, 성폭력, 성폭력 시도, 원치 않는 임신출산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의 비율이 80%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102. 시군별 취약·위기청소년 성문제

(단위 : 명)

시군	성매매			성폭력			성폭력 시도			원치않는 임신출산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천안시	35 (92.1%)	3 (7.9%)	38 (100.0%)	36 (94.7%)	2 (5.3%)	38 (100.0%)	35 (92.1%)	3 (7.9%)	38 (100.0%)	37 (97.4%)	1 (2.6%)	38 (100.0%)
공주시	6 (85.7%)	1 (14.3%)	7 (100.0%)	6 (85.7%)	1 (14.3%)	7 (100.0%)	6 (85.7%)	1 (14.3%)	7 (100.0%)	7 (100.0%)	0 (0.0%)	7 (100.0%)
보령시	9 (100.0%)	0 (0.0%)	9 (100.0%)									
아산시	15 (100.0%)	0 (0.0%)	15 (100.0%)									
서산시	12 (100.0%)	0 (0.0%)	12 (100.0%)	12 (100.0%)	0 (0.0%)	12 (100.0%)	12 (100.0%)	0 (0.0%)	12 (100.0%)	11 (91.7%)	1 (8.3%)	12 (100.0%)
논산시	10 (100.0%)	0 (0.0%)	10 (100.0%)									
계룡시	3 (100.0%)	0 (0.0%)	3 (100.0%)									
당진시	10 (100.0%)	0 (0.0%)	10 (100.0%)	10 (100.0%)	0 (0.0%)	10 (100.0%)	10 (100.0%)	0 (0.0%)	10 (100.0%)	8 (80.0%)	2 (20.0%)	10 (100.0%)
금산군	6 (100.0%)	0 (0.0%)	6 (100.0%)									
부여군	2 (100.0%)	0 (0.0%)	2 (100.0%)									
서천군	10 (100.0%)	0 (0.0%)	10 (100.0%)									
청양군	7 (100.0%)	0 (0.0%)	7 (100.0%)									
홍성군	6 (100.0%)	0 (0.0%)	6 (100.0%)									
예산군	1 (100.0%)	0 (0.0%)	1 (100.0%)									
태안군	8 (100.0%)	0 (0.0%)	8 (100.0%)	8 (100.0%)	0 (0.0%)	8 (100.0%)	8 (100.0%)	0 (0.0%)	8 (100.0%)	7 (87.5%)	1 (12.5%)	8 (100.0%)
합계	140 (97.2%)	4 (2.8%)	144 (100.0%)	141 (97.9%)	3 (2.1%)	144 (100.0%)	140 (97.2%)	4 (2.8%)	144 (100.0%)	139 (96.5%)	5 (3.5%)	144 (100.0%)

나) 성별

(1) 일반학생

성별 일반학생의 성문제 위기결과 남성은 성매매 0.7%, 성폭력 0.9%, 성폭력시도 0.7%, 원치않는 임신·출산 0.5%로 나타났고, 여성은 성매매 0.3%, 성폭력 1.2%, 성폭력시도 0.4%, 원치않는 임신·출산 0.5%로 나타났다.

표 103. 성별 일반학생 성문제

(단위 : 명)

성별	성매매			성폭력			성폭력 시도			원치않는 임신출산		
	해당 없음	해당 있음	전체	해당 없음	해당 있음	전체	해당 없음	해당 있음	전체	해당 없음	해당 있음	전체
남성	856 (99.3%)	6 (0.7%)	862 (100%)	853 (99.1%)	8 (0.9%)	861 (100%)	1,198 (99.3%)	8 (0.7%)	1,206 (100%)	857 (99.5%)	4 (0.5%)	861 (100%)
여성	1,224 (99.7%)	4 (0.3%)	1,228 (100%)	1,213 (98.8%)	15 (1.2%)	1,228 (100%)	1,587 (99.6%)	6 (0.4%)	1,593 (100%)	1,221 (99.5%)	6 (0.5%)	1,227 (100%)

(2) 취약·위기청소년

성별 취약·위기청소년의 성문제 위기결과 남성은 성매매 1.5%, 성폭력 1.5%, 성폭력시도 2.9%로 나타났고, 여성은 성매매 3.9%, 성폭력 2.6%, 성폭력시도 2.6%, 원치않는 임신·출산 6.6%로 나타났다.

표 104. 성별 취약·위기청소년 성문제

(단위 : 명)

성별	성매매			성폭력			성폭력 시도			원치않는 임신출산		
	해당 없음	해당 있음	전체									
남성	67 (98.5%)	1 (1.5%)	68 (100%)	67 (98.5%)	1 (1.5%)	68 (100%)	66 (97.1%)	2 (2.9%)	68 (100%)	68 (100%)	0 (0.0%)	68 (100%)
여성	73 (96.1%)	3 (3.9%)	76 (100%)	74 (97.4%)	2 (2.6%)	76 (100%)	74 (97.4%)	2 (2.6%)	76 (100%)	71 (93.4%)	5 (6.6%)	76 (100%)

다) 소속기관별

(1) 일반학생

소속기관별 일반학생의 성문제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성문제 중 성매매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70.0%, 전문계(실업계)고등학교 20.0%, 중학교 10.0%순으로, 성폭력피해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52.2%, 중학교 30.4%, 전문계(실업계)고등학교 13.0%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시도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50.0%, 초등학교 21.4%, 중학교와 전문계(실업계)고등학교 14.3%순으로, 원치 않는 임신출산은 중학교 60.0%, 인문계 고등학교 30.0%, 전문계(실업계)고등학교 10.0%순으로 나타났다.

표 105. 소속기관별 일반학생 성문제

(단위 : 명)

소속기관	성매매		성폭력		성폭력 시도		원치않는 임신출산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초등학교	1 (0.0%)	0 (0.0%)	1 (0.0%)	0 (0.0%)	709 (25.4%)	3 (21.4%)	1 (0.0%)	0 (0.0%)
중학교	1,009 (48.5%)	1 (10.0%)	1,002 (48.5%)	7 (30.4%)	1,007 (36.1%)	2 (14.3%)	1,002 (48.2%)	6 (60.0%)
인문계고 등학교	828 (39.8%)	7 (70.0%)	823 (39.8%)	12 (52.2%)	828 (29.7%)	7 (50.0%)	832 (40.0%)	3 (30.0%)
전문계 (실업계) 고등학교	239 (11.5%)	2 (20.0%)	238 (11.5%)	3 (13.0%)	239 (8.6%)	2 (14.3%)	240 (11.5%)	1 (10.0%)
대안학교	4 (0.2%)	0 (0.0%)	3 (0.1%)	1 (4.3%)	4 (0.1%)	0 (0.0%)	4 (0.2%)	0 (0.0%)
전체	2,081 (100.0%)	10 (100.0%)	2,067 (100.0%)	23 (100.0%)	2,787 (100.0%)	14 (100.0%)	2,079 (100.0%)	10 (100.0%)

(2) 취약·위기청소년

소속기관별 취약·위기청소년의 성문제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성문제 중 성매매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 75.0%, 학교나 검정고시 학원에 다니지 않는 경우가 25.0%였고 성폭력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66.7%고 학교나 검정고시 학원에 다니지 않는 경우가 33.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폭력 시도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50.0%, 직업학교와 학교나 검정고시학원에 다니지 않는 경우가 각각 25.0%로 나타났다.

표 106. 소속기관별 취약·위기청소년 성문제

(단위 : 명)

소속기관	성매매		성폭력		성폭력 시도		원치않는 임신출산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검정고시 학원	9 (6.4%)	0 (0.0%)	9 (6.4%)	0 (0.0%)	9 (6.4%)	0 (0.0%)	9 (6.5%)	0 (0.0%)
직업학교	5 (3.6%)	0 (0.0%)	5 (3.5%)	0 (0.0%)	4 (2.9%)	1 (25.0%)	5 (3.6%)	0 (0.0%)
직업훈련기 관	1 (0.7%)	0 (0.0%)	1 (0.7%)	0 (0.0%)	1 (0.7%)	0 (0.0%)	1 (0.7%)	0 (0.0%)
학교나 검정고시 학원에 다니지않음	12 (8.6%)	1 (25.0%)	12 (8.5%)	1 (33.3%)	12 (8.6%)	1 (25.0%)	13 (9.4%)	0 (0.0%)
꿈드림 센터	113 (80.7%)	3 (75.0%)	114 (80.9%)	2 (66.7%)	114 (81.4%)	2 (50.0%)	111 (79.9%)	5 (100.0%)
전체	140 (100.0%)	4 (100.0%)	141 (100.0%)	3 (100.0%)	140 (100.0%)	4 (100.0%)	139 (100.0%)	5 (100.0%)

라) 가정경제수준별

(1) 일반학생

가정경제수준별 일반학생의 성문제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각 부분 모두에서 '보통'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성매매는 '어려운 편' 20.0%, '잘 사는 편' 10.0%, 성폭력은 '어려운 편' 21.7%, '잘 사는 편' 13.0%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폭력시도는 '어려운 편', '잘 사는 편' 14.3%순으로 원치 않는 임신출산은 '어려운 편', '매우 잘사는 편' 20.0%순으로 나타났다.

표 107. 가정경제수준별 일반학생 성문제

(단위 : 명)

가정 경제수준	성매매		성폭력		성폭력 시도		원치않는 임신출산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매우 어려운 편	6 (0.3%)	0 (0.0%)	6 (0.3%)	0 (0.0%)	9 (0.3%)	1 (7.1%)	6 (0.3%)	0 (0.0%)
어려운 편	126 (6.1%)	2 (20.0%)	123 (6.0%)	5 (21.7%)	142 (5.1%)	2 (14.3%)	125 (6.0%)	2 (20.0%)
보통	1,496 (72.0%)	6 (60.0%)	1,489 (72.1%)	13 (56.5%)	1,885 (67.7%)	8 (57.1%)	1,496 (72.0%)	5 (50.0%)
잘사는 편	409 (19.7%)	1 (10.0%)	406 (19.7%)	3 (13.0%)	653 (23.5%)	2 (14.3%)	409 (19.7%)	1 (10.0%)
매우 잘사는 편	42 (2.0%)	1 (10.0%)	41 (2.0%)	2 (8.7%)	95 (3.4%)	1 (7.1%)	41 (2.0%)	2 (20.0%)
전체	2,079 (100.0%)	10 (100.0%)	2,065 (100.0%)	23 (100.0%)	2,784 (100.0%)	14 (100.0%)	2,077 (100.0%)	10 (100.0%)

(2) 취약·위기청소년

가정경제수준별 취약·위기청소년의 성문제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성문제 중 성매매는 '어려운 편'이 50.0%, '보통', '잘 사는 편' 25.0%로, 성폭력은 '어려운 편', '보통', '잘 사는 편'이 각각 33.3%로 나타났다. 성폭력 시도는 '어려운 편'이 50.0%, '매우 어려운 편', '보통'이 각각 25.0%로, 원치 않는 임신출산은 '보통'이 80.0%, '어려운 편'이 20.0%로 나타났다.

표 108. 가정경제수준별 취약·위기청소년 성문제

(단위 : 명)

가정 경제수준	성매매		성폭력		성폭력 시도		원치않는 임신출산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매우 어려운 편	4 (2.9%)	0 (0.0%)	4 (2.8%)	0 (0.0%)	3 (2.1%)	1 (25.0%)	4 (2.9%)	0 (0.0%)
어려운 편	24 (17.1%)	2 (50.0%)	25 (17.7%)	1 (33.3%)	24 (17.1%)	2 (50.0%)	25 (18.0%)	1 (20.0%)
보통	98 (70.0%)	1 (25.0%)	98 (69.5%)	1 (33.3%)	98 (70.0%)	1 (25.0%)	95 (68.3%)	4 (80.0%)
잘사는 편	13 (9.3%)	1 (25.0%)	13 (9.2%)	1 (33.3%)	14 (10.0%)	0 (0.0%)	14 (10.1%)	0 (0.0%)
매우 잘사는 편	1 (0.7%)	0 (0.0%)	1 (0.7%)	0 (0.0%)	1 (0.7%)	0 (0.0%)	1 (0.7%)	0 (0.0%)
전체	140 (100.0%)	4 (100.0%)	141 (100.0%)	3 (100.0%)	140 (100.0%)	4 (100.0%)	139 (100.0%)	5 (100.0%)

10) 가출

가) 시군별

(1) 일반학생

시군별 일반학생의 가출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모든 지역에서 가출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의 비율이 모두 90%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109. 시군별 일반학생 가출

(단위 : 명)

시군	가출경험			가출팸			현재가출상태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천안시	715 (97.4%)	19 (2.6%)	734 (100.0%)	812 (99.8%)	2 (0.2%)	814 (100.0%)	813 (99.9%)	1 (0.1%)	814 (100.0%)
공주시	156 (96.9%)	5 (3.1%)	161 (100.0%)	184 (98.9%)	2 (1.1%)	186 (100.0%)	184 (98.9%)	2 (1.1%)	186 (100.0%)
보령시	101 (95.3%)	5 (4.7%)	106 (100.0%)	120 (100.0%)	0 (0.0%)	120 (100.0%)	120 (100.0%)	0 (0.0%)	120 (100.0%)
아산시	267 (97.8%)	6 (2.2%)	273 (100.0%)	304 (99.3%)	2 (0.7%)	306 (100.0%)	304 (99.3%)	2 (0.7%)	306 (100.0%)
서산시	183 (96.3%)	7 (3.7%)	190 (100.0%)	221 (100.0%)	0 (0.0%)	221 (100.0%)	220 (99.5%)	1 (0.5%)	221 (100.0%)
논산시	135 (98.5%)	2 (1.5%)	137 (100.0%)	144 (100.0%)	0 (0.0%)	144 (100.0%)	144 (100.0%)	0 (0.0%)	144 (100.0%)
계룡시	67 (100.0%)	0 (0.0%)	67 (100.0%)	79 (100.0%)	0 (0.0%)	79 (100.0%)	79 (100.0%)	0 (0.0%)	79 (100.0%)
당진시	170 (97.7%)	4 (2.3%)	174 (100.0%)	196 (100.0%)	0 (0.0%)	196 (100.0%)	196 (100.0%)	0 (0.0%)	196 (100.0%)
금산군	69 (98.6%)	1 (1.4%)	70 (100.0%)	84 (98.8%)	1 (1.2%)	85 (100.0%)	84 (98.8%)	1 (1.2%)	85 (100.0%)
부여군	98 (98.0%)	2 (2.0%)	100 (100.0%)	110 (100.0%)	0 (0.0%)	110 (100.0%)	110 (100.0%)	0 (0.0%)	110 (100.0%)
서천군	79 (100.0%)	0 (0.0%)	79 (100.0%)	99 (100.0%)	0 (0.0%)	99 (100.0%)	100 (100.0%)	0 (0.0%)	100 (100.0%)
청양군	151 (98.7%)	2 (1.3%)	153 (100.0%)	163 (100.0%)	0 (0.0%)	163 (100.0%)	163 (100.0%)	0 (0.0%)	163 (100.0%)
홍성군	87 (98.9%)	1 (1.1%)	88 (100.0%)	101 (100.0%)	0 (0.0%)	101 (100.0%)	101 (100.0%)	0 (0.0%)	101 (100.0%)
예산군	68 (95.8%)	3 (4.2%)	71 (100.0%)	83 (100.0%)	0 (0.0%)	83 (100.0%)	83 (100.0%)	0 (0.0%)	83 (100.0%)
태안군	90 (97.8%)	2 (2.2%)	92 (100.0%)	92 (98.9%)	1 (1.1%)	93 (100.0%)	92 (98.9%)	1 (1.1%)	93 (100.0%)
합계	2,436 (97.6%)	59 (2.4%)	2,495 (100.0%)	2,792 (99.7%)	8 (0.3%)	2,800 (100.0%)	2,793 (99.7%)	8 (0.3%)	2,801 (100.0%)

(2) 취약·위기청소년

시군별 취약·위기청소년의 가출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모든 지역에서 가출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청소년의 비율이 모두 80%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110. 시군별 취약·위기청소년 가출

(단위 : 명)

시군	가출경험			가출팸			현재가출상태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천안시	33 (89.2%)	4 (10.8%)	37 (100.0%)	37 (97.4%)	1 (2.6%)	38 (100.0%)	37 (97.4%)	1 (2.6%)	38 (100.0%)
공주시	6 (85.7%)	1 (14.3%)	7 (100.0%)	6 (85.7%)	1 (14.3%)	7 (100.0%)	6 (85.7%)	1 (14.3%)	7 (100.0%)
보령시	7 (87.5%)	1 (12.5%)	8 (100.0%)	9 (100.0%)	0 (0.0%)	9 (100.0%)	9 (100.0%)	0 (0.0%)	9 (100.0%)
아산시	12 (80.0%)	3 (20.0%)	15 (100.0%)	15 (100.0%)	0 (0.0%)	15 (100.0%)	15 (100.0%)	0 (0.0%)	15 (100.0%)
서산시	9 (75.0%)	3 (25.0%)	12 (100.0%)	12 (100.0%)	0 (0.0%)	12 (100.0%)	12 (100.0%)	0 (0.0%)	12 (100.0%)
논산시	8 (80.0%)	2 (20.0%)	10 (100.0%)	10 (100.0%)	0 (0.0%)	10 (100.0%)	10 (100.0%)	0 (0.0%)	10 (100.0%)
계룡시	3 (100.0%)	0 (0.0%)	3 (100.0%)	3 (100.0%)	0 (0.0%)	3 (100.0%)	3 (100.0%)	0 (0.0%)	3 (100.0%)
당진시	10 (100.0%)	0 (0.0%)	10 (100.0%)	9 (90.0%)	1 (10.0%)	10 (100.0%)	10 (100.0%)	0 (0.0%)	10 (100.0%)
금산군	6 (100.0%)	0 (0.0%)	6 (100.0%)	6 (100.0%)	0 (0.0%)	6 (100.0%)	6 (100.0%)	0 (0.0%)	6 (100.0%)
부여군	2 (100.0%)	0 (0.0%)	2 (100.0%)	2 (100.0%)	0 (0.0%)	2 (100.0%)	2 (100.0%)	0 (0.0%)	2 (100.0%)
서천군	8 (80.0%)	2 (20.0%)	10 (100.0%)	10 (100.0%)	0 (0.0%)	10 (100.0%)	10 (100.0%)	0 (0.0%)	10 (100.0%)
청양군	7 (100.0%)	0 (0.0%)	7 (100.0%)	7 (100.0%)	0 (0.0%)	7 (100.0%)	7 (100.0%)	0 (0.0%)	7 (100.0%)
홍성군	6 (100.0%)	0 (0.0%)	6 (100.0%)	6 (100.0%)	0 (0.0%)	6 (100.0%)	6 (100.0%)	0 (0.0%)	6 (100.0%)
예산군	1 (100.0%)	0 (0.0%)	1 (100.0%)	1 (100.0%)	0 (0.0%)	1 (100.0%)	1 (100.0%)	0 (0.0%)	1 (100.0%)
태안군	6 (75.0%)	2 (25.0%)	8 (100.0%)	8 (100.0%)	0 (0.0%)	8 (100.0%)	8 (100.0%)	0 (0.0%)	8 (100.0%)
합계	124 (87.3%)	18 (12.7%)	142 (100.0%)	141 (97.9%)	3 (2.1%)	144 (100.0%)	142 (98.6%)	2 (1.4%)	144 (100.0%)

나) 성별

(1) 일반학생

성별 일반학생의 가출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남성은 가출경험 3.0%, 가출팸 이용경험 0.4%, 현재 가출상태 0.3%로 나타났고, 여성은 가출경험 1.9%, 가출팸 이용경험 0.2%, 현재 가출상태 0.2%로 나타났다.

표 111. 성별 일반학생 가출

(단위 : 명)

성별	가출경험			가출팸			현재가출상태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남성	1,067 (97.0%)	33 (3.0%)	1,100 (100%)	1,201 (99.6%)	5 (0.4%)	1,206 (100%)	1,202 (99.7%)	4 (0.3%)	1,206 (100%)
여성	1,368 (98.1%)	26 (1.9%)	1,394 (100%)	1,590 (99.8%)	3 (0.2%)	1,593 (100%)	1,590 (99.8%)	4 (0.2%)	1,594 (100%)

(2) 취약·위기청소년

성별 취약·위기청소년의 가출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남성은 가출경험 10.4%, 가출팸 이용경험, 현재 가출상태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은 가출경험 14.7%, 가출팸 이용경험 3.9%, 현재 가출상태 2.6%로 나타났다.

표 112. 성별 취약·위기청소년 가출

(단위 : 명)

성별	가출경험			가출팸			현재가출상태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남성	60 (89.6%)	7 (10.4%)	67 (100%)	68 (100%)	0 (0.0%)	68 (100%)	68 (100%)	0 (0.0%)	68 (100%)
여성	64 (85.3%)	11 (14.7%)	75 (100%)	73 (96.1%)	3 (3.9%)	76 (100%)	74 (97.4%)	2 (2.6%)	76 (100%)

다) 소속기관별

(1) 일반학생

소속기관별 일반학생의 가출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가출문제 중 가출 경험있다고 응답한 학생과 가출 팸에서 생활해 본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인문계 고등학교가 각각 37.3%,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가출경험은 중학교가 30.5%로 나타났고, 가출팸 문제의 경우는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각각 25%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출 상태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경우 중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가 각각 37.5%,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와 전문계(실업계)고등학교가 각각 12.5%로 나타났다.

표 113. 소속기관별 일반학생 가출

(단위 : 명)

소속기관	가출경험		가출팸		현재가출상태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초등학교	698 (28.6%)	13 (22.0%)	709 (25.4%)	2 (25.0%)	711 (25.4%)	1 (12.5%)
중학교	859 (35.2%)	18 (30.5%)	1,008 (36.1%)	2 (25.0%)	1,007 (36.0%)	3 (37.5%)
인문계 고등학교	672 (27.6%)	22 (37.3%)	831 (29.8%)	4 (50.0%)	832 (29.8%)	3 (37.5%)
전문계 (실업계) 고등학교	204 (8.4%)	6 (10.2%)	241 (8.6%)	0 (0.0%)	240 (8.6%)	1 (12.5%)
대안학교	4 (0.2%)	0 (0.0%)	4 (0.1%)	0 (0.0%)	4 (0.1%)	0 (0.0%)
전체	2,437 (100.0%)	59 (100.0%)	2,793 (100.0%)	8 (100.0%)	2,794 (100.0%)	8 (100.0%)

(2) 취약·위기청소년

소속기관별 취약·위기청소년의 가출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가출문제 중 가출 경험문제에 해당하는 학생들과 가출 팸에서 생활해 본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그리고 현재 가출상태라고 응답한 학생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각각 88.9%, 100%, 100%로 나타났다. 가출 경험문제는 그다음으로 중학교와 전문계(실업계)고등학교가 각각 5.6%순으로 나타났다.

표 114. 소속기관별 취약·위기청소년 가출

(단위 : 명)

소속기관	가출경험		가출팸		현재가출상태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검정고시 학원	9 (7.3%)	0 (0.0%)	9 (6.4%)	0 (0.0%)	9 (6.3%)	0 (0.0%)
직업학교	4 (3.2%)	1 (5.6%)	5 (3.5%)	0 (0.0%)	5 (3.5%)	0 (0.0%)
직업훈련 기관	1 (0.8%)	0 (0.0%)	1 (0.7%)	0 (0.0%)	1 (0.7%)	0 (0.0%)
학교나 검정고시 학원에 다니지 않음	12 (9.7%)	1 (5.6%)	13 (9.2%)	0 (0.0%)	13 (9.2%)	0 (0.0%)
꿈드림 센터	98 (79.0%)	16 (88.9%)	113 (80.1%)	3 (100.0%)	114 (80.3%)	2 (100.0%)
전체	124 (100.0%)	18 (100.0%)	141 (100.0%)	3 (100.0%)	142 (100.0%)	2 (100.0%)

라) 가정경제수준별

(1) 일반학생

가정경제수준별 일반학생의 가출 위기결과분포를 제시하였다. 어려운 편은 가출경험 7.1%, 가출팸 2.1%, 현재 가출상태 2.8%로 나타났고, 보통은 가출경험 2.2%, 가출팸 0.2%, 현재 가출상태 0.1%로 나타났다. 잘사는 편은 가출경험 22.0%, 현재 가출상태 0.2%로 나타났고, 매우 잘사는 편은 가출팸 1.0%, 현재 가출상태 1.0%로 나타났다.

표 115. 가정경제수준별 일반학생 가출

(단위 : 명)

가정경제 수준	가출경험			가출팸			현재가출상태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매우 어려운 편	10 (100%)	0 (0.0%)	10 (100%)	10 (100%)	0 (0.0%)	10 (100%)	10 (100%)	0 (0.0%)	10 (100%)
어려운 편	118 (92.9%)	9 (7.1%)	127 (100%)	141 (97.9%)	3 (2.1%)	144 (100%)	140 (97.2%)	4 (2.8%)	144 (100%)
보통	1,637 (97.8%)	37 (2.2%)	1,674 (100%)	1,888 (99.8%)	4 (0.2%)	1,892 (100%)	1,891 (99.9%)	2 (0.1%)	1,893 (100%)
잘사는 편	580 (23.8%)	13 (22.0%)	593 (100%)	656 (100%)	0 (0.0%)	656 (100%)	655 (99.8%)	1 (0.2%)	656 (100%)
매우 잘사는 편	90 (100%)	0 (0.0%)	90 (100%)	95 (99.0%)	1 (1.0%)	96 (100%)	95 (99.0%)	1 (1.0%)	96 (100%)

(2) 취약·위기청소년

가정경제수준별 취약·위기청소년의 가출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매우 어려운편은 가출경험 25.0%만 나타났고, 어려운 편은 가출경험 15.4%, 가출팸 3.8%, 현재 가출상태 7.7%로 나타났고, 보통은 가출경험 10.3%, 가출팸 1.0%로 나타났다. 잘사는 편은 가출경험 21.4%, 가출팸 7.1% 나타났고, 매우 잘사는편은 가출경험, 가출팸, 현재 가출상태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없는것으로 나타났다.

표 116. 가정경제수준별 취약·위기청소년 가출

(단위 : 명)

가정경제 수준	가출경험			가출팸			현재가출상태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매우 어려운 편	3 (75%)	1 (25.0%)	4 (100%)	4 (100%)	0 (0.0%)	4 (100%)	4 (100%)	0 (0.0%)	4 (100%)
어려운 편	22 (84.6%)	4 (15.4%)	26 (100%)	25 (96.2%)	1 (3.8%)	26 (100%)	24 (92.3%)	2 (7.7%)	26 (100%)
보통	87 (89.7%)	10 (10.3%)	97 (100%)	98 (99.0%)	1 (1.0%)	99 (100%)	99 (100%)	0 (0.0%)	99 (100%)
잘사는 편	11 (78.6%)	3 (21.4%)	14 (100%)	13 (92.9%)	1 (7.1%)	14 (100%)	14 (100%)	0 (0.0%)	14 (100%)
매우 잘사는 편	1 (100%)	0 (0.0%)	1 (100%)	1 (0.7%)	0 (0.0%)	1 (100%)	1 (100%)	0 (0.0%)	1 (100%)

11) 학업중단

가) 시군별

(1) 일반학생

시군별 일반학생의 학업중단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모든 지역에서 현재 학업중단에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학생이 98%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117. 시군별 일반학생 학업중단

(단위 : 명)

시군	학업중단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천안시	642 (99.5%)	3 (0.5%)	645 (100.0%)
공주시	158 (100.0%)	0 (0.0%)	158 (100.0%)
보령시	88 (98.9%)	1 (1.1%)	89 (100.0%)
아산시	218 (99.5%)	1 (0.5%)	219 (100.0%)
서산시	159 (100.0%)	0 (0.0%)	159 (100.0%)
논산시	115 (100.0%)	0 (0.0%)	115 (100.0%)
계룡시	57 (100.0%)	0 (0.0%)	57 (100.0%)
당진시	145 (100.0%)	0 (0.0%)	145 (100.0%)
금산군	57 (98.3%)	1 (1.7%)	58 (100.0%)
부여군	76 (100.0%)	0 (0.0%)	76 (100.0%)
서천군	69 (98.6%)	1 (1.4%)	70 (100.0%)
청양군	98 (100.0%)	0 (0.0%)	98 (100.0%)
홍성군	71 (100.0%)	0 (0.0%)	71 (100.0%)
예산군	67 (100.0%)	0 (0.0%)	67 (100.0%)
태안군	62 (98.4%)	1 (1.6%)	63 (100.0%)
합계	2,082 (99.6%)	8 (0.4%)	2,090 (100.0%)

(2) 취약 위기청소년

시군별 취약 위기청소년의 학업중단 위기결과는 표 118과 같다.

표 118. 시군별 취약·위기청소년 학업중단

(단위 : 명)

시군	학업중단 및 학교부적응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천안시	16 (42.1%)	22 (57.9%)	38 (100.0%)
공주시	3 (42.9%)	4 (57.1%)	7 (100.0%)
보령시	4 (44.4%)	5 (55.6%)	9 (100.0%)
아산시	5 (33.3%)	10 (66.7%)	15 (100.0%)
서산시	0 (0.0%)	12 (100.0%)	12 (100.0%)
논산시	0 (0.0%)	10 (100.0%)	10 (100.0%)
계룡시	1 (33.3%)	2 (66.7%)	3 (100.0%)
당진시	1 (10.0%)	9 (90.0%)	10 (100.0%)
금산군	2 (33.3%)	4 (66.7%)	6 (100.0%)
부여군	1 (50.0%)	1 (50.0%)	2 (100.0%)
서천군	0 (0.0%)	10 (100.0%)	10 (100.0%)
청양군	0 (0.0%)	7 (100.0%)	7 (100.0%)
홍성군	0 (0.0%)	6 (100.0%)	6 (100.0%)
예산군	0 (0.0%)	1 (100.0%)	1 (100.0%)
태안군	0 (0.0%)	8 (100.0%)	8 (100.0%)
합계	33 (22.9%)	111 (77.1%)	144 (100.0%)

나) 성별

(1) 일반학생

성별에 따른 일반학생의 학업중단 위기결과는 남성 0.3%, 여성 0.4%로 나타났다.

표 119. 성별 일반학생 학업중단

(단위 : 명)

성별	현재 학업중단 상태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남성	859 (99.7%)	3 (0.3%)	862 (100%)
여성	1,223 (99.6%)	5 (0.4%)	1,228 (100%)

(2) 취약·위기청소년

성별에 따른 취약·위기청소년의 학업중단 위기결과는 남성 73.5%, 여성 80.3%로 나타났다.

표 120. 성별 취약·위기청소년 학업중단

(단위 : 명)

성별	현재 학업중단 상태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남성	18 (26.5%)	50 (73.5%)	68 (100%)
여성	15 (19.7%)	61 (80.3%)	76 (100%)

다) 소속기관별

(1) 일반학생

소속기관별 일반학생의 학업중단 상태는 중학생 0.3%, 인문계 고등학교 0.4%, 대안학교 50.0%로 나타났다.

표 121. 소속기관 일반학생 학업중단

(단위 : 명)

소속기관	학업중단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초등학교	1 (100%)	0 (0.0%)	1 (100%)
중학교	1,007 (99.7%)	3 (0.3%)	1,010 (100%)
인문계 고등학교	832 (99.6%)	3 (0.4%)	835 (100%)
전문계 (실업계) 고등학교	241 (100%)	0 (0.0%)	241 (100%)
대안학교	2 (50.0%)	2 (50.0%)	4 (100%)

(2) 취약·위기청소년

소속기관별 취약·위기청소년의 학업중단 위기결과는 검정고시 학원 22.2%, 직업훈련기관 100%, 학교나 검정고시 학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 76.9%,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센터 84.5%가 학업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2. 소속기관 취약·위기청소년 학업중단

(단위 : 명)

소속기관	학업중단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 체
검정고시 학원	7 (77.8%)	2 (22.2%)	9 (100%)
직업학교	5 (100%)	0 (0.0%)	5 (100%)
직업훈련기관	0 (0.0%)	1 (100%)	1 (100%)
학교나 검정고시 학원에 다니지 않음	3 (23.1%)	10 (76.9%)	13 (100%)
꿈드림 센터	18 (15.5%)	98 (84.5%)	116 (100%)

라) 가정경제수준별

(1) 일반학생

가정경제수준별 일반학생의 학업중단 위기결과 어려운 편 1.6%, 보통 0.4%로 나타났다.

표 123. 가정경제수준별 일반학생 학업중단

(단위 : 명)

가정경제수준	학업중단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매우 어려운 편	6 (100%)	0 (0.0%)	6 (100%)
어려운 편	126 (98.4%)	2 (1.6%)	128 (100%)
보통	1,496 (99.6%)	6 (0.4%)	1,502 (100%)
잘사는 편	410 (100%)	0 (0.0%)	410 (100%)
매우 잘사는 편	43 (100%)	0 (0.0%)	43 (100%)

(2) 취약·위기청소년

가정경제수준별 취약·위기청소년의 학업중단 위기결과 어려운 편 80.8%, 보통 80.8%, 잘사는 편 71.4%로 나타났다.

표 124. 가정경제수준별 취약·위기청소년 학업중단

(단위 : 명)

가정경제수준	학업중단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매우 어려운 편	4 (100%)	0 (0.0%)	4 (100%)
어려운 편	5 (19.2%)	21 (80.8%)	26 (100%)
보통	19 (19.2%)	80 (80.8%)	99 (100%)
잘사는 편	4 (28.6%)	10 (71.4%)	14 (100%)
매우 잘사는 편	1 (100%)	0 (0.0%)	1 (100%)

12) 직장생활 부적응

가) 시군별

(1) 일반학생

시군별 일반학생의 직장생활 부적응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모든 지역에서 직장생활 문제에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학생이 90%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125. 시군별 일반학생 직장생활 부적응

(단위 : 명)

시군	단순부적응			인격모독(폭행, 폭언)			성문제			폭력시도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천안시	65 (100.0%)	0 (0.0%)	65 (100.0%)	65 (100.0%)	0 (0.0%)	65 (100.0%)	64 (98.5%)	1 (1.5%)	65 (100.0%)	65 (100.0%)	0 (0.0%)	65 (100.0%)
공주시	23 (100.0%)	0 (0.0%)	23 (100.0%)	23 (100.0%)	0 (0.0%)	23 (100.0%)	23 (100.0%)	0 (0.0%)	23 (100.0%)	23 (100.0%)	0 (0.0%)	23 (100.0%)
보령시	40 (100.0%)	0 (0.0%)	40 (100.0%)	40 (100.0%)	0 (0.0%)	40 (100.0%)	39 (97.5%)	1 (2.5%)	40 (100.0%)	40 (100.0%)	0 (0.0%)	40 (100.0%)
아산시	43 (97.7%)	1 (2.3%)	44 (100.0%)	44 (100.0%)	0 (0.0%)	44 (100.0%)	43 (97.7%)	1 (2.3%)	44 (100.0%)	44 (100.0%)	0 (0.0%)	44 (100.0%)
서산시	19 (95.0%)	1 (5.0%)	20 (100.0%)	20 (100.0%)	0 (0.0%)	20 (100.0%)	19 (95.0%)	1 (5.0%)	20 (100.0%)	20 (100.0%)	0 (0.0%)	20 (100.0%)
논산시	9 (100.0%)	0 (0.0%)	9 (100.0%)	9 (100.0%)	0 (0.0%)	9 (100.0%)	9 (100.0%)	0 (0.0%)	9 (100.0%)	9 (100.0%)	0 (0.0%)	9 (100.0%)
계룡시	2 (100.0%)	0 (0.0%)	2 (100.0%)	2 (100.0%)	0 (0.0%)	2 (100.0%)	2 (100.0%)	0 (0.0%)	2 (100.0%)	2 (100.0%)	0 (0.0%)	2 (100.0%)
당진시	52 (100.0%)	0 (0.0%)	52 (100.0%)	52 (100.0%)	0 (0.0%)	52 (100.0%)	52 (100.0%)	0 (0.0%)	52 (100.0%)	52 (100.0%)	0 (0.0%)	52 (100.0%)
금산군	15 (100.0%)	0 (0.0%)	15 (100.0%)	15 (100.0%)	0 (0.0%)	15 (100.0%)	13 (86.7%)	2 (13.3%)	15 (100.0%)	15 (100.0%)	0 (0.0%)	15 (100.0%)
부여군	13 (100.0%)	0 (0.0%)	13 (100.0%)	13 (100.0%)	0 (0.0%)	13 (100.0%)	12 (92.3%)	1 (7.7%)	13 (100.0%)	13 (100.0%)	0 (0.0%)	13 (100.0%)
서천군	7 (100.0%)	0 (0.0%)	7 (100.0%)	7 (100.0%)	0 (0.0%)	7 (100.0%)	7 (100.0%)	0 (0.0%)	7 (100.0%)	7 (100.0%)	0 (0.0%)	7 (100.0%)
청양군	17 (100.0%)	0 (0.0%)	17 (100.0%)	17 (100.0%)	0 (0.0%)	17 (100.0%)	16 (94.1%)	1 (5.9%)	17 (100.0%)	17 (100.0%)	0 (0.0%)	17 (100.0%)
홍성군	25 (100.0%)	0 (0.0%)	25 (100.0%)	25 (100.0%)	0 (0.0%)	25 (100.0%)	24 (96.0%)	1 (4.0%)	25 (100.0%)	25 (100.0%)	0 (0.0%)	25 (100.0%)
예산군	4 (100.0%)	0 (0.0%)	4 (100.0%)	4 (100.0%)	0 (0.0%)	4 (100.0%)	4 (100.0%)	0 (0.0%)	4 (100.0%)	4 (100.0%)	0 (0.0%)	4 (100.0%)
태안군	10 (100.0%)	0 (0.0%)	10 (100.0%)	10 (100.0%)	0 (0.0%)	10 (100.0%)	10 (100.0%)	0 (0.0%)	10 (100.0%)	10 (100.0%)	0 (0.0%)	10 (100.0%)
합계	344 (99.4%)	2 (0.6%)	346 (100.0%)	346 (100.0%)	0 (0.0%)	346 (100.0%)	337 (97.4%)	9 (2.6%)	346 (100.0%)	346 (100.0%)	0 (0.0%)	346 (100.0%)

(2) 취약·위기청소년

시군별 취약·위기청소년 직장생활 부적응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모든 지역에서 직장생활 부적응 문제에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학생이 80%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126. 시군별 취약·위기청소년 직장생활 부적응

(단위 : 명)

시군	단순부적응			인격오독(폭행, 폭언)			성문제			폭력시도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천안시	17 (100.0%)	0 (0.0%)	17 (100.0%)	16 (94.1%)	1 (5.9%)	17 (100.0%)	15 (88.2%)	2 (11.8%)	17 (100.0%)	15 (88.2%)	2 (11.8%)	17 (100.0%)
공주시	5 (100.0%)	0 (0.0%)	5 (100.0%)	5 (100.0%)	0 (0.0%)	5 (100.0%)	4 (80.0%)	1 (20.0%)	5 (100.0%)	4 (80.0%)	1 (20.0%)	5 (100.0%)
보령시	8 (100.0%)	0 (0.0%)	8 (100.0%)	8 (100.0%)	0 (0.0%)	8 (100.0%)	7 (87.5%)	1 (12.5%)	8 (100.0%)	8 (100.0%)	0 (0.0%)	8 (100.0%)
아산시	11 (100.0%)	0 (0.0%)	11 (100.0%)	11 (100.0%)	0 (0.0%)	11 (100.0%)	11 (100.0%)	0 (0.0%)	11 (100.0%)	11 (100.0%)	0 (0.0%)	11 (100.0%)
서산시	7 (100.0%)	0 (0.0%)	7 (100.0%)	7 (100.0%)	0 (0.0%)	7 (100.0%)	7 (100.0%)	0 (0.0%)	7 (100.0%)	7 (100.0%)	0 (0.0%)	7 (100.0%)
논산시	4 (100.0%)	0 (0.0%)	4 (100.0%)	4 (100.0%)	0 (0.0%)	4 (100.0%)	3 (75.0%)	1 (25.0%)	4 (100.0%)	4 (100.0%)	0 (0.0%)	4 (100.0%)
계룡시	2 (100.0%)	0 (0.0%)	2 (100.0%)	2 (100.0%)	0 (0.0%)	2 (100.0%)	2 (100.0%)	0 (0.0%)	2 (100.0%)	2 (100.0%)	0 (0.0%)	2 (100.0%)
당진시	5 (100.0%)	0 (0.0%)	5 (100.0%)	5 (100.0%)	0 (0.0%)	5 (100.0%)	5 (100.0%)	0 (0.0%)	5 (100.0%)	5 (100.0%)	0 (0.0%)	5 (100.0%)
금산군	3 (100.0%)	0 (0.0%)	3 (100.0%)	3 (100.0%)	0 (0.0%)	3 (100.0%)	3 (100.0%)	0 (0.0%)	3 (100.0%)	3 (100.0%)	0 (0.0%)	3 (100.0%)
부여군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서천군	9 (100.0%)	0 (0.0%)	9 (100.0%)	9 (100.0%)	0 (0.0%)	9 (100.0%)	7 (77.8%)	2 (22.2%)	9 (100.0%)	9 (100.0%)	0 (0.0%)	9 (100.0%)
청양군	6 (100.0%)	0 (0.0%)	6 (100.0%)	6 (100.0%)	0 (0.0%)	6 (100.0%)	6 (100.0%)	0 (0.0%)	6 (100.0%)	6 (100.0%)	0 (0.0%)	6 (100.0%)
홍성군	3 (100.0%)	0 (0.0%)	3 (100.0%)	3 (100.0%)	0 (0.0%)	3 (100.0%)	3 (100.0%)	0 (0.0%)	3 (100.0%)	3 (100.0%)	0 (0.0%)	3 (100.0%)
예산군	1 (100.0%)	0 (0.0%)	1 (100.0%)	1 (100.0%)	0 (0.0%)	1 (100.0%)	1 (100.0%)	0 (0.0%)	1 (100.0%)	1 (100.0%)	0 (0.0%)	1 (100.0%)
태안군	7 (100.0%)	0 (0.0%)	7 (100.0%)	7 (100.0%)	0 (0.0%)	7 (100.0%)	7 (100.0%)	0 (0.0%)	7 (100.0%)	7 (100.0%)	0 (0.0%)	7 (100.0%)
합계	88 (100.0%)	0 (0.0%)	88 (100.0%)	87 (98.9%)	1 (1.1%)	88 (100.0%)	81 (92.0%)	7 (8.0%)	88 (100.0%)	85 (96.6%)	3 (3.4%)	88 (100.0%)

나) 성별

(1) 일반학생

성별 일반학생의 직장생활 부적응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직장생활 문제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127. 성별 일반학생 직장생활 부적응

(단위 : 명)

성별	단순부적응			인격모독(폭행, 폭언)			성문제			폭력시도		
	해당없음	해당있음	χ^2	해당없음	해당있음	χ^2	해당없음	해당있음	χ^2	해당없음	해당있음	χ^2
남성	153 (44.5%)	1 (50.0%)		154 (44.5%)	0 (0.0%)		152 (45.1%)	2 (22.2%)		154 (44.5%)	0 (0.0%)	
여성	191 (55.5%)	1 (50.0%)	.025	192 (55.5%)	0 (0.0%)		185 (54.9%)	7 (77.8%)	1.858	192 (55.5%)	0 (0.0%)	
전체	344 (100.0%)	2 (100.0%)		346 (100.0%)	0 (0.0%)		337 (100.0%)	9 (100.0%)		346 (100.0%)	0 (0.0%)	

* $p < 0.05$, ** $p < 0.01$, *** $p < 0.001$

(2) 취약·위기청소년

성별 취약·위기청소년의 직장생활 부적응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직장생활 문제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128. 성별 취약·위기청소년 직장생활 부적응

(단위 : 명)

성별	단순부적응			인격모독(폭행, 폭언)			성문제			폭력시도		
	해당없음	해당있음	χ^2	해당없음	해당있음	χ^2	해당없음	해당있음	χ^2	해당없음	해당있음	χ^2
남성	40 (45.5%)	0 (0.0%)		39 (44.8%)	1 (100.0%)		35 (43.2%)	5 (71.4%)		39 (45.9%)	1 (33.3%)	
여성	48 (54.5%)	0 (0.0%)		48 (55.2%)	0 (0.0%)	1.214	46 (56.8%)	2 (28.6%)	2.069	46 (54.1%)	2 (66.7%)	.184
전체	88 (100.0%)	0 (0.0%)		87 (100.0%)	1 (100.0%)		81 (100.0%)	7 (100.0%)		85 (100.0%)	3 (100.0%)	

* $p < 0.05$, ** $p < 0.01$, *** $p < 0.001$

다) 소속기관별

(1) 일반학생

소속기관별 일반학생의 직장생활 부적응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직장생활 부적응 문제 중 단순 부적응 문제를 겪은 학생은 인문계 고등학교와 전문계(실업계)고등학교에 소속된 경우가 각각 50%로 나타났고, 성문제의 경우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가 66.7%, 그 다음으로 인문계 고등학교가 33.3%로 나타났다. 인격모독(폭행, 폭언)의 문제와 폭력시도 문제를 겪었다고 응답한 학생은 없었다.

표 129. 소속기관별 일반학생 직장생활 부적응

(단위 : 명)

소속기관	단순부적응		인격모독(폭행, 폭언)		성문제		폭력시도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초등학교	1 (0.3%)	0 (0.0%)	1 (0.3%)	0 (0.0%)	1 (0.3%)	0 (0.0%)	1 (0.3%)	0 (0.0%)
중학교	51 14.8%	0 (0.0%)	51 (14.7%)	0 (0.0%)	51 (15.1%)	0 (0.0%)	51 (14.7%)	0 (0.0%)
인문계고 등학교	174 (50.6%)	1 (50.0%)	175 (50.6%)	0 (0.0%)	172 (51.0%)	3 (33.3%)	175 (50.6%)	0 (0.0%)
전문계 (실업계) 고등학교	117 (34.0%)	1 (50.0%)	118 (34.1%)	0 (0.0%)	112 (33.2%)	6 (66.7%)	118 (34.1%)	0 (0.0%)
대안학교	1 (0.3%)	0 (0.0%)	1 (0.3%)	0 (0.0%)	1 (0.3%)	0 (0.0%)	1 (0.3%)	0 (0.0%)
전체	344 (100.0%)	2 (100.0%)	346 (100.0%)	0 (0.0%)	337 (100.0%)	9 (100.0%)	346 (100.0%)	0 (0.0%)

(2) 취약·위기청소년

소속기관별 취약·위기청소년의 직장생활 부적응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직장생활 부적응 문제 중 인격모독(폭행, 폭언)의 문제를 겪은 학생은 직업학교에 소속된 경우가 100%로 나타났고, 성문제의 경우는 꿈드림 센터가 71.4%, 그 다음으로 직업학교와 직업훈련기관이 각각 14.3%로 나타났다. 폭력시도 문제도 꿈드림 센터가 66.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직업학교가 33.3%순으로 나타났다. 단순 부적응 문제를 겪었다고 응답한 학생은 없었다.

표 130. 소속기관별 취약·위기청소년 직장생활 부적응

(단위 : 명)

소속기관	단순부적응		인격모독(폭행, 폭언)		성문제		폭력시도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검정고시학원	2 (2.3%)	0 (0.0%)	2 (2.3%)	0 (0.0%)	2 (2.5%)	0 (0.0%)	2 (2.4%)	0 (0.0%)
직업학교	2 (2.3%)	0 (0.0%)	1 (1.1%)	1 (100.0%)	1 (1.2%)	1 (14.3%)	1 (1.2%)	1 (33.3%)
직업훈련기관	1 (1.1%)	0 (0.0%)	1 (1.1%)	0 (0.0%)	0 (0.0%)	1 (14.3%)	1 (1.2%)	0 (0.0%)
학교나 검정고시 학원에 다녀가지않음	9 (10.2%)	0 (0.0%)	9 (10.3%)	0 (0.0%)	9 (11.1%)	0 (0.0%)	9 (10.6%)	0 (0.0%)
꿈드림 센터	74 (84.1%)	0 (0.0%)	74 (85.1%)	0 (0.0%)	69 (85.2%)	5 (71.4%)	72 (84.7%)	2 (66.7%)
전체	88 (100.0%)	0 (0.0%)	87 (100.0%)	1 (100.0%)	81 (100.0%)	7 (100.0%)	85 (100.0%)	3 (100.0%)

라) 가정경제수준별

(1) 일반학생

가정경제수준별 일반학생의 직장생활 부적응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직장생활 부적응 문제 중 단순 부적응 문제를 겪은 학생은 가정경제수준이 '보통', '잘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50%로 나타났고, 성문제의 경우 '보통'이 55.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잘사는 편'이 33.3%로 나타났다. 인격모독(폭행, 폭언)의 문제와 폭력시도 문제를 겪었다고 응답한 학생은 없었다.

표 131. 가정경제수준별 일반학생 직장생활 부적응

(단위 : 명)

가정 경제수준	단순부적응		인격모독(폭행, 폭언)		성문제		폭력시도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매우 어려운 편	2 (0.6%)	0 (0.0%)	2 (0.6%)	0 (0.0%)	2 (0.6%)	0 (0.0%)	2 (0.6%)	0 (0.0%)
어려운 편	30 (8.7%)	0 (0.0%)	30 (8.7%)	0 (0.0%)	29 (8.6%)	1 (11.1%)	30 (8.7%)	0 (0.0%)
보통	235 (68.3%)	1 (50.0%)	236 (68.2%)	0 (0.0%)	231 (68.5%)	5 (55.6%)	236 (68.2%)	0 (0.0%)
잘사는 편	67 (19.5%)	1 (50.0%)	68 (19.7%)	0 (0.0%)	65 (19.3%)	3 (33.3%)	68 (19.7%)	0 (0.0%)
매우 잘사는 편	10 (2.9%)	0 (0.0%)	10 (2.9%)	0 (0.0%)	10 (3.0%)	0 (0.0%)	10 (2.9%)	0 (0.0%)
전체	344 (100.0%)	2 (100.0%)	346 (100.0%)	0 (0.0%)	337 (100.0%)	9 (100.0%)	346 (100.0%)	0 (0.0%)

(2) 취약·위기청소년

가정경제수준별 취약·위기청소년의 직장생활 부적응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직장생활 부적응 문제 중 인격모독(폭행, 폭언)의 문제를 겪은 학생은 가정경제수준이 ‘매우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00%로 나타났고, 성문제의 경우 ‘어려운 편’이 42.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보통’이 28.6%순으로 나타났다. 폭력시도 문제의 경우 ‘매우 어려운 편’, ‘보통’, ‘잘사는 편’이 각각 33.3%로 나타났다. 단순 부적응 문제를 겪었다고 응답한 학생은 없었다.

표 132. 가정경제수준별 취약·위기청소년 직장생활 부적응

(단위 : 명)

가정 경제수준	단순부적응		인격모독(폭행, 폭언)		성문제		폭력시도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매우 어려운 편	1 (1.1%)	0 (0.0%)	0 (0.0%)	1 (100.0%)	0 (0.0%)	1 (14.3%)	0 (0.0%)	1 (33.3%)
어려운 편	21 (23.9%)	0 (0.0%)	21 (24.1%)	0 (0.0%)	18 (22.2%)	3 (42.9%)	21 (24.7%)	0 (0.0%)
보통	59 (67.0%)	0 (0.0%)	59 (67.8%)	0 (0.0%)	57 (70.4%)	2 (28.6%)	58 (68.2%)	1 (33.3%)
잘사는 편	7 (8.0%)	0 (0.0%)	7 (8.0%)	0 (0.0%)	6 (7.4%)	1 (14.3%)	6 (7.1%)	1 (33.3%)
매우 잘사는 편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전체	88 (100.0%)	0 (0.0%)	87 (100.0%)	1 (100.0%)	81 (100.0%)	7 (100.0%)	85 (100.0%)	3 (100.0%)

4.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가.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1) 일반학생

일반학생의 인터넷·스마트폰중독 위기결과별 위기수준을 제시하였다. 인터넷·스마트폰중독 위기결과 중 고위험군은 과다사용 55.6%, 일상생활장애 42.9%, 금단은 46.0%로 나타났으며, 잠재적 위험군은 과다사용 57.6%, 일상생활장애 36.9%, 금단은 30.9%로 나타났다. 일반군은 과다사용 18.4%, 일상생활장애 2.1%, 금단은 8.2%로 나타났다.

표 133. 일반학생의 인터넷·스마트폰중독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단위 : 명)

위기수준	과다사용			일상생활장애			금단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고위험군	28 (44.4%)	35 (55.6%)	63 (100.0%)	36 (57.1%)	27 (42.9%)	63 (100.0%)	34 (54.0%)	29 (46.0%)	63 (100.0%)
잠재적 위험군	162 (42.4%)	220 (57.6%)	382 (100.0%)	241 (63.1%)	141 (36.9%)	382 (100.0%)	264 (69.1%)	118 (30.9%)	382 (100.0%)
일반군	1,916 (81.6%)	433 (18.4%)	2,349 (100.0%)	2,308 (97.9%)	49 (2.1%)	2,357 (100.0%)	2,164 (91.8%)	193 (8.2%)	2,357 (100.0%)
전체	2,106 (75.4%)	688 (24.6%)	2,794 (100.0%)	2,585 (92.3%)	217 (7.7%)	2,802 (100.0%)	2,462 (87.9%)	340 (12.1%)	2,802 (100.0%)

2) 취약·위기청소년

취약·위기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중독 위기수준을 제시하였다. 인터넷·스마트폰중독 위기 결과 중 고위험군은 과다사용 56.2%, 일상생활장애 37.5%, 금단은 31.2%로 나타났으며, 잠재적 위험군은 과다사용 65.9%, 일상생활장애 29.3%, 금단은 19.5%로 나타났다. 일반군은 과다사용 36.1%, 일상생활장애 13.2%, 금단은 11.1%로 나타났다

표 134. 취약·위기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중독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단위 : 명)

위기수준	과다사용			일상생활장애			금단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고위험군	7 (43.8%)	9 (56.2%)	16 (100.0%)	10 (62.5%)	6 (37.5%)	16 (100.0%)	11 (68.8%)	5 (31.2%)	16 (100.0%)
잠재적 위험군	14 (34.1%)	27 (65.9%)	41 (100.0%)	29 (70.7%)	12 (29.3%)	41 (100.0%)	33 (80.5%)	8 (19.5%)	41 (100.0%)
일반군	71 (81.6%)	16 (18.4%)	87 (100.0%)	86 (98.9%)	1 (1.1%)	87 (100.0%)	84 (96.6%)	3 (3.4%)	87 (100.0%)
전체	92 (63.9%)	52 (36.1%)	144 (100.0%)	125 (86.8%)	19 (13.2%)	144 (100.0%)	128 (88.9%)	16 (11.1%)	144 (100.0%)

나. 약물

1) 일반학생

일반학생의 약물 위기 결과별 위기수준을 제시하였다. 고위험군은 음주 7.9%, 흡연 19.0%, 가스나 마약 9.5%로 나타났으며, 잠재적 위험군은 음주 0.8%, 흡연 5.8%, 가스나 마약 0.3%로 나타났다. 일반군은 흡연 1.1%, 가스나 마약 0.2%로 나타났다.

표 135. 일반학생의 약물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단위 : 명)

위기수준	술			담배			가스나 마약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고위험군	58 (92.1%)	5 (7.9%)	63 (100.0%)	51 (81.0%)	12 (19.0%)	63 (100.0%)	57 (90.5%)	6 (9.5%)	63 (66.7%)
잠재적 위험군	379 (99.2%)	3 (0.8%)	382 (100.0%)	360 (94.2%)	22 (5.8%)	382 (100.0%)	381 (99.7%)	1 (0.3%)	382 (11.1%)
일반군	2,357 (100.0%)	0 (0.0%)	2,357 (100.0%)	2,331 (98.9%)	26 (1.1%)	2,357 (100.0%)	2,353 (99.8%)	2 (0.2%)	2,355 (22.2%)
전체	2,794 (99.7%)	8 (0.3%)	2,802 (100.0%)	2,742 (97.9%)	60 (2.1%)	2,802 (100.0%)	2,791 (99.7%)	9 (0.3%)	2,800 (100.0%)

2) 취약·위기청소년

취약·위기청소년의 약물 위기 결과별 위기수준을 제시하였다. 고위험군은 음주 12.5%, 흡연 31.2%, 가스나 마약 12.5%로 나타났으며, 잠재적 위험군은 음주 4.9%, 흡연 26.8%, 가스나 마약 경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군은 음주 1.1%, 흡연 10.3%, 가스나 마약 경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6. 취약·위기청소년의 약물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단위 : 명)

위기수준	술			담배			가스나 마약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고위험군	14 (87.5%)	2 (12.5%)	16 (100.0%)	11 (68.8%)	5 (31.2%)	16 (100.0%)	14 (87.5%)	2 (12.5%)	16 (100.0%)
잠재적 위험군	39 (95.1%)	2 (4.9%)	41 (100.0%)	30 (73.1%)	11 (26.8%)	41 (100.0%)	41 (100.0%)	0 (0.0%)	41 (100.0%)
일반군	86 (98.9%)	1 (1.1%)	87 (100.0%)	78 (89.7%)	9 (10.3%)	87 (100.0%)	87 (100.0%)	0 (0.0%)	87 (100.0%)
전체	139 (96.5%)	5 (3.5%)	144 (100.0%)	119 (82.6%)	25 (17.4%)	144 (100.0%)	142 (98.6%)	2 (1.4%)	144 (100.0%)

다. 도박

1) 일반학생

일반학생의 도박 위기 결과별 위기수준을 제시하였다. 고위험군 15.9%, 잠재적 위험군 2.1%, 일반군 0.2%로 나타났다.

표 137. 일반학생의 도박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단위 : 명)

위기수준	도박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고위험군	53 (84.1%)	10 (15.9%)	63 (100.0%)
잠재적 위험군	374 (97.9%)	8 (2.1%)	382 (100.0%)
일반군	2,352 (99.8%)	5 (0.2%)	2,357 (100.0%)
전체	2,779 (99.2%)	23 (0.8%)	2,802 (100.0%)

2) 취약·위기청소년

취약·위기청소년의 도박 위기 결과별 위기수준을 제시하였다. 고위험군 6.2%, 잠재적 위험군 4.9%으로 나타났고, 일반군은 도박문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8. 취약·위기청소년 도박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단위 : 명)

위기수준	도박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고위험군	15 (93.8%)	1 (6.2%)	16 (100.0%)
잠재적 위험군	39 (95.1%)	2 (4.9%)	41 (100.0%)
일반군	87 (100.0%)	0 (0.0%)	87 (100.0%)
전체	141 (97.9%)	3 (2.1%)	144 (100.0%)

라. 학교폭력 피해

1) 일반학생

일반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위기결과별 위기수준을 제시하였다. 고위험군은 신체폭력 6.3%, 언어폭력 12.7%, 따돌림 4.8%, 돈, 물건빼앗김 6.3%, 사이버폭력 1.6%로 나타났으며, 잠재적 위험군 신체폭력 1.3%, 언어폭력 3.4%, 따돌림 0.3%, 돈, 물건빼앗김 0.3%, 사이버폭력 0.3%로 나타났다. 일반군은 신체폭력 0.3%, 언어폭력 0.5%, 따돌림 0.3%, 돈, 물건빼앗김 0.1%, 사이버폭력 0.1%로 나타났다

표 139. 일반학생의 학교폭력피해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단위 : 명)

위기수 준	신체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돈, 물건빼앗김			사이버 폭력		
	해당 없음	해당 있음	전체	해당 없음	해당 있음	전체	해당 없음	해당 있음	전체	해당 없음	해당 있음	전체	해당 없음	해당 있음	전체
고위험군	59 (93.7%)	4 (6.3%)	63 (100.0%)	55 (87.3%)	8 (12.7%)	63 (100.0%)	60 (95.2%)	3 (4.8%)	63 (100.0%)	59 (93.7%)	4 (6.3%)	63 (100.0%)	62 (98.4%)	1 (1.6%)	63 (100.0%)
잠재적 위험군	377 (98.7%)	5 (1.3%)	382 (100.0%)	369 (96.6%)	13 (3.4%)	382 (100.0%)	380 (99.7%)	1 (0.3%)	381 (100.0%)	381 (99.7%)	1 (0.3%)	382 (100.0%)	381 (0.3%)	1 (0.3%)	382 (100.0%)
일반군	2,348 (99.7%)	8 (0.3%)	2,356 (100.0%)	2,346 (99.9%)	11 (0.5%)	2,357 (100.0%)	2,348 (99.7%)	8 (0.3%)	2,356 (100.0%)	2,354 (99.9%)	2 (0.1%)	2,356 (100.0%)	2,353 (0.1%)	3 (0.1%)	2,356 (100.0%)
전체	2,784 (99.4%)	17 (0.6%)	2,801 (100.0%)	2,770 (98.9%)	32 (1.1%)	2,802 (100.0%)	2,788 (99.8%)	12 (0.4%)	2,800 (100.0%)	2,794 (99.8%)	7 (0.2%)	2,801 (100.0%)	2,796 (99.8%)	5 (0.2%)	2,801 (100.0%)

2) 취약·위기청소년

취약·위기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 위기결과별 위기수준을 제시하였다. 고위험군은 언어폭력 25.0%, 따돌림 18.7%, 사이버폭력 18.7%로 나타났으며, 잠재적 위험군 신체폭력 2.4%, 언어폭력 2.4%, 따돌림 2.4%로 나타났다. 일반군은 언어폭력 1.1%로만 나타났다.

표 140. 취약·위기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단위 : 명)

위기수준	신체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돈, 물건 빼앗김			사이버 폭력		
	해당 없음	해당 있음	전체	해당 없음	해당 있음	전체	해당 없음	해당 있음	전체	해당 없음	해당 있음	전체	해당 없음	해당 있음	전체
고위험군	16 (100.0%)	0 (0.0%)	16 (100.0%)	12 (75.0%)	4 (25.0%)	16 (100.0%)	13 (81.3%)	3 (18.7%)	16 (100.0%)	16 (100.0%)	0 (0.0%)	16 (100.0%)	13 (81.3%)	3 (18.7%)	16 (100.0%)
잠재적 위험군	40 (97.6%)	1 (2.4%)	41 (100.0%)	40 (97.6%)	1 (2.4%)	41 (100.0%)	40 (97.6%)	1 (2.4%)	41 (100.0%)	41 (100.0%)	0 (0.0%)	41 (100.0%)	41 (100.0%)	0 (0.0%)	41 (100.0%)
일반군	87 (100.0%)	0 (0.0%)	87 (100.0%)	86 (98.9%)	1 (1.1%)	87 (100.0%)	87 (100.0%)	0 (0.0%)	87 (100.0%)	87 (100.0%)	0 (0.0%)	87 (100.0%)	86 (100.0%)	0 (0.0%)	86 (100.0%)
전체	143 (93.3%)	1 (0.7%)	144 (100.0%)	138 (95.8%)	6 (4.2%)	144 (100.0%)	140 (97.2%)	4 (2.8%)	144 (100.0%)	144 (100.0%)	0 (0.0%)	144 (100.0%)	140 (97.2%)	3 (2.1%)	143 (100.0%)

마. 학교폭력 가해

1) 일반학생

일반학생의 학교폭력 가해 위기결과별 위기수준을 제시하였다. 고위험군은 신체폭력 4.8%, 언어폭력 14.3%, 따돌림 6.3%, 돈, 물건빼앗음 6.3%, 사이버 폭력 3.2%, 잠재적 위험군은 신체폭력 0.8%, 언어폭력 2.1%, 돈, 사이버 폭력 0.3%으로 나타났다. 일반군은 신체폭력 0.2%, 언어폭력 0.4%, 따돌림 0.1%, 돈, 물건빼앗음 0.1%로 나타났다.

표 141. 일반학생의 학교폭력가해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단위 : 명)

위기수 준	신체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돈, 물건빼앗음			사이버 폭력		
	해당 없음	해당 있음	전체	해당 없음	해당 있음	전체	해당 없음	해당 있음	전체	해당 없음	해당 있음	전체	해당 없음	해당 있음	전체
고위험군	60 (95.2%)	3 (4.8%)	63 (100.0%)	54 (85.7%)	9 (14.3%)	63 (100.0%)	59 (93.7%)	4 (6.3%)	63 (100.0%)	59 (93.7%)	4 (6.3%)	63 (100.0%)	61 (96.8%)	2 (3.2%)	63 (100.0%)
잠재적 위험군	379 (99.2%)	3 (0.8%)	382 (100.0%)	374 (97.9%)	8 (2.1%)	382 (100.0%)	382 (100.0%)	0 (0.0%)	382 (100.0%)	382 (100.0%)	0 (0.0%)	382 (100.0%)	381 (99.7%)	1 (0.3%)	382 (100.0%)
일반군	2,352 (99.8%)	4 (0.2%)	2,356 (100.0%)	2,346 (99.6%)	10 (0.4%)	2,356 (100.0%)	2,354 (99.9%)	2 (0.1%)	2,356 (100.0%)	2,355 (99.9%)	1 (0.1%)	2,356 (100.0%)	2,357 (100.0%)	0 (0.0%)	2,357 (100.0%)
전체	2,791 (99.6%)	10 (0.4%)	2,801 (100.0%)	2,774 (99.0%)	27 (1.0%)	2,801 (100.0%)	2,795 (99.8%)	6 (0.2%)	2,801 (100.0%)	2,796 (99.8%)	5 (0.2%)	2,801 (100.0%)	2,799 (99.9%)	3 (0.1%)	2,802 (100.0%)

2) 취약·위기청소년

취약·위기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 위기결과별 위기수준을 제시하였다. 고위험군은 신체폭력 12.5%, 언어폭력 12.5%, 따돌림 6.2%, 잠재적 위험군은 언어폭력 2.4%로 나타났다. 일반군도 언어폭력만 1.1%로 나타났다.

표 142. 취약·위기청소년의 학교폭력가해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단위 : 명)

위기 수준	신체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돈·물건빼앗음			사이버 폭력		
	해당 없음	해당 있음	전체	해당 없음	해당 있음	전체	해당 없음	해당 있음	전체	해당 없음	해당 있음	전체	해당 없음	해당 있음	전체
고위험군	14 (87.5%)	2 (12.5%)	16 (100.0%)	14 (87.5%)	2 (12.5%)	16 (100.0%)	15 (93.8%)	1 (6.2%)	16 (100.0%)	16 (100.0%)	0 (0.0%)	16 (100.0%)	16 (100.0%)	0 (0.0%)	16 (100.0%)
잠재적 위험군	41 (100.0%)	0 (0.0%)	41 (100.0%)	40 (97.6%)	1 (2.4%)	41 (100.0%)	41 (100.0%)	0 (0.0%)	41 (100.0%)	41 (100.0%)	0 (0.0%)	41 (100.0%)	41 (100.0%)	0 (0.0%)	41 (100.0%)
일반군	87 (100.0%)	0 (0.0%)	87 (100.0%)	86 (98.9%)	1 (1.1%)	87 (100.0%)	86 (100.0%)	0 (0.0%)	86 (100.0%)	87 (100.0%)	0 (0.0%)	87 (100.0%)	87 (100.0%)	0 (0.0%)	87 (100.0%)
전체	142 (93.8%)	2 (1.4%)	144 (100.0%)	140 (97.2%)	4 (2.8%)	144 (100.0%)	142 (98.3%)	1 (0.7%)	143 (100.0%)	144 (100.0%)	0 (0.0%)	144 (100.0%)	144 (100.0%)	0 (0.0%)	144 (100.0%)

바. 비행

1) 일반학생

일반학생의 비행 위기결과별 위기수준을 제시하였다. 고위험군은 갈취 1.6%, 절도 4.8%, 잠재적 위험군은 갈취 및 절도 모두 해당없음으로 나타났다. 일반군은 갈취 0.1%, 절도 0.1%로 나타났다.

표 143. 일반학생의 비행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단위 : 명)

위기수준	갈취			절도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고위험군	62 (98.4%)	1 (1.6%)	63 (100.0%)	60 (95.2%)	3 (4.8%)	63 (100.0%)
잠재적 위험군	382 (100.0%)	0 (0.0%)	382 (100.0%)	382 (100.0%)	0 (0.0%)	382 (100.0%)
일반군	2,356 (99.9%)	1 (0.1%)	2,357 (100.0%)	2,356 (99.9%)	1 (0.1%)	2,357 (100.0%)
전체	2,800 (99.9%)	2 (0.1%)	2,802 (100.0%)	2,798 (99.9%)	4 (0.1%)	2,802 (100.0%)

2) 취약·위기청소년

취약·위기청소년의 비행 위기결과별 위기수준을 제시하였다.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일반군 모두 해당없음으로 나타났다.

표 144. 취약·위기청소년의 비행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단위 : 명)

위기수준	갈취			절도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고위험군	16 (100.0%)	0 (0.0%)	16 (100.0%)	16 (100.0%)	0 (0.0%)	16 (100.0%)
잠재적 위험군	41 (100.0%)	0 (0.0%)	41 (100.0%)	41 (100.0%)	0 (0.0%)	41 (100.0%)
일반군	87 (100.0%)	0 (0.0%)	87 (100.0%)	87 (100.0%)	0 (0.0%)	87 (100.0%)
전체	144 (100.0%)	0 (0.0%)	144 (100.0%)	144 (100.0%)	0 (0.0%)	144 (100.0%)

사. 학대·방임

1) 일반학생

일반학생의 학대·방임 위기결과별 위기수준을 제시하였다. 고위험군은 신체적 학대 6.5%, 정서적 학대 17.5%, 방임 6.3%로 나타났고, 잠재적 위험군은 정서적 학대 0.5%로 나타났다. 일반군은 신체적 학대 0.2%, 정서적 학대 0.4%로 나타났다.

표 145. 일반학생의 학대·방임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위기수준	(단위 : 명)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고위험군	58 (93.5%)	4 (6.5%)	62 (100.0%)	52 (82.5%)	11 (17.5%)	63 (100.0%)	59 (93.7%)	4 (6.3%)	63 (100.0%)
잠재적 위험군	382 (100.0%)	0 (0.0%)	382 (100.0%)	380 (99.5%)	2 (0.5%)	382 (100.0%)	382 (100.0%)	0 (0.0%)	382 (100.0%)
일반군	2,351 (99.8%)	5 (0.2%)	2,356 (100.0%)	2,347 (99.6%)	9 (0.4%)	2,356 (100.0%)	2,357 (100.0%)	0 (0.0%)	2,357 (100.0%)
전체	2,791 (99.7%)	9 (0.3%)	2,800 (100.0%)	2,779 (99.2%)	22 (0.8%)	2,801 (100.0%)	2,798 (99.9%)	4 (0.1%)	2,802 (100.0%)

2) 취약·위기청소년

취약·위기청소년의 학대·방임 위기결과별 위기수준을 제시하였다. 고위험군은 신체적 학대 12.5%, 정서적 학대 18.7%, 방임 0.3%로 나타났고, 잠재적 위험군은 정서적 학대 2.4%로 나타났다. 일반군은 모두 해당없음으로 나타났다.

표 146. 취약·위기청소년의 학대·방임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위기수준	(단위 : 명)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고위험군	14 (87.5%)	2 (12.5%)	16 (100.0%)	13 (81.3%)	3 (18.7%)	16 (100.0%)	15 (93.7%)	1 (0.3%)	16 (100.0%)
잠재적 위험군	41 (100.0%)	0 (0.0%)	41 (100.0%)	40 (97.6%)	1 (2.4%)	41 (100.0%)	41 (100.0%)	0 (0.0%)	41 (100.0%)
일반군	87 (100.0%)	0 (0.0%)	87 (100.0%)	86 (100.0%)	0 (0.0%)	86 (100.0%)	87 (100.0%)	0 (0.0%)	87 (100.0%)
전체	142 (98.6%)	2 (1.4%)	144 (100.0%)	139 (97.2%)	4 (2.8%)	143 (100.0%)	143 (99.3%)	1 (0.7%)	144 (100.0%)

아. 자살

1) 일반학생

일반학생의 자살 위기결과별 위기수준을 제시하였다. 고위험군은 자살계획 28.6%, 자살시도 50.8%로 나타났고, 잠재적 위험군은 자살계획 3.7%, 자살시도 13.6%로 나타났다. 일반군은 자살계획 0.8%, 자살시도 2.8%로 나타났다

표 147. 일반학생의 자살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단위 : 명)

위기수준	자살계획			자살시도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고위험군	45 (71.4%)	18 (28.6%)	63 (100.0%)	31 (49.2%)	32 (50.8%)	63 (100.0%)
잠재적 위험군	368 (96.3%)	14 (3.7%)	382 (100.0%)	330 (86.4%)	52 (13.6%)	382 (100.0%)
일반군	2,337 (99.2%)	20 (0.8%)	2,357 (100.0%)	2,291 (97.2%)	65 (2.8%)	2,356 (100.0%)
전체	2,750 (98.1%)	52 (1.9%)	2,802 (100.0%)	2,652 (94.7%)	149 (5.3%)	2,801 (100.0%)

2) 취약·위기청소년

자살 위기결과별 위기수준을 제시하였다. 고위험군은 자살계획 18.7%, 자살시도 62.5%로 나타났고, 잠재적 위험군은 자살계획 19.5%, 자살시도 19.5%로 나타났다. 일반군은 자살계획 1.1%, 자살시도는 해당없음으로 나타났다.

표 148. 취약·위기청소년의 자살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단위 : 명)

위기수준	자살계획			자살시도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고위험군	13 (81.3%)	3 (18.7%)	16 (100.0%)	6 (37.5%)	10 (62.5%)	16 (100.0%)
잠재적 위험군	33 (80.5%)	8 (19.5%)	41 (100.0%)	33 (80.5%)	8 (19.5%)	41 (100.0%)
일반군	86 (98.9%)	1 (1.1%)	87 (100.0%)	86 (100.0%)	0 (0.0%)	86 (100.0%)
전체	132 (91.7%)	12 (8.3%)	144 (100.0%)	125 (87.4%)	18 (12.6%)	143 (100.0%)

자. 성문제

1) 일반학생

일반학생의 취약·위기청소년의 성문제 위기결과별 위기수준을 제시하였다. 고위험군은 성매매 15.9%, 성폭력 20.6%, 성폭력 시도 14.3%, 원치않는 임신출산 9.5%, 잠재적 위험군 성폭력 1.8%, 성폭력 시도 0.5%, 원치않는 임신 출산 0.5%로 나타났다. 일반군은 성폭력 0.2%, 원치않는 임신출산 0.1%로 나타났다.

표 149. 일반학생의 성문제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단위 : 명)

위기수준	성매매			성폭력			성폭력 시도			원치않는 임신출산		
	해당 없음	해당 있음	전체	해당 없음	해당 있음	전체	해당 없음	해당 있음	전체	해당 없음	해당 있음	전체
고위험군	53 (84.1%)	10 (15.9%)	63 (100.0%)	50 (79.4%)	13 (20.6%)	63 (100.0%)	54 (85.7%)	9 (14.3%)	63 (100.0%)	57 (90.5%)	6 (9.5%)	63 (100.0%)
잠재적 위험군	382 (100.0%)	0 (0.0%)	382 (100.0%)	375 (98.2%)	7 (1.8%)	382 (100.0%)	380 (99.5%)	2 (0.5%)	382 (100.0%)	380 (99.5%)	2 (0.5%)	382 (100.0%)
일반군	1,646 (100.0%)	0 (0.0%)	1,646 (100.0%)	1,642 (99.8%)	3 (0.2%)	1,645 (100.0%)	1,645 (100.0%)	0 (0.0%)	1,645 (100.0%)	1,642 (99.9%)	2 (0.1%)	1,644 (100.0%)
전체	2,081 (99.5%)	10 (0.5%)	2,091 (100.0%)	2,067 (98.9%)	23 (1.1%)	2,090 (100.0%)	2,079 (99.5%)	11 (0.5%)	2,090 (100.0%)	2,079 (99.5%)	10 (0.5%)	2,089 (100.0%)

2) 취약·위기청소년

취약·위기청소년의 성문제 위기결과별 위기수준을 제시하였다. 고위험군은 성매매 18.7%, 성폭력 18.7%, 성폭력 시도 18.7%, 원치않는 임신 출산 6.2%, 잠재적 위험군은 성매매 2.4%, 성폭력 시도 2.4%, 원치 않는 임신 출산 2.4%로 나타났다. 일반군은 원치않는 임신 출산 3.4%로 나타났다.

표 150. 취약·위기청소년의 성문제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단위 : 명)

위기수준	성매매			성폭력			성폭력 시도			원치않는 임신출산		
	해당 없음	해당 있음	전체	해당 없음	해당 있음	전체	해당 없음	해당 있음	전체	해당 없음	해당 있음	전체
고위험군	13 (81.3%)	3 (18.7%)	16 (100.0%)	13 (81.3%)	3 (18.7%)	16 (100.0%)	13 (81.3%)	3 (18.7%)	16 (100.0%)	15 (93.8%)	1 (6.2%)	16 (100.0%)
잠재적 위험군	40 (97.6%)	1 (2.4%)	41 (100.0%)	41 (100.0%)	0 (0.0%)	41 (100.0%)	40 (97.6%)	1 (2.4%)	41 (100.0%)	40 (97.6%)	1 (2.4%)	41 (100.0%)
일반군	87 (100.0%)	0 (0.0%)	87 (100.0%)	87 (100.0%)	0 (0.0%)	87 (100.0%)	87 (100.0%)	0 (0.0%)	87 (100.0%)	84 (96.6%)	3 (3.4%)	87 (100.0%)
전체	140 (97.2%)	4 (2.8%)	144 (100.0%)	141 (97.9%)	3 (2.1%)	144 (100.0%)	140 (97.2%)	4 (2.8%)	144 (100.0%)	139 (96.5%)	5 (3.5%)	144 (100.0%)

차. 가출

1) 일반학생

일반학생의 가출 위기결과별 위기수준을 제시하였다. 고위험군은 가출경험 22.4%, 가출팸 7.9%, 현재 가출상태 6.9%, 잠재적 위험군은 가출경험 5.9%, 현재 가출상태 0.3%로 나타났다. 일반군은 가출경험 1.1%, 가출팸 0.1%, 현재 가출상태 0.1%로 나타났다.

표 151. 일반학생의 가출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단위 : 명)

위기수준	가출경험			가출팸			현재가출상태		
	해당 없음	해당 있음	전체	해당 없음	해당 있음	전체	해당 없음	해당 있음	전체
고위험군	38 (77.6%)	11 (22.4%)	49 (100.0%)	58 (92.1%)	5 (7.9%)	63 (100.0%)	59 (93.7%)	4 (6.9%)	63 (100.0%)
잠재적 위험군	301 (94.1%)	19 (5.9%)	320 (100.0%)	382 (100.0%)	0 (0.0%)	382 (100.0%)	381 (99.7%)	1 (0.3%)	382 (100.0%)
일반군	1,401 (98.9%)	16 (1.1%)	1,417 (100.0%)	2,354 (99.9%)	3 (0.1%)	2,357 (100.0%)	2,353 (99.9%)	3 (0.1%)	2,356 (100.0%)
전체	1,740 (97.4%)	46 (2.6%)	1,786 (100.0%)	2,794 (99.7%)	8 (0.3%)	2,802 (100.0%)	2,793 (99.7%)	8 (0.3%)	2,801 (100.0%)

2) 취약·위기청소년

취약·위기청소년의 가출 위기결과별 위기수준을 제시하였다. 고위험군은 가출경험 31.2%, 가출팸 6.2%, 현재 가출상태 12.5%, 잠재적 위험군은 가출경험 14.6%, 가출팸 2.4%로 나타났다. 일반군은 가출경험 8.2%, 현재 가출상태 1.1%로 나타났다.

표 152. 취약·위기청소년의 가출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단위 : 명)

위기 수준	가출경험			가출팸			현재가출상태		
	해당 없음	해당 있음	전체	해당 없음	해당 있음	전체	해당 없음	해당 있음	전체
고위험군	11 (68.8%)	5 (31.2%)	16 (100.0%)	15 (93.8%)	1 (6.2%)	16 (100.0%)	14 (87.5%)	2 (12.5%)	16 (100.0%)
잠재적 위험군	35 (85.4%)	6 (14.6%)	41 (100.0%)	40 (97.6%)	1 (2.4%)	41 (100.0%)	41 (100.0%)	0 (0.0%)	41 (100.0%)
일반군	78 (91.8%)	7 (8.2%)	85 (100.0%)	87 (100.0%)	0 (0.0%)	87 (100.0%)	86 (98.9%)	1 (1.1%)	87 (100.0%)
전체	124 (87.3%)	18 (12.7%)	142 (100.0%)	142 (98.6%)	2 (1.4%)	144 (100.0%)	141 (97.9%)	3 (2.1%)	144 (100.0%)

카. 학업중단

1) 일반학생

일반학생의 학업중단 위기결과별 위기수준을 제시하였다. 고위험군 3.2%, 잠재적 위험군 0.5%, 일반군 0.2%로 나타났다.

표 153. 일반학생의 학업중단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단위 : 명)

위기수준	학업중단 및 학교부적응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고위험군	61 (96.8%)	2 (3.2%)	63 (100.0%)
잠재적위험군	380 (99.5%)	2 (0.5%)	382 (100.0%)
일반군	1,642 (99.8%)	4 (0.2%)	1,646 (100.0%)
전체	2,083 (99.6%)	8 (0.4%)	2,091 (100.0%)

2) 취약·위기청소년

취약·위기청소년의 학업중단 위기결과별 위기수준을 제시하였다. 고위험군 75.0%, 잠재적 위험군 90.2%, 일반군 71.3%로 나타났다.

표 154. 취약·위기청소년의 학업중단 및 학교부적응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단위 : 명)

위기수준	학업중단		
	해당없음	해당있음	전체
고위험군	4 (25.0%)	12 (75.0%)	16 (100.0%)
잠재적위험군	4 (9.8%)	37 (90.2%)	41 (100.0%)
일반군	25 (28.7%)	62 (71.3%)	87 (100.0%)
전체	33 (22.9%)	111 (77.1%)	144 (100.0%)

타. 직장생활 부적응

1) 일반학생

중·고등학생 중 일반학생의 직장생활 부적응 위기결과별 위기수준을 제시하였다. 고위험군은 단순부적응 9.5%, 성문제 9.5%로 나타났고, 잠재적 위험군은 성문제 5.5%로 나타났다. 일반군은 성문제 1.2%로 나타났다.

표 155. 일반학생의 직장생활 부적응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단위 : 명)

위기수준	단순부적응			인격모독(폭행,폭언)			성문제			폭력시도		
	해당 없음	해당 있음	전체	해당 없음	해당 있음	전체	해당 없음	해당 있음	전체	해당 없음	해당 있음	전체
고위험군	19 (90.5%)	2 (9.5%)	21 (100.0%)	21 (100.0%)	0 (0.0%)	21 (0.0%)	19 (90.5%)	2 (9.5%)	21 (100.0%)	21 (100.0%)	0 (0.0%)	21 (100.0%)
잠재적 위험군	73 (100.0%)	0 (0.0%)	73 (100.0%)	73 (100.0%)	0 (0.0%)	73 (0.0%)	69 (94.5%)	4 (5.5%)	73 (100.0%)	73 (100.0%)	0 (0.0%)	73 (100.0%)
일반군	252 (100.0%)	0 (0.0%)	252 (100.0%)	252 (100.0%)	0 (0.0%)	252 (0.0%)	249 (98.8%)	3 (1.2%)	252 (100.0%)	252 (100.0%)	0 (0.0%)	252 (100.0%)
전체	344 (99.4%)	2 (0.6%)	346 (100.0%)	346 (100.0%)	0 (0.0%)	346 (0.0%)	337 (97.4%)	9 (2.6%)	346 (100.0%)	346 (100.0%)	0 (0.0%)	346 (100.0%)

2) 취약·위기청소년

취약·위기청소년의 직장생활 부적응 위기결과별 위기수준을 제시하였다. 고위험군은 인격모독(폭행, 폭언) 10.0%, 성문제 40.0%, 폭력시도 20.0%로 나타났고, 잠재적 위험군은 성문제 4.0%, 폭력시도 4.0%로 나타났다. 일반군은 성문제 3.8%로 나타났다.

표 156. 취약·위기청소년의 직장생활 부적응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단위 : 명)

위기수준	단순부적응			인격모독(폭행, 폭언)			성문제			폭력시도		
	해당없음	해당 있음	전체	해당없음	해당 있음	전체	해당없음	해당 있음	전체	해당없음	해당 있음	전체
고위험군	10 (100.0%)	0 (0.0%)	10 (100.0%)	9 (90.0%)	1 (10.0%)	10 (100.0%)	6 (60.0%)	4 (40.0%)	10 (100.0%)	8 (80.0%)	2 (20.0%)	10 (100.0%)
잠재적 위험군	25 (100.0%)	0 (0.0%)	25 (100.0%)	25 (100.0%)	0 (0.0%)	25 (100.0%)	24 (96.0%)	1 (4.0%)	25 (100.0%)	24 (96.0%)	1 (4.0%)	25 (100.0%)
일반군	53 (100.0%)	0 (0.0%)	53 (100.0%)	53 (100.0%)	0 (0.0%)	53 (100.0%)	51 (96.2%)	2 (3.8%)	53 (100.0%)	53 (100.0%)	0 (0.0%)	53 (100.0%)
전체	88 (100.0%)	0 (0.0%)	88 (100.0%)	87 (98.9%)	1 (1.1%)	88 (100.0%)	81 (92.0%)	7 (8.0%)	88 (100.0%)	85 (96.6%)	3 (3.4%)	88 (100.0%)

5. 보호요인

가. 보호요인 차이

조사대상 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보호요인의 평균 점수와 표준편차를 구하고 집단 간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래의 표는 일반학생과 취약·위기청소년 간 보호요인 차이를 제시하였는데, 모든 대상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일반학생이 모든 문항에서 취약·위기 청소년 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표 157. 대상별 보호요인 차이

구분	대상	N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개인	일반학생	2,801	3.01	0.75	.000***
	취약·위기청소년	144	2.60	0.91	
가정	일반학생	2,801	3.24	0.80	.000***
	취약·위기청소년	144	2.74	1.01	
또래	일반학생	2,802	3.37	0.78	.000***
	취약·위기청소년	144	2.63	1.15	
학교	일반학생	2,801	2.97	0.92	.000***
	취약·위기청소년	143	2.47	1.11	
지역사회	일반학생	2,801	2.47	1.00	.001**
	취약·위기청소년	144	2.13	1.21	

* $p < 0.05$, ** $p < 0.01$, *** $p < 0.001$

나. 위기수준별 보호요인 차이

1) 일반학생

일반학생의 위기수준별 보호요인의 평균 점수 및 표준편차는 아래의 표와 같다. 일반 학생의 경우 일반군 집단이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 집단에 비해 보호요인 점수가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호요인 세부영역 모두 위기수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8. 일반학생의 위기수준별 보호요인 차이

구분	위기수준	N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개인	고위험군	63	2.43	0.79	.000***
	잠재적위험군	382	2.68	0.68	
	일반군	2,356	3.07	0.73	
	합계	2,801	3.01	0.75	
가정	고위험군	63	2.28	1.02	.000***
	잠재적위험군	382	2.85	0.85	
	일반군	2,356	3.33	0.75	
	합계	2,801	3.24	0.80	
또래	고위험군	63	2.90	0.98	.000***
	잠재적위험군	382	3.18	0.79	
	일반군	2,357	3.42	0.76	
	합계	2,802	3.37	0.78	
학교	고위험군	63	2.52	1.14	.000***
	잠재적위험군	382	2.65	0.91	
	일반군	2,356	3.03	0.90	
	합계	2,801	2.97	0.92	
지역사회	고위험군	63	1.62	0.88	.000***
	잠재적위험군	382	1.97	0.97	
	일반군	2,356	2.57	0.98	
	합계	2,801	2.47	1.00	

* $p < 0.05$, ** $p < 0.01$, *** $p < 0.001$

2) 취약·위기청소년

취약·위기청소년의 위기수준별 보호요인의 평균 점수 및 표준편차는 아래의 표와 같다. 취약·위기청소년의 경우 일반군 집단이 고위험 보호요인 세부영역 중 개인, 가정, 지역사회에서 위기수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9. 취약·위기청소년의 위기수준별 보호요인 차이

구분	위기수준	N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개인	고위험군	13	1.98	0.79	.000***
	잠재적위험군	39	2.27	0.85	
	일반군	87	2.82	0.89	
	합계	139	2.59	0.92	
가정	고위험군	13	1.46	0.73	.000***
	잠재적위험군	39	2.47	0.80	
	일반군	87	3.05	0.97	
	합계	139	2.74	1.02	
또래	고위험군	13	2.19	1.27	.352
	잠재적위험군	39	2.68	1.13	
	일반군	87	2.68	1.14	
	합계	139	2.63	1.15	
학교	고위험군	13	1.96	0.97	.202
	잠재적위험군	38	2.54	1.02	
	일반군	87	2.52	1.12	
	합계	138	2.47	1.09	
지역사회	고위험군	13	1.97	1.29	.008**
	잠재적위험군	39	1.67	1.04	
	일반군	87	2.38	1.22	
	합계	139	2.14	1.22	

* $p < 0.05$, ** $p < 0.01$, *** $p < 0.001$

2018년 충청남도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V. 결론

V. 결 론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충청남도 위기(가능)청소년에 전반적인 위기 실태파악을 통해 청소년 문제 예방과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 정책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진행되었다.

충남 도내 15개 시.군의 총 2,805명의 일반학생과 144명의 취약.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된 결과를 위험요인별 위기수준으로 구분하여 고위험군-잠재적위험군-일반군의 3집단 분류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내용으로는 (1) 15개 시.군 지역별 (2) 성별 (3) 소속기관별 (4) 거주형태별 (5) 부모출신국별 (6) 가정경제수준별 (7) 청소년전화 1388 인지 여부 (8)청소년전화 1388 이용 여부 (9)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지 여부 (1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 여부 (1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인지 여부 (12)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이용여부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위험요인 및 위기수준 분포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위기결과와 그에 따른 위기수준 분포를 (1)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2) 약물 (3) 도박 (4) 학교폭력 피해.가해 (5) 비행 및 범죄 (6) 학대 (7) 자살 (8) 성문제 (9) 가출 (10) 학업중단 (11) 직장 및 직업훈련기관 부적응 영역으로 분석하였으며, 위기수준별 보호요인 점수차이에 대해 (1) 개인 보호요인 (2) 가정 보호요인 (3) 또래 보호요인 (4) 학교 보호요인 (5) 지역사회 보호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에 따른 일반현황 중 특징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체 연구 대상자 2,949명 중 일반학생은 남성 1,207명(43.1%), 여성 1,596명(56.9%)이며, 취약.위기청소년은 남성 68명(47.2%), 여성 76명(52.8%)이다.

가정경제수준은 '어렵다' 또는 '매우 어렵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학생 5.5%에 비해 취약.위기청소년은 20.9%로 나타났으며, '매우 잘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학생 3.5%, 취약.위기청소년은 0.7%로 나타났다.

청소년전화 1388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일반학생 64.6%, 취약.위기청소년 77.1%로 높은 인지를 나타냈으며, 청소년전화 1388을 이용해 본 경

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일반학생 2.2%, 취약·위기청소년 18.0%로 나타나 일반학생에 비해 취약·위기청소년이 청소년전화 1388의 인지 및 이용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일반학생 65.0%, 취약·위기청소년 80.1%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반학생 4.8%, 취약·위기청소년 45.1%가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일반학생 48.5%, 취약·위기청소년 88.7%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이용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반학생 3.2%, 취약·위기청소년 75.7%가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에 따른 위기수준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위험요인은 개인, 가정, 또래, 학교 및 지역사회의 5가지 영역으로 살펴보았으며, 위험요인 총점을 이용하여 고위험군, 잠재적위험군, 일반군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취약·위기청소년의 고위험군 및 잠재적 위험군의 비율이 일반학생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학생의 경우 고위험군 2.3%, 잠재적 위험군 13.6%, 일반군 84.1%로 나타났으며, 취약·위기청소년의 경우 고위험군 11.1% 잠재적 위험군 28.5%, 일반군 60.4%로 나타났다.

일반학생과 취약·위기 청소년의 위기결과 수준을 비교해 본 결과, '인터넷·스마트폰 중독'과 '성문제'를 제외한 그 외의 위기결과는 모두 일반청소년과 취약·위기 청소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에 따른 위기영역별 위기결과 분포는 다음과 같다.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문제 성별 위기결과, 일반학생의 경우 과다사용은 남성 23.3%, 여성 25.7%, 일상생활장애는 남성 5.0%, 여성이 9.8%, 금단증상은 남성 7.8%, 여성 17.0%로 나타났다. 취약·위기청소년의 경우 과다사용은 남성 26.5%, 여성 44.7%, 일상생활장애는 남성 8.8%, 여성 17.1%, 금단증상은 남성 8.8%, 여성 13.2%로 나타나 여성이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문제는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문제 위기결과 성별에 따라 일반학생의 경우 남성은 성매매 0.7%, 성폭력 0.9%, 성폭력시도 0.7%, 원치 않는 임신·출산 0.5%로 나타났고, 여성은 성매매 0.3%, 성폭력 1.2%, 성폭력시도 0.4%, 원치 않는 임신·출산 0.5%로 나타났다. 취약·위기청소년은 남성은 성매매 1.5%, 성폭력 1.5%, 성폭력시도 2.9%로 나타났고, 여성은 성매매 3.9%, 성폭력 2.6%, 성폭력시도 2.6%, 원치 않는 임신·출산 6.6%로 나타나 취약·위기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성교육과 원치 않는 임신·출산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대안마련이 절실하다고 보여진다.

가출경험 위기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일반학생 남성은 가출경험 3.0%, 가출팸 이용경험 0.4%, 현재 가출상태 0.3%로 나타났고, 여성은 가출경험 1.9%, 가출팸 이용경험 0.2%, 현재 가출상태 0.2%로 나타났고, 취약·위기청소년 남성은 가출경험 10.4%, 가출팸 이용경험, 현재 가출상태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은 가출경험 14.7%, 가출팸 이용경험 3.9%, 현재 가출상태 2.6%로 나타났다. 가출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확보 및 시설확대가 필요하다.

가정경제수준별 위기결과 일반학생의 어려운 편은 가출경험 7.1%, 가출팸 2.1%, 현재 가출상태 2.8%로 나타났고, 보통은 가출경험 2.2%, 가출팸 0.2%, 현재 가출상태 0.1%로 나타났다. 잘사는 편은 가출경험 22.0%, 현재 가출상태 0.2%로 나타났고, 매우 잘사는 편은 가출팸 1.0%, 현재 가출상태 1.0%로 나타났고, 취약·위기청소년의 매우 어려운편은 가출경험 25.0%만 나타났고, 어려운 편은 가출경험 15.4%, 가출팸 3.8%, 현재 가출상태 7.7%로 나타났고, 보통은 가출경험 10.3%, 가출팸 1.0%로 나타났다. 잘사는 편은 가출경험 21.4%, 가출팸 7.1% 나타났고, 매우 잘사는 편은 가출경험, 가출팸, 현재 가출상태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학생은 가정경제수준과 큰 영향이 없었으나, 취약·위기청소년은 어려운 가정 경제로 인해 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결과별 위기수준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학생의 인터넷·스마트폰중독 위기결과 위기수준은 고위험군은 과다사용 55.6%, 일상생활장애 42.9%, 금단은 46.0%로 나타났으며, 잠재적 위험군은 과다사용 57.6%, 일상생활장애 36.9%, 금단은 30.9%, 일반군은 과다사용 18.4%, 일상생활장애 2.1%, 금단은 8.2%로 나타났다. 취약·위기청소년의 경우 고위험군은 과다사용 56.2%, 일상생활장애 37.5%, 금단은 31.2%로 나타났으며, 잠재적 위험군은 과다사용 65.9%, 일상생활장애 29.3%, 금단은 19.5%로 나타났고, 일반군은 과다사용 36.1%, 일상생활장애 13.2%, 금단은 11.1%로 나타났다.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에 해당하는 일반학생과 취약·위기청소년은 과다사용, 일상생활장애, 금단 증상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 연령별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일반학생의 약물 위기 결과별 위기수준은 고위험군은 음주 7.9%, 흡연 19.0%, 가스나 마약 9.5%로 나타났으며, 잠재적 위험군은 음주 0.8%, 흡연 5.8%, 가스나 마약 0.3%, 일반군은 흡연 1.1%, 가스나 마약 0.2%로 나타났다. 취약·위기청소년은 고위험군은 음주 12.5%, 흡연 31.2%, 가스나 마약 12.5%로 나타났으며, 잠재적 위험군은 음주 4.9%, 흡연 26.8%, 가스나 마약 경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군은 음주 1.1%, 흡연 10.3%, 가스나 마약 경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위기결과별 위기수준은 고위험군은 신체폭력 6.3%, 언어폭력 12.7%, 따돌림 4.8%, 돈, 물건 빼앗김 6.3%, 사이버폭력 1.6%로 나타났으며, 잠재적 위험군 신체폭력 1.3%, 언어폭력 3.4%, 따돌림 0.3%, 돈, 물건 빼앗김 0.3%, 사이버폭력 0.3%, 일반군은 신체폭력 0.3%, 언어폭력 0.5%, 따돌림 0.3%, 돈, 물건 빼앗김 0.1%, 사이버폭력 0.1%로 나타났다. 취약·위기청소년 고위험군은 언어폭력 25.0%, 따돌림 18.7%, 사이버폭력 18.7%로 나타났으며, 잠재적 위험군 신체폭력 2.4%, 언어폭력 2.4%, 따돌림 2.4%, 일반군은 언어폭력 1.1%로 나타났다.

일반학생의 학교폭력 가해 위기결과별 위기수준은 고위험군은 신체폭력 4.8%, 언어폭력 14.3%, 따돌림 6.3%, 돈, 물건 빼앗음 6.3%, 사이버 폭력 3.2%, 잠재적 위험군은 신체폭력 0.8%, 언어폭력 2.1%, 돈, 사이버 폭력 0.3%, 일반군은 신체폭력 0.2%, 언어폭력 0.4%, 따돌림 0.1%, 돈, 물건 빼앗음 0.1%로 나타났다. 취약·위기청소년 고위험군은 신체폭력 12.5%, 언어폭력 12.5%, 따돌림 6.2%, 잠재적 위험군은 언어폭력 2.4%, 일반군은 언어폭력만 1.1%로 나타났다.

일반학생의 학대·방임 위기결과별 위기수준은 고위험군은 신체적 학대 6.5%, 정서적 학대 17.5%, 방임 6.3%로 나타났고, 잠재적 위험군은 정서적 학대 0.5%, 일반군은 신체적 학대 0.2%, 정서적 학대 0.4%로 나타났다. 취약·위기청소년 고위험군은 신체적 학대 12.5%, 정서적 학대 18.7%, 방임 0.3%로 나타났고, 잠재적 위험군은 정서적 학대 2.4%, 일반군은 모두 해당없음으로 나타났다.

일반학생의 자살 위기결과별 위기수준은 고위험군은 자살계획 28.6%, 자살시도 50.8%로 나타났고, 잠재적 위험군은 자살계획 3.7%, 자살시도 13.6%, 일반군은 자살계획 0.8%, 자살시도 2.8%로 나타났다. 취약·위기청소년 자살 위기결과별 위기수준은 고위험군은 자살계획 18.7%, 자살시도 62.5%로 나타났고, 잠재적 위험군은 자살계획 19.5%, 자살시도 19.5%, 일반군은 자살계획 1.1%, 자살시도는 해당없음으로 나타났다. 고위험일수록 자살시도가 높아 교사 및 학부모의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하며, 조기에 개입되어(상담, 병원의뢰 등) 자살시도를 줄이는 방안이 다각도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학생의 가출 위기결과별 위기수준은 고위험군은 가출경험 22.4%, 가출팸 7.9%, 현재 가출상태 6.9%, 잠재적 위험군은 가출경험 5.9%, 현재 가출상태 0.3%로 나타났다. 일반군은 가출경험 1.1%, 가출팸 0.1%, 현재 가출상태 0.1%로 나타났다. 취약·위기청소년 고위험군은 가출경험 31.2%, 가출팸 6.2%, 현재 가출상태 12.5%, 잠재적 위험군은 가출경험 14.6%, 가출팸 2.4%로 나타났다. 일반군은 가출경험 8.2%, 현재 가출상태 1.1%로 나타났다.

일반학생의 학업중단 위기결과별 위기수준은 고위험군 3.2%, 잠재적 위험군 0.5%, 일반군 0.2%로 나타났다. 취약·위기청소년의 학업중단 위기결과별 위기수준은 고위험군 75.0%, 잠재적 위험군 90.2%, 일반군 71.3%로 나타났다.

보호요인은 5개 영역으로 살펴보았으며, 개인, 가정, 또래, 학교, 지역사회 영역을 살펴보았다. 일반학생이 취약·위기청소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점수가 높았으며, 일반학생의 경우 또래요인, 가정요인 순으로 보호요인으로 나타났고, 취약·위기청소년은 가정요인, 또래요인 순으로 보호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학생과 취약·위기청소년 모두에게 또래요인과 가정요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위기수준별 보호요인 차이에서는

일반학생의 경우 일반군 집단이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 집단에 비해 보호요인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즉, 일반학생의 경우 개인, 가정, 또래, 학교, 지역사회 보호요인에서 일반군에 속한 청소년이 고위험군이나 잠재적 위험군의 청소년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취약·위기청소년의 경우 개인, 가정, 지역사회 보호요인에서 일반군이 잠재적 위험군과 고위험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대상에 따른 보호요인의 차이를 고려한 개입의 필요성을 나타내며, 특히, 취약 위기청소년의 경우 자아존중감, 긍정적 자기개념 향상과 가족의 관심과 신뢰, 지역사회 지지체계 및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고 있다.

2. 연구 의의와 제한점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충청남도 15개 시군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실태조사이다. 지역별 설문조사 실시를 위해 15개 시·군센터 실무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설문실시 및 회수하였다. 충청남도 청소년의 실태파악을 위해 도내 16개 도·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협업하여 대규모의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둘째, 청소년 개인의 내적 요인과 환경을 모두 포함한 다각도 조사이다. 위기청소년은 하나의 위기가 아닌 다각적이고 다양하며 중복적인 위기상황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위기상황에 대해 청소년들의 개인 심리·정서와 사회 환경적 요인을 다각도로 아우르며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셋째, 청소년 문제 예방 및 위기청소년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기초 자료 마련이다. 본 연구는 충청남도 청소년의 위기 실태에 대한 일회성 연구에 그치지 않고, 고위험군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모색 및 잠재적 위험군과 일반군에 대한 효과적 개입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넷째, 청소년전화 1388 홍보 효과 극대화이다. 2015년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전화 1388의 인지도는 48.9%에서 2018년에는 65.3% 증가하였으며, 상담복지센터 인지도 2015년 58.8%, 2018년 65.7%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전화1388 홍보에 대한 성공적 결실로 보이며, 청소년들이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면 1388청소년전화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이용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조사대상(일반학생, 취약·위기청소년)에 대한 다른 표집 기준 적용이다. 일반학생은 지역 청소년 인구수에 따라 각 지역별 비율 적용하였으나, 취약·위기청소년의 경우 각 지역별 인구수와 상관없이 10명으로 임의 배정하여 조사대상에 따라 서로 상이한 표집 기준을 적용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조사대상 선정에 있어 일반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그리고 취약·위기청소년은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는데,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대부분 시·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 소속된 청소년에 국한되었다는 점으로, 추후 조사대상의 범위가 넓어, 그룹홈, 양육시설, 보호관찰, 소년원 학교 등으로 확대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제언

충청남도 청소년 위기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취약·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 및 치료적 서비스 제공

취약·위기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들보다 위기로 발전한 가능성을 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 뒤 개입하는 치료적 개입도 중요하지만, 예방적 개입을 통해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실태조사 결과 일반청소년 중 고위험군 2.24%, 취약·위기청소년 고위험군 11.1%로 나타났으며, 가정의 경제수준이 매우 어려운편과 어려운편에 속한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의 위기결과 고위험군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취약·위기청소년이 일반학생보다 위험요인이 높으며, 대부분의 위기결과에서도 취약·위기청소년이 비교적 높은 점수로 나타난 반면 보호요인에서는 일반군 집단이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 집단에 비해 보호요인이 높게 나타난 것은 취약·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 및 치료적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위기영역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취약·위기청소년의 경우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약물, 도박, 학교폭력, 학대·방임, 자살, 성문제, 가출 등에서 일반학생보다 위기결과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청소년의 경우 모든 영역에서 위기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위기영역별 매뉴얼 개발 및 개입방안 마련등으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강화 되어야 한다.

셋째, 가정기능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문제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위험요인이 가정환경이라 할 수 있고, 부모-자녀간의 심리적 거리, 양육태도 등 기능적 측면도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갈등적인 부모-자녀관계는 청소년에게 중요한 위험요인이며, 부부갈등, 신체학대, 언어학대, 방임 역시 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있다. 반면, 원만한 부모-자녀관계, 부모의 정서적 지지, 양육태도, 부모와의 애착, 부모의 적절한 관리와 감독은 청소년 문제행동 위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 가족위험요인이 증가할수록 문제행동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가정의 관심 및 신뢰 등 가정 보호요인이 많아짐에 따라 위기결과 문제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안정적인 가정의 역할이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위기결과 예방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하여 문제유형에 따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자살관련 연구조사 실시 및 자살 예방프로그램 확대

전체 조사 대상자 중 자살을 1번 이상 시도하거나 자살 계획을 월 1-2회 이상 시도한 학생들의 비율이 자살계획 2.2%, 자살시도 5.7%로 나타났다. 자살의 경우 실제로 시도하거나 계획한 경우 이후에도 위기 상황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 농후함으로 이에 대한 신속한 개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일반학생 및 취약·위기청소년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자살계획, 자살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학생 및 취약·위기청소년에서도 고위험군 및 잠재적 위험군에서 자살시도가 자살계획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다른 위기결과와 달리 자살과 관련한 문제는 위기수준의 예측이 어려우며, 언제, 어디에서 시도할지 예상 할 수 없기에 자살 경고 사인 발견 시 빠르게 대응 할 수 있도록 전체 청소년 대상 자살예방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향후 자살실태 연구조사를 통해 자살관련 위험요인을 줄이고, 보호요인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매뉴얼 개발 및 자살예방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치료적 개입은 모든 청소년에게 확대 필요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의 경우 다른 위기결과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폭력, 비행, 성, 가출 등 대부분 위기결과는 고위험군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은 일반군이 높은 위기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대부분의 청소년이 인터넷·스마트폰을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위험군, 취약·위기 청소년뿐 아니라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치료적 개입을 청소년 전체대상으로 확대하여 예방적 접근으로 건강한 미디어 사용 습관을 기르는데 집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모든 청소년 대상으로 예방교육 및 위험단계별 치료적 개입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여섯째,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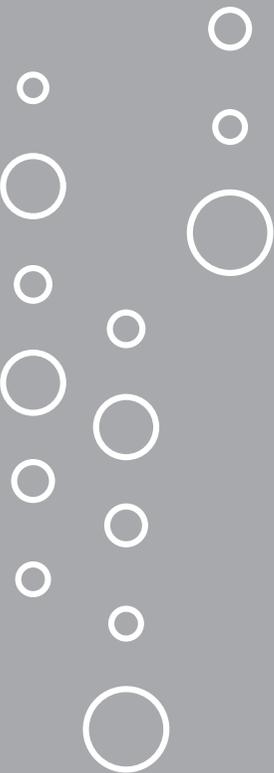
청소년의 특성상 단순히 한 가지 문제만을 호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할 때, 다양한 청소년 전문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CYS-Net은 청소년에게 다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시스템이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사회 내 청소년 지원기관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여 지속적으로 연계서비스를 제공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지원기관들과의 중개 역할 및 더 나아가 각 전문기관들이 결속할 수 있도록 허브역할로서의 강점을 키워 위기청소년 발굴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강근모, 이준기 (2015). 청소년 가출관련변인의 메타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6(2).
- 강석영, 김동민, 하창순 (2009). 전국 청소년 위기상황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상담원.
- 강혜원, 김영희 (2011). 생의 의미수준에 따른 우울과 자아존중감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교정담론*, 5(2).
- 곽금주, 문은영(1993).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6(2).
- 구본용, 금명자, 김동일, 김동민, 안현의, 주영아, 한동우(2005). 위기(가능)청소년 지원모델 개발연구. 청소년위원회.
- 구본용, 유제민 (2003). 중퇴에 관한 위험 및 보호요인의 신경망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8(1).
- 권재환, 이은희 (2006). 남녀 청소년의 충동성, 부모의 양육태도, 개인의 통제력,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7(1).
- 김기태 (2006). *위기개입론 : 일상생활의 위기와 극복방법*. 서울 : 대왕사.
- 김계정 (2014). 청소년의 위기요인과 학교적응과의 관계에서 탄력성과 학교문화의 영향. 강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동일, 최수미 (2009). 청소년 자살생각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대한간호학회지*, 39(5).
- 김순규 (2008).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과 보호요인 : 보호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 김영한, 조아미, 이승하, 변해진 (2013).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 과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경, 김균희 (2013). 청소년의 음주 여부 및 빈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한국청소년학연구*, 20(2), 317-346.
- 김향초 (2009). *가출청소년의 이해와 상담*. 서울 : 학지사.
- 류진아, 김광웅 (2004).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청소년상담연구*, 12(1).
- 문동규, 김영희 (2012). 청소년 자살생각과 관련된 역제변인의 메타회귀분석. *청소년학연구*, 19(1).
- 민일홍 (2013). *보호관찰대상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대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기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재연 (2010). 청소년의 자살위기와 레질리언스.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배주미, 김동민, 정슬기, 강태훈, 박현진 (2010). 2010년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상담원.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2017). *청년년백서*. 여성가족부.
- 오승환 (2010). 청소년 가출에 대한 생태체계적 영향 요인-가출충동과 가출경험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2(4).
- 유영준, 오운수 (2013). 청소년 위험요인이 위기결과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연구*, 21(4).
- 유인선 (2011). *청소년의 학교적응요인 메타분석*.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철경, 조흥식, 김향초, 이규미, 우정자 (2006).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실태와 발전방안* 한국청소년개발원.

- 윤철경, 서정아, 유성렬, 조아미, 정다정 (2014).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미원 (2015). **충청남도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충청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이상균 (2000). 청소년의 학교비행에 대한 생태체계적 영향요인. **사회복지연구**, 15(1).
- 이상현, 윤명성(2007). 위기청소년의 가정과 학교생활 특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14(1).
- 이석형 (2007).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사회복지개발연구**, 13(1).
- 이석형 (2008). 청소년비행 보호요인에 관한 타당성 연구. **청소년학연구**, 15(1).
- 이주리 (2011). 부모 및 친구애착과 비행 간 관계 : 종단 연구. **놀이치료연구**, 15(2).
- 이창호, 김동민, 심용출, 이미경, 전소연, 차진영 (2013). **청소년 위기 요인 메타분석-학교폭력 영향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이해경, 김혜연(2001). 초등학교생들의 집단괴롭힘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예측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5(1)
- 이해경 (2002). 청소년의 음란물, 음란채팅, 중독경험에 있어서 사회심리적 예측변인들의 비교. **청소년학연구**, 9(2).
- 이혜순, 옥지연 (2012). 청소년의 가족기능과 우울이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 **기본간호학회지**, 19(3).
- 임영식 (1998).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5(3).
- 전영천 (2010). 청소년의 음주행동 및 흡연행동의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미래사회복지연구**, 1(1).
- 정재민 (2012).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예방을 위한 신천전략 개발 질적연구. **청소년문화포럼**, 30, 66-91.
- 조좌영 (2017). 위기청소년의 의사소통유형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 인천청소년비행예방 센터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소영, 이양희 (2012). 청소년 잠재비행, 부정적 자동적 사고, 탄력성의 관계에서 교사애착의 역할. **청소년학연구**, 19(8), 103-142.
- 지승희, 양미진, 이자영, 김태성 (2006).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 진혜민, 박병선, 배성우(2011). 비공식낙인, 우울, 공격성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경로분석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2).
- 진혜민, 배성우 (2012). 청소년비행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4(2).
- 한상철 (2008). 청소년 가출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14(1).
- 한상철 (2010). 청소년 가출 후 문제행동 개입 감소를 위한 보호요인의 완충효과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7(1).
- 한종철, 김인경(2000). 또래 따돌림과 심리사회적 부적응.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6(2), 103-114
- 황혜연, 신정아, 박현순 (2006). 초기 청소년의 학교폭력에 대한 생태체계적 요인들 간의 경로 분석. **아동과 권리**, 10(4).
- 황순길, 김동민, 강태훈, 손재환, 김화연, 김지혜 (2016). **2016년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황순길, 김동민, 김화연(2015).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 1차년도(문항개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Burt, M. R., Resnick, G., & Mathesone, N.(1992). *Comprehensive Service Integration Programs for at-Risk Youth*. Final Report.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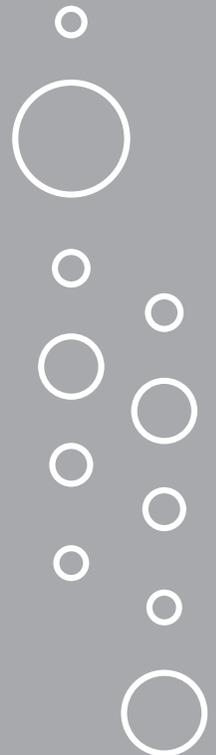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MA: Havard University Press.
- Connexions (2001). *Introduction to Connexions*: Diploma for Connexions Personal Advisers.
- Erikson, E. H. (1956). The Problem of Ego Identity.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 France, K. (1990a). *Crisis Intervention: A Handbook of Immediate Person Help*(2nd ed.). Springfield, Illinois Charles C. Thomas Publisher. 199-203.
- Garmezy N. A. (1990). *closing note: Reflections on the future*. In: Rolf J, Masten A, Cicchetti D, Nuechterlein K, Weintraub S, editor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1990, 527-534.
- Horowitz, F. D. (1987). *Exploring developmental theories: Toward a structural/behavioral model of development*. Hillsdale, NJ : Erlbaum.
- Johnson, G. M. (1997). Teachers in the inner city: Experience-based ratings of factors that place students at risk. *Preventing School Failure*,42(1), 19-27.
- Moffitt, T. E. (1993). Adolescence-limited and life-course-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A development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100 , 674-701.
- Pollard, J. A., Hawkins, J. D., and Arthur, M. W. (1999). Risk and protection: Are both necessary to understand diverse behavioral out comes in adolescence? *Social Work Research*, 23(8), 145-158.
- Wilinson. (1974). The broken family and juvenile delinquency: Scientific explanation or ideology. *Social Problems*, 21, 726-739.



2018년 충청남도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부록

1. 초등학생 대상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설문지
 2. 중·고등학생 대한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설문지
-



부록1 : 2018년 청소년 생활 실태조사 - 초등용

※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번호의 () 속에 V표시를 해 주세요.

1. 성별 : ① 남자 () ② 여자 ()

2. 나이 : _____세

3. 소속된 학교 및 기관은 어디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 | |
|----------------|-----------------------------|
| ① 초등학교 () | ② 중학교 () |
| ③ 인문계 고등학교 () | ④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 |
| ⑤ 대안학교 () | ⑥ 김정고시 학원 () |
| ⑦ 직업학교 () | ⑧ 직업훈련기관 () |
| ⑨ 소년원 학교 () | ⑩ 학교나 김정고시학원에 다니지
않음 () |
| ⑪ 꿈드림센터 () | |

4. 현재 몇 학년에 재학 중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 | | |
|----------------|----------------|---------------|
| ① 초등학교 5학년 () | ② 초등학교 6학년 () | ③ 중학교 1학년 () |
| ④ 중학교 2학년 () | ⑤ 중학교 3학년 () | ⑥ 고등학교1학년 () |
| ⑦ 고등학교 2학년 () | ⑧ 고등학교 3학년 () | ⑨ 해당 없음 () |

5.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 | | |
|-----------|-----------|-----------|
| ① 천안시 () | ② 공주시 () | ③ 보령시 () |
| ④ 아산시 () | ⑤ 서산시 () | ⑥ 논산시 () |
| ⑦ 계룡시 () | ⑧ 당진시 () | ⑨ 금산군 () |
| ⑩ 부여군 () | ⑪ 서천군 () | ⑫ 청양군 () |
| ⑬ 홍성군 () | ⑭ 예산군 () | ⑮ 태안군 () |

6. 현재 누구와 같이 살고 있습니까? (모두 V 표시 하세요)

- | | |
|--------------------------------------|------------------------|
| ① 친아버지 () | ② 친어머니 () |
| ③ 새아버지 () | ④ 새어머니 () |
| ⑤ 할머니나 할아버지 () | ⑥ 친척 () |
| ⑦ 형제자매 () | ⑧ 친구 또는 선후배 () |
| ⑨ 청소년보호자(쉼터, 그룹홈, 일시보호시설, 소년원 등) () | |
| ⑩ 혼자살고 있다 () | ⑪ 기타(구체적으로 누구와? _____) |

7. 부모님의 출신 나라는 어디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두 분 모두 한국인 () ② 두 분 모두 외국인 ()
- ③ 한 분만 외국인 () ④ 두 분 모두 북한이탈주민 ()
- ⑤ 한 분만 북한이탈주민 () ⑥ 두 분 모두 중국교포 ()
- ⑦ 한 분만 중국교포 () ⑧ 모르겠다. ()

8. 가정의 경제수준은 어느 정도에 해당합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매우 어려운 편이다 () ② 어려운 편이다 ()
- ③ 보통이다 () ④ 잘사는 편이다 ()
- ⑤ 매우 잘사는 편이다 ()

9. 국가나 단체에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면 어떤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모두 V 표시 하세요)

- ① 없다 () ② 기초생계비지원 ()
- ③ 의료비 지원 () ④ 급식비 지원 ()
- ⑤ 긴급복지지원(가장의 사망, 질병 등의 위급한 상황에서 지원받는 경우) ()
- ⑥ 기타 ()

10. 현재 부모(혹은 조부모, 친척 등)로부터 물질적 지원(예-학비, 학원비, 용돈 등)을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② 부족하다 ()
- ③ 보통이다 () ④ 받고 있는 편이다 ()
- ⑤ 충분히 받고 있다 ()

11. 현재 부모(혹은 조부모, 친척 등)로부터 정서적 지원(예-고민상담, 대화, 관심, 칭찬 등)을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② 부족하다 ()
- ③ 보통이다 () ④ 받고 있는 편이다 ()
- ⑤ 충분히 받고 있다 ()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8.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잘 참지 못한다.	0	1	2	3	4
29. 조심성이 없어서 실수를 많이 한다.	0	1	2	3	4
30. 부모님이 자주 싸우신다.	0	1	2	3	4
31. 부모님은 싸우실 때 폭력을 사용한다.	0	1	2	3	4
32. 부모님과 나는 서로 대화가 없다.	0	1	2	3	4
33. 부모님과 나는 말만하면 싸우게 된다.	0	1	2	3	4
34. 부모님은 나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0	1	2	3	4
35. 부모님은 내가 술이나 담배를 해도 내버려 두신다.	0	1	2	3	4
36. 부모님은 내가 외박이나 가출을 해도 신경을 쓰지 않으신다.	0	1	2	3	4
37. 부모님은 내가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에 결석을 해도 뭐라고 하지 않으신다.	0	1	2	3	4
38. 나는 좋아하는 과목이 하나도 없다.	0	1	2	3	4
39. 선생님과 나는 사이가 좋지 않다.	0	1	2	3	4
40. 나는 학교에 좋아하는 친구가 한명도 없다.	0	1	2	3	4
41. 나는 학교가 싫다	0	1	2	3	4
42. 집이나 학교 근처에 술집(성인용 주점)등 유흥업소가 많다.	0	1	2	3	4
43. 우리 동네에는 범죄가 자주 일어난다.	0	1	2	3	4
44. 우리 동네에서는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쉽게 살 수 있다.	0	1	2	3	4

※ 다음은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표를 하세요.

문항내용	없다	있다
45. 가족 중에 범죄로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갔던 사람이 있다.	0	1
46. 가족 중 약물중독이나 알코올중독인 사람이 있다.	0	1
47. 가족 중 가출했던 혹은 가출한 사람이 있다.	0	1
48. 가까운 친구 중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시는 친구가 있다.	0	1
49. 가까운 친구 중에 가출한 친구가 있다.	0	1
50. 가까운 친구 중에 경찰이나 파출소에 잡혀갔던 친구가 있다.	0	1
51. 가까운 친구 중에 폭력서클에 소속되어 있는 친구가 있다.	0	1

※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표를 하세요.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2. 나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0	1	2	3	4
53. 나는 내가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	0	1	2	3	4
54. 나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	0	1	2	3	4
55.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유를 생각해 보고 문제를 해결 하려고 노력한다.	0	1	2	3	4
56. 내가 마음먹고 노력한다면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0	1	2	3	4
57. 우리 가족은 내가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고 격려해 준다.	0	1	2	3	4
58. 우리 가족은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바로 잡아주려고 한다.	0	1	2	3	4
59. 부모님은 나를 믿어 주신다.	0	1	2	3	4
60.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한 친구가 있다.	0	1	2	3	4
61. 즐겁게 어울리는 친구가 있다.	0	1	2	3	4
62. 나는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다.	0	1	2	3	4
63.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격려나 지도를 해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0	1	2	3	4
64. 우리 동네에는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0	1	2	3	4
65. 우리 동네에는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있다.	0	1	2	3	4
66. 우리 동네에는 내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여가활동 프로그램이 있다.	0	1	2	3	4

※ 다음은 여러분의 경험을 물어보는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경험과 일치하는 곳에 V표를 하세요.

문 항 내 용	전혀 없다	1번	2-3번	주 1-2회	거의 매일
67. 지난 한 달 동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게임·채팅·동영상·유튜브 시청 등) 사용으로 인해 타인(부모, 교사등)과 심한 갈등을 일으킨 적이 있다.	0	1	2	3	4
68. 지난 한 달 동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게임·채팅·동영상·유튜브 시청 등) 사용으로 인해 계획한 일들을 제대로 못한 적이 있다.	0	1	2	3	4
69. 지난 한 달 동안 게임·채팅·동영상·유튜브 시청 등(인터넷·스마트폰)을 하루에 3~4시간이상 한 적이 있다.	0	1	2	3	4
70. 지난 한 달 동안 게임·채팅·동영상·유튜브 시청 등(인터넷·스마트폰)을 하느라 일상생활을 못한 적(결석, 지각, 불규칙한 식사 및 수면 등)이 있다.	0	1	2	3	4
71. 지난 한 달 동안 술을 마신 적이 있다.	0	1	2	3	4
72. 지난 한 달 동안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0	1	2	3	4
73. 지난 한 달 동안 본드나 부탄가스, 마약류 등을 사용해 본 적이 있다.	0	1	2	3	4
74. 지난 한달 동안 돈(사이버 머니)을 걸고 하는 온라인 게임(고스톱, 포커, 경마, 스포츠 토트, 사다리 게임 등)을 해본 적이 있다.	0	1	2	3	4

※ 다음은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경험을 물어보는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경험과 일치하는 곳에 V표를 하세요.

문 항 내 용	전혀 없다	1번	2-3번	월 1-2회	주1-2 회이상
75.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0	1	2	3	4
76.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0	1	2	3	4
77.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0	1	2	3	4
78. 지난 1년 동안 친구나 선후배에게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긴 적이 있다.	0	1	2	3	4
79. 지난 1년 동안 사이버폭력(SNS, 카톡 등에서의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0	1	2	3	4

문항내용	전혀 없다	1번	2-3번	월 1-2회	주1-2 회이상
80. 지난 1년 동안 친구를 폭행한 적이 있다.	0	1	2	3	4
81. 지난 1년 동안 친구에게 언어폭력을 한 적이 있다.	0	1	2	3	4
82. 지난 1년 동안 친구를 괴롭히거나 따돌린 적이 있다.	0	1	2	3	4
83. 지난 1년 동안 친구나 선후배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적이 있다.	0	1	2	3	4
84. 지난 1년 동안 사이버폭력(SNS, 카톡 등에서의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한 적이 있다.	0	1	2	3	4
85. 지난 1년 동안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은 적이 있다.	0	1	2	3	4
86. 지난 1년 동안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	0	1	2	3	4
87. 지난 1년 동안 사건에 관련되어 경찰서나 법원에 불려간 적이 있다.	0	1	2	3	4
88. 지난 1년 동안 부모(또는 보호자)로부터 심하게 맞거나 신체적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	0	1	2	3	4
89. 지난 1년 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화가 나서 나를 집밖으로 내쫓은 적이 있다.	0	1	2	3	4
90. 지난 1년 동안 부모(또는 보호자)로부터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심한 말이나 욕을 들은 적이 있다.	0	1	2	3	4
91. 지난 1년 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이 아무 이유 없이 하루 이상 나를 굶긴 적이 있다.	0	1	2	3	4
92. 지난 1년 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내가 아플 때에도 내버려 둔 적이 있다.	0	1	2	3	4
93. 지난 1년 동안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0	1	2	3	4
94.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계획해 본 적이 있다.	0	1	2	3	4
95.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다.	0	1	2	3	4
96. 지난 1년 동안 무단으로 결석한 적이 있다.	0	1	2	3	4
97. 지난 1년 동안 성폭력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	0	1	2	3	4
98. 지난 1년 동안 성폭력을 시도하거나 한 적이 있다.	0	1	2	3	4

부록2 : 2018년 청소년 생활 실태조사 - 중·고등 및 취약·위기청소년

※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번호의 () 속에 V표시를 해 주세요.

1. 성별 : ① 남자 () ② 여자 ()

2. 나이 : _____세

3. 소속된 학교 및 기관은 어디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 | |
|----------------|--------------------------|
| ① 초등학교 () | ② 중학교 () |
| ③ 인문계 고등학교 () | ④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 |
| ⑤ 대안학교 () | ⑥ 검정고시 학원 () |
| ⑦ 직업학교 () | ⑧ 직업훈련기관 () |
| ⑨ 소년원 학교 () | ⑩ 학교나 검정고시학원에 다니지 않음 () |
| ⑪ 꿈드림센터 () | |

4. 현재 몇 학년에 재학 중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 | | |
|----------------|----------------|---------------|
| ① 초등학교 5학년 () | ② 초등학교 6학년 () | ③ 중학교 1학년 () |
| ④ 중학교 2학년 () | ⑤ 중학교 3학년 () | ⑥ 고등학교1학년 () |
| ⑦ 고등학교 2학년 () | ⑧ 고등학교 3학년 () | ⑨ 해당 없음 () |

5.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 | | |
|-----------|-----------|-----------|
| ① 천안시 () | ② 공주시 () | ③ 보령시 () |
| ④ 아산시 () | ⑤ 서산시 () | ⑥ 논산시 () |
| ⑦ 계룡시 () | ⑧ 당진시 () | ⑨ 금산군 () |
| ⑩ 부여군 () | ⑪ 서천군 () | ⑫ 청양군 () |
| ⑬ 홍성군 () | ⑭ 예산군 () | ⑮ 태안군 () |

6. 현재 누구와 같이 살고 있습니까? (모두 V 표시 하세요)

- | | |
|--------------------------------------|------------------------|
| ① 친아버지 () | ② 친어머니 () |
| ③ 새아버지 () | ④ 새어머니 () |
| ⑤ 할머니나 할아버지 () | ⑥ 친척 () |
| ⑦ 형제자매 () | ⑧ 친구 또는 선후배 () |
| ⑨ 청소년보호자(쉼터, 그룹홈, 일시보호시설, 소년원 등) () | |
| ⑩ 혼자살고 있다 () | ⑪ 기타(구체적으로 누구와? _____) |

7. 부모님의 출신 나라는 어디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두 분 모두 한국인 () ② 두 분 모두 외국인 ()
- ③ 한 분만 외국인 () ④ 두 분 모두 북한이탈주민 ()
- ⑤ 한 분만 북한이탈주민 () ⑥ 두 분 모두 중국교포 ()
- ⑦ 한 분만 중국교포 () ⑧ 모르겠다 ()

8. 가정의 경제수준은 어느 정도에 해당합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매우 어려운 편이다 () ② 어려운 편이다 ()
- ③ 보통이다 () ④ 잘사는 편이다 ()
- ⑤ 매우 잘사는 편이다 ()

9. 국가나 단체에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면 어떤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모두 V 표시 하세요)

- ① 없다 () ② 기초생계비지원 ()
- ③ 의료비 지원 () ④ 급식비 지원 ()
- ⑤ 긴급복지지원(가장의 사망, 질병 등의 위급한 상황에서 지원받는 경우) ()
- ⑥ 기타 ()

10. 현재 부모(혹은 조부모, 친척 등)로부터 물질적 지원(예-학비, 학원비, 용돈 등)을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② 부족하다 ()
- ③ 보통이다 () ④ 받고 있는 편이다 ()
- ⑤ 충분히 받고 있다 ()

11. 현재 부모(혹은 조부모, 친척 등)로부터 정서적 지원(예-고민상담, 대화, 관심, 칭찬 등)을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② 부족하다 ()
- ③ 보통이다 () ④ 받고 있는 편이다 ()
- ⑤ 충분히 받고 있다 ()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 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6.	화를 내는 것 (위협이나 폭력)이 원하는 것을 얻는데 더 도움이 된다.	0	1	2	3	4
27.	생각 없이 말하거나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0	1	2	3	4
28.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잘 참지 못한다.	0	1	2	3	4
29.	조심성이 없어서 실수를 많이 한다.	0	1	2	3	4
30.	부모님이 자주 싸우신다.	0	1	2	3	4
31.	부모님을 싸우실 때 폭력을 사용한다.	0	1	2	3	4
32.	부모님과 나는 서로 대화가 없다.	0	1	2	3	4
33.	부모님과 나는 말만하면 싸우게 된다.	0	1	2	3	4
34.	부모님은 나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0	1	2	3	4
35.	부모님은 내가 술이나 담배를 해도 내버려 두신다.	0	1	2	3	4
36.	부모님은 내가 외박이나 기출을 해도 신경을 쓰지 않으신다.	0	1	2	3	4
37.	부모님은 내가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에 결석을 해도 뭐라고 하지 않으신다.	0	1	2	3	4
38.	나는 좋아하는 과목이 하나도 없다.	0	1	2	3	4
39.	선생님과 나는 사이가 좋지 않다.	0	1	2	3	4
40.	나는 학교에 좋아하는 친구가 한명도 없다.	0	1	2	3	4
41.	나는 학교가 싫다.	0	1	2	3	4
42.	집이나 학교 근처에 술집(성인용 주점)등 유흥업소가 많다.	0	1	2	3	4
43.	우리 동네에는 범죄가 자주 일어난다.	0	1	2	3	4
44.	우리 동네에서는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쉽게 살 수 있다.	0	1	2	3	4

※ 다음은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표를 하세요.

문항내용		없다	있다
45.	가족 중에 범죄로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갔던 사람이 있다.	0	1
46.	가족 중 약물중독이나 알코올중독인 사람이 있다.	0	1
47.	가족 중 가출했던 혹은 가출한 사람이 있다.	0	1
48.	가까운 친구 중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시는 친구가 있다.	0	1
49.	가까운 친구 중에 가출한 친구가 있다.	0	1
50.	가까운 친구 중에 경찰이나 파출소에 잡혀갔던 친구가 있다.	0	1
51.	가까운 친구 중에 폭력서클에 소속되어 있는 친구가 있다.	0	1

※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표를 하세요.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2.	나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0	1	2	3	4
53.	나는 내가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	0	1	2	3	4
54.	나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	0	1	2	3	4
55.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유를 생각해 보고 문제를 해결 하려고 노력한다.	0	1	2	3	4
56.	내가 마음먹고 노력한다면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0	1	2	3	4
57.	우리 가족은 내가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고 격려해 준다.	0	1	2	3	4
58.	우리 가족은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바로 잡아주려고 한다.	0	1	2	3	4
59.	부모님은 나를 믿어 주신다.	0	1	2	3	4
60.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한 친구가 있다.	0	1	2	3	4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61.	즐겁게 어울리는 친구가 있다.	0	1	2	3	4
62.	나는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다.	0	1	2	3	4
63.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격려나 지도를 해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0	1	2	3	4
64.	우리 동네에는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0	1	2	3	4
65.	우리 동네에는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있다.	0	1	2	3	4
66.	우리 동네에는 내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여가활동 프로그램이 있다.	0	1	2	3	4

※ 다음은 여러분의 경험을 물어보는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경험과 일치하는 곳에 V표를 하세요.

문항내용		전혀 없다	1번	2-3번	주 1-2회	거의 매일
67.	지난 한 달 동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게임·채팅·동영상·유튜브 시청 등) 사용으로 인해 타인(부모, 교사 등)과 심한 갈등을 일으킨 적이 있다.	0	1	2	3	4
68.	지난 한 달 동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게임·채팅·동영상·유튜브 시청 등) 사용으로 인해 계획한 일들을 제대로 못한 적이 있다.	0	1	2	3	4
69.	지난 한 달 동안 게임·채팅·동영상·유튜브 시청 등(인터넷·스마트폰)을 하루에 3~4시간 이상 한 적이 있다.	0	1	2	3	4
70.	지난 한 달 동안 게임·채팅·동영상·유튜브 시청 등(인터넷·스마트폰)을 하루 이상 생활을 못한 적(결석, 지각, 불규칙한 식사 및 수면 등)이 있다.	0	1	2	3	4
71.	지난 한 달 동안 술을 마신 적이 있다.	0	1	2	3	4
72.	지난 한 달 동안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0	1	2	3	4
73.	지난 한 달 동안 본드나 부탄가스, 마약류 등을 사용해 본 적이 있다.	0	1	2	3	4
74.	지난 한 달 동안 돈(사이버 머니)을 걸고 하는 온라인 게임(고스톱, 포커, 경마, 스포츠 토토, 사다리 게임 등)을 해본 적이 있다.	0	1	2	3	4

※ 다음은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경험을 물어보는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경험과 일치하는 곳에 V표를 하세요.

문 항 내 용		전혀 없다	1번	2-3번	월 1-2회	주1-2회 이상
75.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0	1	2	3	4
76.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0	1	2	3	4
77.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0	1	2	3	4
78.	지난 1년 동안 친구나 선후배에게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긴 적이 있다.	0	1	2	3	4
79.	지난 1년 동안 사이버폭력(SNS, 카톡 등에서의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0	1	2	3	4
80.	지난 1년 동안 친구를 폭행한 적이 있다.	0	1	2	3	4
81.	지난 1년 동안 친구에게 언어폭력을 한 적이 있다.	0	1	2	3	4
82.	지난 1년 동안 친구를 괴롭히거나 따돌린 적이 있다.	0	1	2	3	4
83.	지난 1년 동안 친구나 선후배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적이 있다.	0	1	2	3	4
84.	지난 1년 동안 사이버폭력(SNS, 카톡 등에서의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한 적이 있다.	0	1	2	3	4
85.	지난 1년 동안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은 적이 있다.	0	1	2	3	4
86.	지난 1년 동안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	0	1	2	3	4
87.	지난 1년 동안 사건에 관련되어 경찰서나 법원에 불려간 적이 있다.	0	1	2	3	4
88.	지난 1년 동안 부모(또는 보호자)로부터 심하게 맞거나 신체적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	0	1	2	3	4
89.	지난 1년 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화가 나서 나를 집밖으로 내쫓은 적이 있다.	0	1	2	3	4
90.	지난 1년 동안 부모(또는 보호자)로부터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심한 말이나 욕을 들은 적이 있다.	0	1	2	3	4
91.	지난 1년 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이 아무 이유 없이 하루 이상 나를 굶긴 적이 있다.	0	1	2	3	4
92.	지난 1년 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내가 아플 때에도 내버려 둔 적이 있다.	0	1	2	3	4

문 항 내 용		전혀 없다	1번	2-3번	월 1-2회	주1-2회 이상
93.	지난 1년 동안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0	1	2	3	4
94.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계획해 본 적이 있다.	0	1	2	3	4
95.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다.	0	1	2	3	4
96.	지난 1년 동안 무단으로 결석한 적이 있다.	0	1	2	3	4
97.	지난 1년 동안 성매매 사이트에 접속한 적이 있다.	0	1	2	3	4
98.	지난 1년 동안 성매매 유혹을 느끼거나 권유를 받은 적이 있다.	0	1	2	3	4
99.	지난 1년 동안 성매매를 한 적이 있다.	0	1	2	3	4
100.	지난 1년 동안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0	1	2	3	4
101.	지난 1년 동안 성폭력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	0	1	2	3	4
102.	지난 1년 동안 성폭력을 시도하거나 한 적이 있다.	0	1	2	3	4

※ 다음 문항에 대하여 V표를 하세요.

문 항 내 용		아니다	그렇다
103.	원치 않은 임신이나 출산을 경험한 적이 있다.	0	1
104.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하지 못하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0	1
105.	지금 가출한 상태이다.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이상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행위	0	1
106.	가출팸에서 생활해 본 적이 있다.	0	1
107.	학업중단 숙려제 상담(학업중단하기 전 받는 상담)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다.	0	1
108.	지금 학교를 그만 둔 상태이다.	0	1

108-1. 학교를 그만 둔 시점부터 현재까지 기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 108번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에만 응답하세요

- ① 1개월 미만 () ②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
③ 6개월 이상~1년 미만 () ④ 1년 이상~2년 미만 ()
⑤ 2년 이상 ()

108-2. 학교를 그만 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08번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에만 응답하세요

- ① 가족요인 : 부모간의 불화, 부모님과과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이사 때문에 등 ()
② 학교요인 : 학교생활에 흥미가 없어서, 학교폭력, 징계나 처벌, 교칙이나 규정에 적응하기 어려워서 등 ()
③ 친구요인 : 친구들과 관계의 어려움, 친구들과 어울려 더 놀고 싶어서 등 ()
④ 개인요인 : 자유롭고 싶어서, 더 의미있는 일을 하기 위해, 유학을 선택하려고 등 ()

109. 지난 1년 동안 가출 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없다 () →110번으로 ② 1회 ()
③ 2~3회 () ④ 4~5회 ()

109-1. 한번 가출하면 보통 며칠 정도 집밖에서 생활합니까?

- ① 1~2일 () ② 3~5일 ()
③ 6~9일 () ④ 10~30일 ()
⑤ 한달 이상 ()

110. 아르바이트나 직업훈련기관, 혹은 직장생활 경험이 있습니까? (모두 √표시 하세요)

- ① 없다 () ② 아르바이트 경험 ()
③ 직업훈련기관 경험 () ④ 직장생활 경험 ()

※ '① 없다'를 선택한 경우, 설문을 종료해주세요.

110-1. 아르바이트나 직업훈련기관, 혹은 직장생활 경험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요 ()

※ 아르바이트나 직업훈련기관, 직장생활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경험과 일치하는 곳에 √표를 하세요.

문항 내용		전혀 없다	1번	2-3번	월 1-2회	주1~2회 이상
111.	지난 1년 동안 일자리(아르바이트 포함)를 구하기 어려웠던 적이 있다.	0	1	2	3	4
112.	지난 1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은 적이 있다.	0	1	2	3	4
113.	지난 1년 동안 직장(아르바이트 포함)이나 직업훈련기관에 이유 없이 결근 또는 조퇴를 한 적이 있다.	0	1	2	3	4
114.	지난 1년 동안 직장(아르바이트 포함)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 주변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부딪힌 적이 있다.	0	1	2	3	4
115.	지난 1년 동안 직장(아르바이트 포함) 생활이나 직업훈련기관에 적응하지 못해 그만 둔 적이 있다.	0	1	2	3	4
116.	지난 1년 동안 직장(아르바이트 포함)에서 상사나 동료 또는 고객으로부터 폭행이나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	0	1	2	3	4
117.	지난 1년 동안 직장(아르바이트 포함)에서 상사나 동료 또는 고객으로부터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0	1	2	3	4
118.	지난 1년 동안 직장(아르바이트 포함)에서 상사나 동료 또는 고객에게 언어적 또는 신체적 폭력을 한 적이 있다.	0	1	2	3	4